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크
제2차 심포지움

2017.10.27. (금) PM 1:00
건설관 대강당 (301호)

지금, 한국의 여성 청년

사회
이송이 (부산대 불문과)

토론
사회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발표
<나는 착한 여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윤슬기 (공공정책학부 학생)
<남성인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이유> 심교우 (사학과 학생)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과 “청년세대” 담론>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의 변화, 1995-2015>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젠더, 폭력과 차별, 혐오의 메커니즘>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페미니즘의 공간, 부대끼는 몸들의 정치학과 존재론>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토론
공미혜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김경연 (부산대 국문학과)

본 행사에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크 (여교수회, 성평등상담센터, 여성연구소, 여성학협동과정)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크 제2차 심포지움>에 초대합니다.

<부산대학교 성평등 네트워크>는 작년에 이어 2차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2016년 여름 부산대학교의 여성 교원들은 대학 내외의 성평등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목소리와 활동들을 모으는 틀거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부산대학 내의 성평등관련 기관/기구들
(여교수회, 여성연구소, 여성학협동과정, 성평등상담센터)이 모여
<부산대학교 성평등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성 청년>이라는 제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폭발하고 있는 청년담론에서 젠더 시각이 부재/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청년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직면한 삶의 곤경과
조망불가능한 미래가 우리 사회의 곤경과 조망불가능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포(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에서 시작된 청년세대의 포기 목록은
5포, 7포를 거쳐 N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청년담론에서 청년은 암묵적으로 남성으로 전제되고 청년 내부의
젠더 차이는 충분히 주목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성별임금격차는 거의 축소되지 않았으며, 10대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은 20%, 공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이 30%입니다. 빈발하는 데이트 폭력과
주거안전문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등에서 잘 드러나듯이 여성청년들이 직면한
삶의 곤경은, 장기적 미래의 조망불가능성 이전에 현재의 생존 그 자체를 둘러싼 불안과
공포라고 말해도 좋을 지경입니다.

<부산대학교 성평등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진작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실천적 논의의 장, 대중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청년의 삶의
젠더적 구성에 주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열어갈 주체형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이 논의를 더 풍성하고 치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견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성평등 네트워크
(여교수회, 여성연구소, 여성학협동과정, 성평등상담센터)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크 제2차 심포지움

지금, 한국의 여성 청년

1부 소개	12:40 - 13:00	등록
	13:00 - 13:10	개회사 및 성평등네트워크 소개 — 정영숙 (부산대 여교수회장)
	13:10 - 13:20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소개
2부 발표	13:20 - 14:00	발표 1: 나는 착한 여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 윤슬기 (공공정책학부 학생) 발표 2: 남성인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이유 — 심교우 (사학과 학생)
	14:00 - 14:30	발표 3: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과 “청년세대” 담론 —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14:30 - 14:50	휴식
	14:50 - 15:20	발표 4: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의 변화, 1995-2015 —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15:20 - 15:50	발표 5: 젠더, 폭력과 차별, 혐오의 메커니즘 —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15:50 - 16:20	발표 6: 페미니즘의 공간, 부대끼는 몸들의 정치학과 존재론 —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16:20 - 16:40	휴식
3부 종합토론	16:40 - 18:00	공미혜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김경연 (부산대 국문학과) 청중

차례

윤슬기 / 공공정책학부 학생
나는 착한 여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6

심교우 / 사학과 학생
남성인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이유 22

배은경 /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과 "청년세대" 담론 36

김영미 / 연세대 사회학과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의 변화, 1995-2015 52

장다혜 / 형사정책연구원
젠더, 폭력과 차별, 혐오의 메커니즘 76

권명아 /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페미니즘의 공간, 부대끼는 몸들의 정치학과 존재론 92

나는 착한 여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윤슬기 / 공공정책학부 학생

솔직히 말하자면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떻게 글을 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다. ‘발표 전까지 다이어트 해야지’ 와 ‘무슨 옷 입고 발표하지’ 였다. 난 페미니스트이고 여성 청년의 삶에 대해 말하는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다이어트라니... 내가 아직도 ‘여성’ 으로서 외모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나 자괴감이 들면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생각해보니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크고 작은 발표를 할 때마다 발표의 내용만큼이나 내 옷과 화장과 몸매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과연 남학우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발표를 준비했을까?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왜 그와 함께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내가 여자로 겪은 첫 번째 경험은 내 이름을 가지기도 전에 일어났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오셨고 병원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병원의 창문 밖에 서서 아들인지 딸인지 물으셨다. 외할머니는 딸이라고 말씀하셨다. 외할아버지는 집에 가자고 하셨다. 딸을 낳았다면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셨다. 나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딸이라는 이유로 가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가족들로부터 자주 듣곤 했다.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고 아끼고 사랑했는지의 아름다운 얘기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한 작은 이야기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의 자식들에게도 사온 적 없던 곰 인형을 사오시고, 생후 100일까지 매일 약수터에서 나를 씻기고 먹이기 위한 물을 떠오시고, 내 앞으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나중에 선물로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딸이니 집에 가자고 했던 할아버지의 말을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손녀라고 생각했다. 다만 난 내가 여자라는 점이 왠지 잘못한 일로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여자애인데도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지냈다. 나의 지극히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의 시작부터 성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내게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던 순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특별할 것 없던 순간들을 얘기하기로 했다. 누구나 겪은 몇 번의 성추행, 남자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기, 외모로 자책하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날 이후로도 쭉 '가시나인데도' 라는 말은 들으며 자랐다. 주로 칭찬이었다. 나는 똘똘하고 씩씩한 어린이였다. 유치원생 때 남자애들이 아이스케키라고 하는, 여자애들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난을 많이 치곤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 싫었다. 일부러 유치원에 원피스를 입고 가서 내 치마를 올리는 남자애에게 바로 응징을 가하며 나만의 작은 정의를 실천하기도 했다. 나는 이 때도 가시나인데도 당차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씩씩한 유치원 시절을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큰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2000년대에 나와 같은 여자아이들이 으레 그렇듯이 '조폭마누라' 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 별명이 약간 마음에 들었다. 나는 "여자애인데도" 힘이 센 아이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생 때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아빠는 "여자애인데도" 꿈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며 주위 친척들에게 내 자랑을 했다. 내가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저학년을 괴롭히는 고학년과 싸우고 그걸 혼내지 않는 선생님에게 화가 나서 학원을 그만두었을 때도 아빠는 "여자애인데도" 애가 강단이 있고 자기주장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이 말을 칭찬으로 생각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여자애인데도 하는 행동이어서 칭찬을 들은 것이었다면, 남자다운 게 좋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여자라는 점이 남자에 비해 어딘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느껴졌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듬해에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시절 글쓰기 대회 같은 것의 주제로 양성평등이 매우 많았다. 나는 양성평등은 당연한 것, 꼭 이루어야 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썼던 것 같다. 그만큼 양성평등은 당연한 얘기였다.

하지만 양성평등 글쓰기를 하며 자랐던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평등하지 않았다. 난 이 사실을 꽤 오랫동안 잊고 지냈고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요즘 초등학생들과는 다르게 꽤 평화로웠다고 생각했다. 다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니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빠구리, 섹스 같은 단어를 말하며 낄낄 거리고 성행위와 비슷한 몸짓을 하곤 했다. 여자 아이들은 못들은 척, 못 본 척을 할 뿐이었다. 너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하지도 않았다. 남자애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쟤 왜 저래"라고 생각했다. 그 "쟤"들이 유독 남자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섹스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성별의 아이들을 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남자아이들뿐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이게 내가 겪은 최초의 성희롱인 것 같다. 그리고 성희롱을 '나쁜 개인' 의 문제로 생각하고, 화가 나더라도 넘어가는 일의 시작이었다.

나는 6학년 때의 키와 지금의 키가 거의 똑같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나보다 키와 덩치가 작았다. 한번은 남자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울린 적이 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괴롭혀서 울렸을 때, 여자애들은 자꾸 장난치는 게 짜증나서 울었지 직접 복수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울려버린 그 남자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치를 떠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치를 떤다는 표현이 웃길지도 모르지만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는 그 아이의 분한 표정에 그런 표현은 적절한 것 같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고 괜찮냐고 걱정하는 진심을 보였지만 그 아이는 나를 있는 힘껏 노려보았다. 일부러 울리려고 때린 것도 아니고, 울린 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래주는데도 격한 반응을 보여서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반 아이들이 다 있는 앞에서 여자인 나에게 힘으로 당한 것도 모자라 아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사실이 매우 분했던 것 같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에게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이 이후로도 남자아이들을 몇 번 더 울린 적이 있는 데 그럴 때마다 반응은 비슷했다.

중학생이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옷차림이었다. 초등학생 때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하던 치마를 교복으로 매일 입게 된 것이다. 치마를 교복으로 입기 때문에 스타킹도 꼭 신어야 하고, 속바지도 꼭 입어야 하고, 하얀 교복 블라우스 밑으로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하얀 민소매도 받쳐 입어야 하고, 블라우스가 벌어져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행동도 조심해야 했다. 치마를 입었으니 활동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체육복을 입고 있으면 편했지만 교복을 입지 않으면 혼내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교복을 입고 있어야 했다.

티셔츠에 바지가 아니라 교복을 입게 되면서 몸가짐도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특히나 생물 시간엔 더욱 조심했다. 남자인 생물 교사는 교복 블라우스가 벌어지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은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블라우스가 벌어져서 다 보인다거나 치마 안이 다 보인다는 말을 했다. 아이들은 그런 게 싫어서 아예 체육복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나도 생물 시간 전엔 꼭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지만 우리끼리 불평할 뿐이었다. 초등학생 때 남자 아이들이 섹스라고 외칠 때 짜증났지만 우리끼리 불평하고 넘어갔듯이 "저 변태 왜 저래"라고 하며 넘어갔다. 그리고 남에게 브래지어나 팬티가 보여서 짜증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내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닌 중학교는 사립학교이고 분위기가 엄한 편이었다. 선생님들의 폭력의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그 폭력은 남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손바닥에 매를 맞거나 팔을 들고 벌 서는 정도에서 갑자기 뺨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시퍼런 멍이 들만큼 얻어맞게 된 것이다.

남자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와서 자신의 폭력성을 자랑하곤 했다. 과거에 얼마나 애들을 때려봤는지, 그래서 말 안 듣고 뻗대던 애들이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자랑해댔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던 신사 같은 사회 선생님은 과거에 말 안 듣는 여자애를 집어 던져서 책상이 다 뒤로 밀렸고, 그 여자애가 오줌을 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계속 때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185에 가까운 큰 키의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다는 건 너무 무서웠지만 평소엔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선생님 눈 밖에 나고 화나게 만들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88의 큰 키에다 콧구멍도 커서 아래에서 보면 콧구멍밖에 보이지 않아서 별명이 500원이던 국어 선생님은 전용 매를 가지고 다니며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두드려 팼다. 본인이 지나갈 때는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교감 선생님이 될 예정이었던 나이 많은 과학 선생님도 수업 중에 몸소 폭력을 보여주셨다. 수업 중에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반항적이던 여자 아이를 불러내서 뺨을 때렸고, 그럼에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자 멈추지 않고 때렸다. 그 아이는 150 초중반의 작은 체구였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밀려났고 결국 교실 끝에서 끝까지 밀려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을 때까지 맞고 있었다. 나는 무서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내가 폭력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에게는 까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언제든지 자기의 기분이 안 좋아지면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맞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우리 아빠이다. 아빠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듯이 아주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곤 했다. 가끔 밤에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나는 무서웠기 때문에 자는 척 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 아빠가 진짜로 엄마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폭력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나 무서웠다. 아빠도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말을 해주곤 하셨다. 나를 혼낼 때도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물건을 집어던지곤 하셨다. 꼭 때릴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덕분에 나는 아빠의 화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아빠가 쓰읍, 이라고 하기만 해도 재빨리 눈치를 채고 아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하던 행동을 중지했다. 가끔 반항심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꼼짝없이 2시간 정도 무릎 꿇고 팔을 드는 벌을 서면서 훈계를 들어야 했다. 아빠가 말을 하다가 화가 나는 순간에는 가끔 구두 주걱으로 허벅지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마냥 무섭기만 하고 두려운 존재인 것은 아니었다. 아빠는 퇴근한 후에 꼭 나와 동생과 놀아주시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셨다. 주말엔 거의 매주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도 했다.

아빠가 이렇게 잘 놀아주는 사람이지만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면 될 뿐이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러했다. 사건사고 속의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욱해서, 홧김에, 술에 취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염산을 부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남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나는 남자는 원래 화가 나면 무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화내지 않도록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린 해에 중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월드컵을 본 후 축구에 관심이 생겼다. K리그를 보게 되었고, 한 팀의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원정 경기까지 가서 응원하고 연간 회원권을 끊어 경기를 볼 정도의 팬이 되었다.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 경기도 밤을 새면서 봤고 게임도 FM이라는 축구 게임을 밤을 새가며 하곤 했다.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유니폼을 샀고 관련 용품을 샀으며 서포터즈 내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나는 꽤 자주 위화감을 느끼곤 했다.

먼저,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언제나 의심을 받고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영역인 스포츠에 여자가 끼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듯 했다. 사람들은 내가 축구 룰도 모르면서 선수의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개념 없고 한심한 여성팬’이 아닌지를 먼저 의심했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스포츠 룰도 모를 거라고 무시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다. 나는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오프사이드 룰은 알고 있느냐’ 하는 테스트를 당했다. 경기 직관에, 원정 경기에, 훈련까지 보러 다니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쾌했다. 내가 그들의 ‘진정한 스포츠팬’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여자가 대단하다는 말을 칭찬이랍시고 하곤 했다. 남성 팬이라는 이유로 경기 룰을 아는지 테스트당하고 팬이라는 것의 진정성을 의심받은 사람이 있긴 했을까?

두 번째는 서포터즈 내 친목활동을 하면서 느낀 위화감이다. 서포터즈 내의 중요한 자리는 모두 남자가 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남자 비율이 높긴 했지만 그

정도로 남자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딘가 남자만 자기 의견을 말하는 분위기였다. 여자들은 그냥 그 의견에 따르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남자들의 들러리 같다는 느낌은 서포터즈 내 소모임에서도 느껴졌다. 서포터즈 내 친목 축구 소모임에서도 남자들끼리 가서 축구하면 될 텐데 나와 같은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불러내 자기들이 축구하는 걸 구경하게 하였다. 나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고등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축구라는 취미는 잊어버렸다.

나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동창회가 잘 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였다. 남자애들이 있어서 내신도 잘 받을 수 있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만큼 독하지 않아서 내신을 잘 못 챙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최상위권에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못 따라간다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꼼꼼해서 내신을 잘 받지만 진짜 실력인 수능에선 남자애들이 더 잘한다고 했다. 나는 왠지 내신을 잘 받는 일은 별 것 아닌 것 같고 수능을 잘 치는 게 진짜 공부실력인 것 같았다. 남자애들이 있어서 내신받기 좋은 학교로 진학했지만 그래도 수능을 잘 치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했었다. 남자애들이 모의고사를 잘 친다고 했지만 학교에 게시되는 성적을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자 여자애들은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 먹은 후 쉬는 시간에 같이 운동 비디오를 보면서 운동하기도 했다. 교복을 줄이는 학생의 숫자도 많아졌다. 고등학생이 되니 성형수술을 한 아이들도 생겨났다.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니 나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겼다. 나도 짧은 치마를 입어야 할 것 같았다.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화장한 티를 내야 할 것 같았다. 안경을 끼면 안 될 것 같았다. 내 몸은 너무 살찐 것 같았다. 너무 많이 먹었다고 자책하면서 산책이라도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친구들과 함께 짧게 줄인 치마를 샀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가끔 친구들의 화장품을 빌려서 화장을 하기도 했다.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했다. 나도 수능을 치고 나면 성형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예뻐지고 싶었다. 그러지 않으면 나만 못생긴 사람이 되어 뒤쳐질 것 같다는 초조함이 들었다.

나는 대학입시라는 핑계로 외모에 대해 관심을 껐다. 반 학기 정도 어영부영 외모를 꾸미다가, 나는 꾸미더라도 다른 아이들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마를 했던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숏컷으로 댕강 잘라버렸다. 그게 곧 내가 외모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있었다. 날씬한 애들을 부러워했고, 예쁘게 화장하는 애들을 부러워했고, 예쁘게

줄인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을 부러워했다. 일부러 관심 없고 잘 모르는 척 했을 뿐이었다. 친구들과 얘기할 땐 잘 모르는 척 했지만 그때 한참 인기 있던 뷰티 프로그램인 '겟잇뷰티' 도 자주 챙겨보고 있었다. '수능 치고 나면 나도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내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의 생물 교사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체육 교사였다. 교무실을 청소하러간 우리 반 친구가 선생님의 쓰레기통을 비우게 잠시만 비켜달라고 하자 네 얼굴이나 청소하라며 얼굴에 유리 닦이용 세정제를 뿌렸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나 줄넘기를 시킨 후 가슴 덜렁거리는 것 좀 보라며 웃기도 했다. 우리는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그 앞에서 따질 수는 없었다. 무서운 이미지의 학생부 선생님인데다 평소에 말과 행동이 거칠었고, 체격도 좋은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화나게 만들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며칠 간 수업에 들어오셨던 여자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얘기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로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닐 거라며 변호해주시기도 하셨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는 우리의 말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다.

비슷한 짓을 한 사람 중엔 국어 교사도 있었다. 학생들이 립밤을 바르거나 핸드크림을 바를 때 창녀라고 불렀다. 아무리 생각해도 립밤이나 핸드크림이 창녀인 것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불렀다.

결국 나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냥 넘어갔다. 초등학생 때 남자애들이 빠구리라고 외칠 때 그러했듯이, 중학생 때 블라우스 안을 힐끔 거리는 과학 선생님에게 그러했듯이, 가슴 덜렁거리는 것 좀 보라는 체육 선생님의 말에도, 핸드크림을 바르니 창녀라는 국어 선생님의 말에도 또 한 번 그냥 넘어갔다. 기분이 나쁘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벌할 수 없더라도, 그냥 그 개인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또 화났지만 그냥 우리끼리 화를 내고 넘어가기로 했다.

고등학생이 되고나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나는 내 성격 중에서 씩씩하고 정의감 넘치는 부분이 좋았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유치원 때도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응징했고, 초등학생 때도 학원에서 저학년인 아이를 괴롭히는 고학년 아이와 싸웠었고, 중학생 때도 반에서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와 싸웠었다. 담임선생님은 따로 불러 칭찬도 해주시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챙겨달라는 부탁도 하셨다. 나는 나의 그런 모습이 제일 좋았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이런 성격이 여자애 같지 않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약자를 위하지만 나도 강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경찰, 검찰과 같은 곳에서 일한다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런 일은 공무원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울 수도 있는 일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사기업과는 다르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일이었다. 나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꼭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쉬운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걸 모두 함께 하면서 커리어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가장 확실한 일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자가 집안일이나 아이 키우는 걸 '도울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남자들도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은 주로 아빠였다. 아빠도 나의 정의감 넘치는 모습을 좋아했다. 여자인데도 당찬 딸을 주위에 자랑하시곤 했다. 나에게 그런 쪽으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빠였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려면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고 휴직도 보장되는 공무원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 얘기와 함께 여자는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여자와 남자의 문제를 떠나서 결혼하는 모두에게 중요한 일 아닌가? 남자면 도박 중독인 사람을 만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건가? 왠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배우자를 잘못만나면 안 된다는 게 맞는 말이긴 하니까 대충 넘어갔다.

수능을 치고 대학에 원서를 넣고, 내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었다. 난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외모를 꾸미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아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약간의 패배감을 느꼈었다. 학생이라는 핑계로 예쁨이란 몫을 유예한다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수능까지 쳤으니 더 이상 댈 핑계가 없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나도 대학에 가면 예뻐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건 신나는 일이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성형이었다. 고등학생 때도 이미 성형을 한 아이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수능을 치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크게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 오히려 쌍꺼풀이 없는 눈으로는 예뻐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능을 치고 난 후, 친구와 같이 성형외과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기도 했다. 수술이 실패해서 더 못생겨지고 성형까지 했다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망설여지긴 하였다. 다들 하는 것 같았고, 부모님과 친척들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었다.

다이어트도 시작했다. 야채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고 식사양도 매우 줄였다. 헬스장은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다.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있기만 하다가

운동도 하고 밥도 따로 챙겨먹으니 재미있기도 하였다. 살은 생각보다 쉽게 빠졌다. 살이 빠졌지만 어째 마음은 전보다 더 불편했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모자란 모습만 더욱 더 눈에 띄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보다 더 날씬한 친구들을 보고 더 예쁜 옷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화장이나 패션,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티비나 영화에는 예쁜 여자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못생긴 여자를 막 대하고 예쁜 여자에게는 잘해주면서 웃음을 만들어냈다. 광고에서는 외모 고민을 해결하고 여자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전 방위적인 공격덕분에 나는 머릿결, 머리모양, 눈썹, 코, 턱, 어깨라인, 허리, 종아리, 발목, 허벅지 등등 소고기를 부위별로 나누듯 내가 내 몸을 부위별로 세세하게 뜯으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이어트와 나 자신을 꾸미는 일을 통해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내 모습을 더 효과적으로 비난하는 법을 익혔다. 머릿속에는 못생겼다, 뚱뚱하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예쁘다는 말을 들어도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누가 나에게 직접 못생겼다거나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곤 했다.

나는 수능도 쳤고 다이어트도 했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 다음은 왠지 당연하게도 연애였다. 인터넷이건 책이건 시중의 연애지침들은 죄다 여자를 가르치는 것들이었다. 남자가 좋아하는/싫어하는 여자 성격, 남자가 좋아하는/싫어하는 여자 옷차림,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 남자가 좋아하는 애교, 남친이 좋아하는 5단 도시락 등등. 그런 옷차림과 내 옷차림을 비교하고, 나는 왜 다른 여자들처럼 애교가 없나 고민하고, 나도 예쁜 초콜릿과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여야 하나 고민했다. 그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에 나와 있듯이, 진짜로 남자는 화가 나면 '동굴' 에 들어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야 현명한 여자친구가 되는 줄 알았다. 다이어트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을 사기에도 바쁜데 남자를 위한 애교를 갖추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잘 웃어주고 남자가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남자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데이트할 때 지갑에 현금을 슬쩍 넣어주는 현명함까지 갖추어야 했다. 좋은 여자가 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했다. 다른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여자가 되지 않기란 너무 쉬웠다.

입학식을 하기도 전인 20살 2월에 사귄 첫 남자친구는 나보다 5살이 많았다. 남자친구는 나와는 달리 대학생으로서 해봤을 만한 일은 다 해본 사람이었다.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고 했다.

과 행사도, 과동기와의 술자리도, 동아리 모임과 뒤풀이도 모두 다 싫어했다. 술자리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귄 것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남자친구 몰래 밥은 몇 번 먹은 적도 있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여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것도 싫어했다. 여자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에도 내가 받을 때까지 전화하곤 했다. 내가 술 먹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였다. 나는 한참 친구를 사귈 시기인데 이러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하니 그냥 안하기로 했다. 1학년 1학기 내내 남자친구와 만나는 날이 아니면 집 가기에 바빴다.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데이트 비용을 거의 반반씩 내야했기 때문에 밖에서 돈을 쓰면 데이트하면서 쓸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내 옷차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사랑을 표현했다. 남자친구는 내가 짧은 옷을 입고 다리를 보이는 것을 싫어했다. 처음에는 싫다는 얘기만 했지만 점차 화를 내더니 한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남자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화를 냈다.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인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남자친구의 사랑하는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몇 번은 자기가 잘못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만 툭 해서 벌어졌었다.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한 줄 알지 어쩌라는 거냐고 했었다. 나는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지 고민하면서, 현명한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참고 넘어갔다. 몇 번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여자연예인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지만 '남자는 다 이러는 걸까?' 하며 넘어갔다. 몇 번은 남성연대의 성재기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헤어지자는 말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었고 크게 싸운 후 하루 정도 연락이 없다가 sns의 프로필 사진이 몇 번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 여자연예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나도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 헤어지자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진탕 먹고 놀다가 차분하게 막차로 집에 귀가하였다. 어차피 나는 학교와 집이 멀어 늘 막차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만 하는 나름 건전한 사람이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동아리에선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묘하게 분리되어 있던 서포터즈 활동에서 느낀 이상한 기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동아리 회장은 항상 남자가 하고, 다음 회장도 남자애들끼리 쑥덕쑥덕 회의인지 술자리인지 모를 것을 한 다음에 정하고, 맘에

들거나 예쁜 여자애 한명쯤에겐 부회장이나 총무 정도의 역할을 주었다. 동아리에 3, 4학년 언니들은 많이 없었지만 3, 4학년 오빠들은 꽤 있었다. 여자들은 고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한다고 안 나온다고 하였다. 그럼 남자들은 고학년이 되어도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 걸까 궁금해졌다. 남자애들은 형들과 자기들끼리의 친목을 다져나갔지만 여자애들은 언니들과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언니가 된 시점에, 나는 동아리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취업 준비 때문이 아니었다. 동아리는 남자애들 중심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여자애들은 들러리 같았다. 그리고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할만한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도 고학년인데 남자아이들끼리 동아리 일을 정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기에 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른 학교나 다른 과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도 대부분 학과나 동아리의 회장은 늘 남자였다.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는 회장, 여자는 부회장이나 총무 같은 보조적인 위치로 할당받는 것 같았다. 혹은 그마저도 남자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하거나 중요사안들은 남자들끼리 이야기 후 정했다. 왜 함께 하는 동아리인데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다. 모두들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다.

내가 페미니즘을 처음 접한 것은 2013년 '영화와 서양의 문화' 라는 교양 수업이었다. 수업 중에 '그녀가 떠날 때' 라는 명예살인에 관한 영화가 있었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여자 주인공이 이혼 후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왔고 아빠, 오빠, 남동생이 그녀에 대해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었다. 명예살인이란 개념은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영화 속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나는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남자들이 피붙이를 죽이는 데 아무런 망설임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여성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자 여동생이자 누나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가족 내 남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그리고 있었다. 남성 역시 가부장제에 의해 짓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개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그 순간 머리위로 느낌표가 뿅! 하고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까지 구원할 수 있었다. 이거야 말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 몰랐다가 알게 된 순간 페미니즘이 나에게 크게 다가왔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던 독서 토론 모임에서 같이 '이갈리아의 딸들' 을 읽고 토론하자고 했다. 나는 읽으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통쾌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나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됐다. 그런데 막상 얘기해보니 나를 빼고는 그 책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책이 별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고 너무 유난떠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알게 되면', 그래서 머리 위에 느낌표가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때까지 내가 익힌 페미니즘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덕분에 책과 함께 나까지 유난떠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독서 토론 모임에서 작은 시련이 있었지만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여자는 우먼(woman), 남자는 맨(man)이라 하는 것을 소설 속에서 여자는 움(wom) 남자는 맨움(manwom)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사고를 지배하는 언어가 바뀐 세상에선 작은 일상들은 물론이고 신화와 상징들까지 바뀌어있었다. 독서 모임의 사람들은 이런 걸 책의 유난이라고 표현했다. 난 책이 유난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이전엔 보고 있음에도 보이는 줄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미니즘에 대해 알수록 내 삶의 답답했던 지점들이 시원하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나는 페미니즘 독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체증이 약간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메르스 갤러리 이후 일련의 여성인권에 관한 이슈들이 터지고 많은 여성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뜻밖에도 페미니즘과 전혀 관련 없는 경제학과 남학우였다. 〈진로탐색과 생애설계〉라는 과목이었다. 교수님은 각자 자신의 생애주기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나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적은 후 옆 자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라고 하셨다.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그래프는 전혀 행복해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장사회에서 배제될 내가 걱정스러워졌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남직원들을 보면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 2명을 키우는 만큼의 육아휴직을 쓴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내 커리어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였다. 답답함을 안고 그래프를 완성한 후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학우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남학우의 그래프엔 결혼과 아이가 있지만 그로 인한 휴직은 없었다.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선 고민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남자는 결혼과 육아를 자신의 인생 계획에 넣지 않는 구나! 내가 좋은 엄마로써의 삶과 직장인으로써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머리를 싸맬 동안 이 남자는 오직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억울해졌다. 왜 나는 결혼과 출산을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쓰기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여자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 인생에 결혼도 없고 아이도 없다고 생각하면, 혹은 있더라도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삶의 가능성의 문이 확 열린 느낌이 들었다. 야근을 해도 되고,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되고, 아이의 정서를 걱정하며 늘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알려주는 좋은 여자친구 혹은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법에 혹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자친구' 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간다.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성혐오적인 말을 하는 남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덕분에 멀리 하게 된 사람도 있다. 연애하기는 더욱 힘들다.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내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점이 좋았지만 나는 그래도 '여자' 이다. 아빠와 남동생과 자주 어울렸던 영향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와 친밀감을 느끼고 주로 어울리곤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에게 '여자' 였다. 여자애 같지 않다는 칭찬은, 결국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늘 남성에 비해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할 뿐이었다. 내가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알고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은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외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이면서도 외모에 대한 고민을 떨칠 수 없는 나를 보며 답답하기도 하다. 요즘엔 외모를 의식하는 일 자체를 줄이려고 한다. 평소엔 화장을 하지 않고 몸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긴 머리가 덥고 불편해서 숏컷을 해볼까 싶었다. 미용실에서도, 내 얘기를 들은 친구도, 그리도 나도 숏컷은 '관리가 힘들어서' 더 불편할 것 같았다. 불편한 긴 머리를 잘라서 관리가 힘든 숏컷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나는 숏컷을 하더라도 여전히 '예쁜' 숏컷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았다. 그게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자르지 않았다.

길에서 남자들의 관리되지 않은 숏컷과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나는 왜 고생을 하나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남자들처럼 엉망인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닐 용기가 나진 않는다. 이럴 때면 여전히 예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에게 실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 싶다. 난 여전히 예쁘고 싶다. 다만 예쁘지 않을 때의 나도 마음껏 좋아해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나는 꾸미지 않고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내가 꾸미지 않은 여자를 보고 용기를

얻었듯이 다른 여자도 나를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라 믿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치고” 재미있다거나, “여자인데도” 할 말 한다는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외모나 성격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을 ‘나와 친해지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웃어주며 적당히 넘어가지도 않는다. 더 이상 적극적이지만 ‘적당히’ 소극적이고,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지만 ‘적당히’ 수줍어하고, 나서고 리드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자리는 양보하고, 결혼, 출산, 육아를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에 그것이 기준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핑계로 내 옷차림이나 내 미래, 내 인간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 살이 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성차별주의자냐고 물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좋다. 남자보다는 여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마음이 훨씬 편하다. 페미니즘 책도 읽고 수업도 듣고 모임도 참가한다.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고 내 머리 위에 느낌표가 떠올랐던 2013년 이후로,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과 가치관을 페미니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밤길이 무섭다. 얼마 전에도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가 따라왔었다. 나와 반대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뒤를 돌아보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더니 방향을 돌려 나를 따라왔다. 내가 걸으면 걷고, 뛰면 뛰었다.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반대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 돌아온 것이라 공포가 더욱 컸다. 내가 무서워하는 걸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나는 한밤중에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집에 들어와서도 진정되지 않고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다. 키가 작고 통통해서 체격이 좋은 남자가 아니었는데도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서워해야 하는 현실도 너무 억울했다.

이런 일을 중학생 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고등학생 때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대학생 때 시험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겪었다. 나는 야한 옷을 입지도,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다. 밤이어서 그랬을까?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는 길에서도 따라오던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슈퍼로 들어가고 남동생에게 전화해 데리러 나오라고 한 적도 있다. 그 남자는 동생이 올 때까지 슈퍼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며칠 후 동생이 미성년자여서 발송된 미성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에 그 사람이 있었다. 이게 나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잘못이 아님을 알 뿐이다.

나는 여전히 남자의 욕설과 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다.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최대한 구석에 붙곤 한다. 화장실, 도서관, 지하철, 계단에서 누가 몰카를 찍을까봐 걱정된다. 저열한 성차별적인 말을 들으면

무례함에 넋이 나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일침을 날리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자로 호명 당했으나 동시에 여자이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요구에 고민 없이 순응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심포지엄 발표 얘기를 듣고 다이어트를 떠올렸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 모순적일 수도 있다.

글의 초반부에 얘기하겠다고 밝힌 것들 중에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성추행이다. 나는 사실 10여년도 더 전에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그때의 공포는 날카롭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혼자 고민했던 외로움은 선명하다. 그리고 아직도, 25살의 페미니스트인 나조차도 내가 그곳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초등학생인 나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25살의 나 역시 신고하지 못한다. 글을 쓰면서 성추행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말지에 대해 수도 없이 고민했다. 그런 것쯤 별일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또 다시 모순적이다. 하지만 나의 고민과 모순을 얘기하는 것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다른 여성들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렇게나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위로이기도 한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고민해나갈 것이다. 나는 고민하는 나를 응원할 것이다. 모순적이더라도 '착한 여자' 가 아닌 나의 순간들을 응원할 것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의 삶에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해 나갈 여성들에게, 우리가 서로의 용기이길 바란다.

남성인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이유

심교우 / 사학과 학생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낯선 2층 집의 현관 문턱에 앉아있다. 고개를 돌려보면 그곳에는 굳게 닫힌 문이 하나. 그 안쪽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윽고 높아진 언성에 물건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인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현관에 있는 나와 할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집밖을 나선다. 이것이 바로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에 관한 첫 번째 기억이다.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의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엄했던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더욱 심하게 그녀를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 또한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늦은 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극심한 폭력을 당하게 된 어머니는 다음날 집에서 뛰쳐나와 아는 언니와 함께 제주도를 떠난다. 그 때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이었다. 객지 생활을 어떻게든 이어가던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별 관심이 없는 어머니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구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를 임신하게 된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웠던 결혼 생활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내 어린 시절에서 '아버지' 라는 단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 댁이 있는 강릉에서 유치원을 다녔고, 7살이 되던 해에 부산으로

내려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할머니 댁에서 사촌누나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 때문일까? 돌이켜보면 나는 초등학교 내내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과 어울렸었다. 설령 남자아이와 친해지더라도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다른 남자아이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이었다. 나는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처럼 여럿이서 어울려 다니거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보다도 나는 홀로 책을 읽거나 풀숲을 돌아다니며 곤충을 찾아다니는 등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학교 쉬는 시간에는 여자아이들이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구경하는 걸 더 좋아했다. 남자아이들 대부분이 다녔던 태권도 학원도 채 1달이 되지 않아 그만뒀고, 그 대신에 내가 선택한 것은 음악 학원이었다. 사실 나는 미술학원에도 다니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는 내심 내가 너무 '남자아이답지 않은' 학원만 다니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분야에 재능이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린 시절 나는 '울보' 였다. 넘어지거나 조금만 다쳐도 울고, 심지어 화가 나도 울고, 당황해도 울었다. 남자아이들이 잘 우는 걸로 놀려도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항상 나무랐다. 그러던 어느 날 잘못 넘어져 왼팔이 부러진 나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냥 넘어진 것인데도 팔이 부러져 버린 것에 상당히 놀랐던 탓인지 당시의 나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후 나는 길을 걷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별 것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를 본 어머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녀는 나에게 좀 더 남자아이답게 씩씩해지고 용감해져야 한다며 당시 부산에 머물렀던 삼촌의 도움을 요청했다. 삼촌은 그 때는 한없이 높아만 보였던 정글짐 위에 나를 올려놓고 스스로 내려오게 하거나 나에게 각종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론 어머니가 나를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때의 어린 나는 그런 생활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할 정도로 스트레스였다.

고학년이 되자 남자아이들 사이에는 이른바 '잘 나가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후자에 속했고, 나와 어울렸던 소수의 남자아이들 또한 그러했다. 하지만 그런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는 빨리 깨닫지 못했다. 수업시간이든 아니든 선생님 말씀에 곧잘 대답을 하곤 했던 나를 그들은 아니꼽게 여겼나 보다. 그들은 나에게 잘난 척 좀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아이들 사이의 이른바 '힘' 의 관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 하게 된 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의 일이었다. 다행히 내가 그런 그들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고 곧잘 조용히 지냈기 때문인지 그들의 사사로운 괴롭힘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나는 이후 서면 한복판에 위치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치가

개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때문에 3년의 중학생 시절은 이어지는 3년의 고등학생 시절과 비교하면 평화로운 편이었다. 다만 기억에 남는 사건이 두 가지 있다. 모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던 막 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의 일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서면에 나온 나는 그녀와 헤어져 지금은 없어진 동보서적이라는 서점을 향해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때 나보다 조금 키가 커 보이는 한 남자와 몸이 살짝 부딪쳤다. 정확히는 부딪쳤다기보다도 몸이 살짝 닿은 것뿐이었기에 그 사람과 내가 부딪쳤다는 자각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따라와서 왜 부딪쳐 놓고는 사과도 안하고 가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어느덧 내 옆에는 그 남자의 다른 일행도 서있었다. 당황한 나는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남자들은 나를 인적이 드문 지하철 화장실로 데려갔다. 애초에 그 남자들은 이른바 '삥을 뜯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렇다 할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단돈 몇 천원과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빼앗은 뒤 나를 놓아줬다.

딱히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난생 처음 겪는 일이 너무나 무서웠던 나는 울먹이며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 정도 일은 남자애들이라면 다 한두 번쯤 겪는 일이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물론 '별일' 이 아니긴 했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그 일이 결코 '남자애들은 다 한 두 번쯤 겪는 일' 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욱이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일은 학교에서 벌어졌다. 나는 다른 아이와 방과 후 화단 청소를 맡게 되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선생님들께 꾸중을 듣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욱 괘씸했던 것인지 나는 그 아이가 분담한 구역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나 그 사실을 선생님께 그대로 일러바쳤다. 당연히 다음날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를 혼내셨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억울했던 모양이다. 일처리가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은 남아서 청소를 하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가 끝난 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던 나의 얼굴에 주먹이 하나 날아들었다. 나는 맞았다는 것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은 이 일을 선생님께 알리러 갔다. 곧 나와 그 아이는 선생님께 불려갔다. 나를 때린 아이를 먼저 혼내신 뒤 선생님은 나에게 고개를 돌려 왜 사내아이가 가만히 맞고만 있었냐고 나무라셨다. 당연히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한 말씀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때의 나는 '왜 아무 이유 없이 맞은 건 나인데, 나도 때리지 않았다고 혼나는 거지?', '왜 그게 사내아이답지 않은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만과 의문은 곧 내 속에서 사라졌다. 남자아이들의 '힘' 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 또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는 그저

한데 몰려다니며 잘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사소하게 괴롭히는 정도였다면, 이때에 이르러서는 다른 학교 아이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집단으로 특정 아이를 따돌리는 등 그 정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의 누구와 누가 싸웠다더라',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제일 잘 나간다더라' 하는 등의 얘기가 떠돌았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따돌림을 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자의적으로 그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했고, 그들의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거나 점심 배식 때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몰래 더 주는 등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유치하고 야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러한 '적응' 과 '순응' 은 고등학교 생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식 날 그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후에도 몇 번인가 나를 불러내 외식을 했고, 나중에는 부산에 내려온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강릉의 할머니 댁에 함께 가기도 했다. 이때 나는 내가 '장손' 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큰아버지 댁에는 누나들밖에 없기 때문에 훗날 집안의 큰일을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였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체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 동안 그 흔한 부자지간의 정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다. 이 이후로도 그는 틈만 나면 연락을 해서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존재감' 을 나에게 피력했다. 사실 그러한 존재감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였지만 말이다.

고등학교는 앞서 내가 3년을 지냈던 곳과는 매우 상이한 공간이었다. 거수경례를 하는 전통이나 폐쇄적인 학교 분위기 등도 한 몫 했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남자 교사들이 욕설을 내뱉는 것은 일상다반사였고, 체벌의 정도를 넘어선 폭력도 수시로 자행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무슨 고집이었는지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교실의 자리는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쩌다보니 나는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어느 날 수학시간에 칠판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나는 문제지의 답지를 참고하며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시간에 답지를 보는 행위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다짜고짜 나의 뺨을 두어 번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나를 벽으로 밀어 붙였다. 나에게는 항변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처럼 학교 내 교사의 폭력이 공론화되던 시기도 아니었기에 나는 그저 그 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고등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나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었다. 이미 이전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남자아이들 간의 '힘' 의 관계는 이제는 좀 더 고착화되고, 좀 더 서열화 되기에 이르렀다. 힘없는 아이들은 학교생활 곳곳에서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급식실이나

매점에서 항상 그들에게 순서를 양보해야 했고, 청소 등의 궂은일은 언제나 그들 몫까지 대신해야 했으며,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반강제로 빌려줘야만 했다. 그들 집단이 '약자' 에게 행하는 장난의 정도나 폭력성은 현격하게 심해졌다. 어떤 아이의 사물함은 자물쇠를 걸어놓은 부분이 강제로 휘어져 그 속의 내용물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아이의 책상 서랍에는 더러운 물이 한 가득 들어있었다. 어떤 아이의 가방 속 내용물은 모두 창밖에 던져져 있었다. 이에 대해 항의라도 했다간 곧 집단적으로 린치가 가해졌다. 더군다나 이런 분위기를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부터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반이 바뀔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그 반에서 조심해야 하는 아이들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는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 가 되지 않기 위한 사실상 '생존' 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자는 사실 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 그 공간에 함께 있던 여교사들 또한 피해자였다. 그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남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교사가 여성일 경우 그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무시' 하는 태도를 취했다. 게다가 교사가 '쉬운' 사람이라고 파악되면 그들은 대놓고 책상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거나 그 위에 드러눕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젊은 여교사일 경우에는 거기에 성희롱까지 더해졌다. 대놓고 교사의 외모를 품평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수업 중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수업시간 중에 일부러 야한 만화책이나 잡지를 펼쳐놓고 보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여교사가 화장실에 들어간 걸 알고 화장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러 왔다면서 그녀를 희롱하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동들이 크게 공론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여교사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던 이유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게다가 아마 남교사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그런 행동을 그저 짓궂은 장난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보다도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그들이 대놓고 바로 앞에서 새치기를 해도, 눈앞에서 같은 반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수업에 들어온 교사가 모두의 앞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그저 속으로 분을 삭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고,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나 또한 그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몸만을 사릴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다. 내 방에서 홀로 눈물을 훔칠 정도로 말이다.

그나마 2학년 때까지의 짧은 학원 생활은 나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었다. 그곳에는 학생들을 보다 살갑게 대하는 강사들이 있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 그중에서도 그동안 친해지기는커녕 그들의 문화 전반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시달리기만' 했던 남학생들이 아닌 여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다지 성적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학원을 2년 동안 계속 다니기를 고집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뭐 나중에는 결국 성적 향상을 위해서 유명한 스타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하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말이다.

다행히도 3학년이 되자 그 아이들의 행위는 점차 잦아들었다. 아무래도 그들 또한 눈앞에 닥친 수능과 앞으로의 진로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나 보다. 하지만 3년이라는 고등학생 시절 동안 나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고, 때문에 지금은 따로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끔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얘기를 듣거나 그런 내용을 다루는 미디어 매체를 볼 때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그 시절은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 이 되었다. 지금도 고등학생 때의 일들과 그 때 품었던 자괴감 같은 감정들은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곤 한다.

최근에 나는 모 고등학교의 한 남학생이 자신의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희롱' 을 앞장서서 공론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 학생의 결단이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마음이 불편했다. 그 또한 나는 그 때 저 학생과 같은 용기를 전혀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으리라.

수능을 무사히 치른 나는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사실 나는 진로가 처음부터 문과였던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렸을 때 곤충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나아가 과학 실험을 구경하고 참여하는 것도 좋아했던 나는 장래희망 칸에 항상 막연히 '과학자' 라고 쓰곤 했다. 어쩌면 교육이나 사회의 고정관념이 내가 과학이라는 분야를 좋아하게끔 만든 건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어릴 적 사다주신 책들은 주로 우주나 공룡, 로봇, 곤충에 관한 내용이나 폐품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관련 대회에 나가거나 했던 기억은 없었다. 오히려 내가 상을 받은 건 백일장이나 글짓기 대회에서였다. 그 때문인지 나는 점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노트에 즐겨보는 만화를 패러디한 자작소설(팬픽)을 쓰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도서부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나는 사극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드라마 ≪명성황후≫의 을미사변 장면을 다룬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었다. 이런 내가 중학교 때가 접하게 된 것이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던 중국의 '동북공정' 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최초의 이유였다. 그렇기에 내가 처음으로 접한 역사란 다분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사고는 고등학교에 이르러 '세계사' 과목을 접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학교에서 세계사 교과목을 따로 가르치진 않았지만, 한국사를 공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변국의 역사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세계사라는 교과목에도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그 시점에서 자신의 '처참한' 수리 영역 실력을

확인한 나는 문과로 진학하기로 굳게 마음먹게 된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역사학을 내 진로로 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세계사, 그 중에서도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어찌 보면 특별한 부분에 흥미를 느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 테오도라 황후, 잔 다르크, 엘리자베스 1세,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 앙투아네트 등등, 역사 속의 여성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황제, 왕, 영웅들과 같은 남성들에게 주목할 때 나는 오히려 왕비, 여왕, 여신 등과 같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도 나는 특정 남성에게서 롤 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멋지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느낌을 여성들에게서 받고 있다. 어쩌면 내가 그 당시 역사 속의 여성들에 매력을 느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는 훗날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을 분야가 무엇이 될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징후가 아니었을까?

나는 계획한 대로 부산대학교 사학과의 11학번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아버지는 전보다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바로 진로, 아니 '취직'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부모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애초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내가 어느 학과를 지망했는지, 해당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꿈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것들은 전혀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지만을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그 때는 막 대학교 새내기에 불과했는데도 그의 입에서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튀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네 앞길은 알아서 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설령 그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아왔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이라고는 느껴보지도 못했던 내가, 심지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부 알고 있는 내가 그 말을 좋게 들을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리고 이런 그와 나의 불편한 관계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별 일 없냐고, 뭐하고 지내냐고 묻는 아버지는 정작 그 대답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이게 다였다. "그래서 취업 준비는 잘 하고 있냐?"

그런 아버지의 취업에 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내 왔던 탓인지 대학 생활에 대해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해나간다는 학생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학은 내가 생각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었다. 나는 선후배간의 억압적인 위계질서에 다시 한 번 적응해야만 했다. 새내기가 참여하는 큰 행사에는 늘 고 학번 선배들이 새내기의 '기를 잡는' 시간이 있었다. 선배들과의

술자리는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었고, 만약 학과 행사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아니꼬워하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내가 '농활' 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순수하게 농촌 체험을 해보고 싶었기에 농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3일째인가 되던 날 아침, 나는 갑작스럽게 복통에 시달렸고, 결국 마을이장님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 맹장염이었다. 그렇게 나는 억울하고도 아쉬운 마음으로 농활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후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된다. 남자 선배들을 중심으로 내가 힘든 작업에서 빠지기 위해서 일부러 꾀병을 부린 것이라는 얘기가 퍼졌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벌써부터 빠졌다' 는 소리까지 들렸다. 안 그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이없는 이유로 하고 싶었던 농활 체험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농활 내내 고 학번 선배들의 터무니없는 권위주의적 언행에 시달린 터라 더욱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홀로 분을 삭이는 것뿐이었다. 그저 막연히 '나는 후배들에게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선배가 되어 학과 학생회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것이다. 그 해의 학생회장이 고 학번 남자 선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과에는 고 학번 선배들이 새내기들의 기를 잡는, 쉽게 말해 군대식 위계 문화가 잔존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선배들은 그런 자리를 즐기는 듯했다. 그들은 줄곧 '후배를 교육하는' 자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자청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선뜻 그런 악습을 없애자는 얘기를 선배 앞에서 꺼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새내기들을 그 고 학번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인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선배들에게 맞춰주고자 했지만, 불쾌감을 참을 수 없어 표정관리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어색한 분위기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결국 내 차례가 끝난 뒤 선배들은 '왜 이렇게 못 맞춰 주냐' 고 핀잔을 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나는 학생회 일 자체에도 완전히 흥미를 잃어 버렸다. 다행히 그런 악습과 선배들이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작년의 학생회가 앞장서서 근절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그 소식에 나는 내심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 느꼈던 자괴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아 나는 또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자괴감과 자책 같은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던 내게 새로운 길과 시각, 그리고 희망을 전해준 것이 있었느니, 그것은 바로 '페미니즘' 이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나는 '젠더' 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신과 주변 남성들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어느덧 어머니의 불행했던 과거, 내 주변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 차별, 고등학교 때 목격했던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과 비하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남성들의 세계' 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여러 인식들을 형태를 이루어 눈앞에 보여준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었던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페미니즘을 알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는 단순히 역사 속의 유명한 여성들, 특히 잔 다르크와 같이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게 전부였다. 하지만 사학과를 들어온 뒤 그런 '역사 속의 여성'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 것이다. '서양 중세사' 시간의 과제가 자유주제라는 것을 알고 나는 기독교 중심 사회 속의 여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그리고 중세의 '이브' 와 '마리아' 라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19세기사' 라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당대의 주요 인물을 한 명 탐구해보라고 하셨을 때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조르주 상드였다. 그녀를 통해서 나는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동시에 기존의 공고화된 이미지와는 다른 삶을 살려는 여성에게 얼마나 극심한 공격이 퍼부어지는지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점점 내가 배우는 역사라는 학문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미시사' 라는 분야를 알게 되자 기존의 정치사, 사건사 중심의 역사학에 싫증을 느끼기에 이르렀고, 그런 관점의 역사학을 공부하다보니 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가커져만 갔다. 특히 기존에는 여성사를 공부하면서도 이름이 알려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나였지만,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반 여성 민중의 삶,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절반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평범한 사람들' 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마르탱 게르의 귀향』의 베르트랑드는 내게 일반 민중들, 그 중에서도 평범한 여성들 또한 역사 속에 숨 쉬고 있었음을, 그저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그런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 나름의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줬다.

또한 전공 선택 과목 중 하나인 '서양여성사' 를 들으면서 나의 여성사에 대한 지식은 보다 확장될 수 있었는데, 여성해방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수업을 통해서였다. 이후 나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강의계획서에 소개되어 있거나 교수님이 언급했던 서적들과 고전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학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그토록 위화감을 느끼고 있던 것의 정체가 바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세계관' 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이 주변 남성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기존의 고착화된 '남성성' 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책에서 읽었던 구절 그대로 나의 세계에 대한 시선은 페미니즘을 알게 된 후 "흔들리고 새롭게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또한 페미니즘을 성평등과 인권을 주창하는 단순한 사회운동/신념/사상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적 정치사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회운동, 시민단체, 학생운동이라는 것에 동경을 품고 있었고, 현실과 이상이라는 단어 중에서 단연코 후자를 선호하는 성향이었다. 주한미군 장갑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반미정서에 빠졌던 적도 있었고, 중학생 시절에는 앞서 말한 대로 역사왜곡 문제에 푹 빠져 있었으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목을 접하면서 '운동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로 그런 동경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적은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겉핥기로나마 바라본 사회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지식은 자연스레 보편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어느덧 인권이라는 개념은 나에게 있어 어떤 이유/어떤 관점을 막론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경계선이 되었다. 때문에 나에게 페미니즘이 말하는 이상은 그야말로 바라 마지않던 것이었다.

다만 그런 나에게 아직 크나큰 시련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폐쇄적인 공동체라니,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함 그 자체였다. 때문에 나는 육군부대보다는 그나마 덜 폐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겨 의무경찰에 지원하게 되었다. 비록 각종 집회시위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아서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접한 남성 문화는 지금껏 내가 겪어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복을 입었던 때만큼 노골적이진 않았으나 그곳에도 여전히 '힘'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군대라는 계급사회의 위계질서는 그런 것을 정당한 것인 냥 악용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힘과 체력을 과시하거나 운동실력을 뽐내는 등 '남성성'을 드러내는 행위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들은 알게 모르게 집단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만큼 여성혐오적인 공간과 집단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 약 2년간의 의경생활 동안 매일매일 그들의 대화에서 '여성'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다른 여성들과의 성 경험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길 즐겼다. 만약 누군가의 여자친구 혹은 여성 지인이 면회라도 오는 날에는 면회실을 훔겨보며 외모와 몸매 품평을 일삼았다. 심지어 자신의 성 구매 경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비록 의경이지만 그럼에도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험을 자랑스럽게 내뱉기도 하였다. 특히 외박/휴가에서 돌아온 뒤에는 다들 자신의 그런 '영웅담'을 늘어놓기 바빴다.

생활실에는 걸그룹 영상이 거의 늘 틀어져 있었고 당연히 그녀들에 대한 희롱과 외모 품평이 뒤따랐다. 게다가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경찰인 지휘요원 또한

그런 분위기를 용인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대원들이 그런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여겨 공식 행사의 쉬는 시간에는 섹슈얼리티만이 한층 강조된 걸그룹의 영상을 늘 틀어줬다. 또한 부대 내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여성혐오적 험담과 성희롱에 시달렸다. 최근 경찰 직원들의 영양사 성희롱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하지만 내 경험상 그건 비단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의경 대원들은 다른 부대에 '젊고 예쁜' 영양사가 고용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영양사의 면전에서 조롱을 일삼는가 하면, 취사 대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원들이 영양사의 성격을 지적하며 '히스테리를 부린다.' 는 등 혐오적인 험담을 일삼았던 것이다.

그들의 입과 눈은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서 젊은 여성이 눈에 띄면 그 사람을 몰래몰래 쳐다보면서 쉴 새 없이 혀를 놀렸다. 당연히 여경들 또한 그들의 희롱 대상이었다. 출동이나 훈련 등에서 여경들을 목격이라도 하면 곧잘 여성혐오적 발언과 성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는 직원경찰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부대의 일은 아니었지만 여경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는 얘기가 꽤나 자주 들리기도 했다.

후임들은 당연히 나도 그런 종류의 얘기를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둘이서 근무를 설 때면 항상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얘기를 쏟아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일베' 를 비롯한 여성혐오적 남초 사이트의 유저임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생활실에서 몰래 핸드폰을 반입하여 쓰던(당연히 복무규정 위반이다!) 한 선임은 수화기를 통해 '자신이 만나는 여러 여성' 중 한 명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리고 그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낙태' 를 하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다. 게다가 그는 전화를 끊고 생활실에 있던 모두에게 앞으로도 자신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며 당당하게 '선언'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적어도 후임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혐오 발언을 입에 담았을 때는 제지하거나 회피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선임일 경우에는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그런 여성혐오적인 대화를 맞춰주기까지 해야 했다. 게다가 지휘요원들마저 대원들과 그런 종류의 농담을 주고받는 마당에 직원들에게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저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었다. 물론 그렇게나마 할 수 있었을 때는 꽤나 시간이 흘러 '고참' 의 위치에 올랐을 때였지만 말이다. 이처럼 자괴감은 군대생활에서도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그리고 이러한 의경 생활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군대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악' 이라 할지라도 징병제라는 제도는 사라져야 할 '사회악' 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그곳은 지금도 끊임없이 잘못된 남성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적으로 편치 않았던 의경생활이 끝나고 나는 어느덧 대학생활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애초에 사학과에 진학할 때부터 연구직을 꿈꾸고 있었고,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내 꿈과 적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의 진로를 전혀 지지해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할 뿐이다.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의 압박 때문인지 어머니 또한 나에게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내 앞날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불안하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믿는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불행했던 과거를 비롯하여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스스로 경험했던 '남성 동성 사회' 의 모습은 나에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세계관에 대한 위화감과 괴리감을 가지게 했다. 페미니즘은 그런 나에게 새로운 시선을 전해줬다. 고전을 읽으면서 알게 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에멀린 팽크허스트, 시몬 드 보부아르, 베티 프리단과 같은 사람들의 사상은 비록 각자 시대적 한계나 비판점이 있을지언정 그 어떤 사상가들의 주장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엠마 왓슨의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라는 연설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기도 했다.

또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터져 나왔던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넷 페미니스트의 활발한 활동, 늘어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그런 여론을 반영하는 미디어 매체 및 프로그램의 증가 등이 내가 믿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특히 넷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은 나에게 큰 영감을 줬다. 사실 나는 SNS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전혀 흥미가 없었고, 그 때문에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이 한창 '뜨거운 감자' 였을 때 그저 'DC나 일베와 같은 사이트가 또 하나 생겨났다' 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들의 발언 내용이나 '미러링' 이라는 전략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 커뮤니티가 그동안 가려지고 숨겨졌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온라인상에서 드러나게 하는 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까지 퍼져 나갔고, 그런 그들의 용기는 나에게도 큰 힘이자 하나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성이 페미니스트(나는 남성이 페미니스트라고 거리낌 없이 쉽게 자처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자.)가 되면 주변 남성들과 멀어지게 된다. 아니 멀어질 수밖에 없다." 는 말이었다.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는 문장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는 그다지 해당되지 않는 문장인 것도 같다. 내 성격 자체가 사교성이 있지도 않거니와 많은 수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니 분명 멀어질 만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사회 개혁이나 약자를 존중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사실상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른바 '우아한 호모포비아' 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들이 너무나 흔했다. 심지어 기존의 공고화된 남성성에 반하거나 그런 남성성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할 생각은 없냐는 말을, 그것이 웃어넘길 수 있는 농담인 것 마냥 쉽게 내뱉는 이도 있었다.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지적해줘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자신의 성매매 경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남성들도 있었다. 게다가 그 중에는 함께 업소에 갔던 남성들 중 자신이 가장 오래 성관계를 가졌다며 뿌듯해 하는 이가 있을 정도였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그 사건에서 여성들이 느꼈던 '일상적인' 공포를, 뿐만 아니라 몰카나 각종 성범죄에 대한 위협, 어두운 밤거리에서 여성 전반이 느끼는 공포 등을 이해해 보려 하지도 않고, 남성인 자신도 밤길이 무섭다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태연히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분히 여성혐오적인 요소가 가득한 것을 자신의 성적 페티시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이가 있었고, 앞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공간에서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이 보고 듣고 있는 장소에서와는 달리 남성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여성혐오적 발언이나 각종 비하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그들과 멀어 지지는 않았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사정이 달랐지만 말이다. 사실상 나 자신 또한 이른바 '남성동성문화' 속에서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중, 남고에서 그러했고, 군대에서도 그러했다. 그 속에서 나 또한 '소외'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되거나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느꼈던 자괴감은 아직까지도 나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시도 때도 없이 되살아나 아무 이유 없는 우울함마저 느끼게 만든다.

나는 그러면서도 내심 '남자들은 다 이렇다.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바뀌겠지' 하는 한없이 낙관적인 희망을 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현실을 외면한 채 하는 타협이란 결국 타협이 아니라 하나의 폭력이자 '악' 의 편을 드는 것임을 직시해야 했다. 남성들은 원래 그런 것이니 이해해야 하고 웃어 넘겨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웃어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 현실성 없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생물이 아니라는 것쯤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더군다나 이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세계관에 그야말로 찌들어 있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죽하랴.

여성사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나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 사람들과 부딪치고 마주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허울 좋은

타협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때문에 설령 주변인들과 멀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멀어진 자들은 결국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도 지니지 않을 존재들일 것이라고 이제는 믿기에.......

다시금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내가 가려고 하는 길 자체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머리 속에는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서로 거리가 먼 것”이라는 마키아벨리의 말과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계를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 애쓴다. 그러므로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버나드 쇼의 말이 부딪치고 있다. 살짝 후자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어느덧 밤중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올해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내년의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단지 내가 즐겨듣는 곡의 가사처럼 훗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계속해서 헤매왔던 여행길 중에, 후회의 파편에 상처를 입었지만, 찾아 헤맸던 답은 지금 여기에, 작은 그 손으로 붙잡고 있어.”

달이 밝게 떠서 밤 산책을 나갔다. 그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성학과 페미니즘을 공부한다는 것을, 페미니스트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면 나의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과 “청년세대” 담론

배은경 /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1) ‘청년 여성’이 지워져 버린 청년세대 담론

이즈음 ‘청년 세대’ 는 한국사회가 봉착한 불안과 전망 부재의 현실을 드러내는 기표가 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에서 ‘3포세대’ 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는 ‘5포세대’ 라는 말이 나오고, 급기야는 이에 더해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7포세대’ 라는 말까지 등장했다.[1] 한동안 안정적인 취업과 이를 위한 스펙 마련에 고군분투하느라 눈앞의 생애주기 과제를 포기하는 행위양식이 청년 세대의 보편적 특징으로 표상되어 왔는데, 이제는 원하는 직업 갖기나 희망과 꿈이라는 (이전에는 그것을 위해 생애주기 과제가 유보될 수 있었던) 목표 그 자체마저 포기의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청년의 고용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성인기 초기의 젊은이들에게 비관적인 이름을 붙이고 관찰과 진단의 대상으로 삼는 담론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2] 그러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인구집단 모두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거기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모두 무시한 채 통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그럼으로써 청년들을 모두 똑같은 혼돈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로 표상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은 없을까?

사람들은 ‘청년 문제’ 라고 하면 취업난에 처해 있는 젊은 남성의 모습을

1) 2015년 4월 30일 각 매체들은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2030세대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제히 7포세대라는 단어를 붙여 보도했다(『중앙일보』, 2015.4.30, “2030세대 80% 5포가 아니라 7포세대예요”; 『조선비즈』, 2015.4.30, “3포세대? 이제는 7포세대, 결혼·출산·내집마련順 포기” 등).

2) 서구에서는 흔히 출생 코호트별로 베이비부머세대—X세대—Y세대로 이어지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중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Y세대는 소비와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지며, 자아도취적인 동시에 부모 세대에 기생하는

세대로 설명되고 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 유럽의 명명법은 그리스의 '700유로 세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천유로 세대'와 같이 그 세대의 평균 임금 액수로 규정하는 것과, 프랑스의 '불안정한 세대'나 유럽 전반에서 사용되는 '부메랑 세대'와 같이 부모 세대에 대한 의존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대별된다(홍찬숙, 2015).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빠링허우 세대(80後 세대, 80년대 생 이후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구집단)', 일본의 '로스 제네(버블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세대)', '사토리 세대(경쟁적이고 표준적인 삶의 양식을 이탈하는 세대)' 등이 청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홍중, 2015: 180).

3) 김홍중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변화로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취직—결혼—출산>의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된 것을 청년층이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세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된" 것과 연계시키고 있다(김홍중, 2015: 190).

떠올리곤 한다.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바 ('3포' 에서 '7포' 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포기의 목록들은 2000년대 이후 약화된 혹은 불가능해져 버린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남성의' 생애주기 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3] 3포, 5포, 7포 세대 담론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절박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연애나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재현된다. '학업을 마치면 취업을 하고, 안정된 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산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남성적 생애주기 모델을 정상적인 표준으로 삼고,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하나씩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불안' 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담론 구조에서, 일상적인 여성의 경험은 청년의 경험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비가시화된다. 청년 여성들은 '청년' 이 아니라 그저 '젊은 여자' 로 파편화되어 인식되며, 사회적 행위자라기 보다는 그저 문젯거리거나 혐오의 대상 혹은 주체로 사유된다. '남자라는 것이 스펙'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골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만연한 여성혐오, 성폭력에 대한 내면화된 공포와 성희롱, '안전이별' 이 화두가 될 정도로 극심해진 친밀한 사이에서의 폭력 등 청년 여성의 삶을 둘러싼 현실적 경험들은 '청년 세대' 의 것으로 위치지워지지 않는다. 2015년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젊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성혐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이 일군의 청년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영영페미 or 뉴페미)' 혹은 '메갈' 로 분류되며, 그들의 목소리는 청년 세대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이른바 '남성혐오' 의 표출, 잘못된 페미니즘의 표현인 것으로 치부된다. 그녀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조차, '여성혐오' 라는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데 매몰되어 청년 여성들의 현실을 청년 세대의 경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젊은 여성들은 여성혐오의 피해자로 여겨지거나 혹은 '남성혐오' 를 내면화한 문제 집단으로 간주된다. '여성혐오' 에 대한 문제제기를 곧바로 문제제기자들이 갖고 있는 '남성혐오' 문제로 치환하는 반여성적 담론구조는 주류 언론에서조차 지배적이며, 이는 한국 청년들 사이에, 혹은 온라인상에 '이성 혐오' 가 만연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포시켰다. 청년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 하거나 혹은 이기심 때문에, 소비주의적 욕망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힘없고 돈 없는 한국 청년 남성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한 그녀들의 태도가 청년 남성들에게 여성혐오를 일으키며,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 하므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 여성들은 문제의 원인이거나 문제 그 자체인 집단으로 여겨진다. 그들도 '청년' 이며 그러므로 청년 세대의 고통을 공유하면서 또한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젠더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들이라는 인식 자체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이다.

2016년의 일련의 사건, 즉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김자연 성우 계약해지 논란, 시사인 절독 운동, 탄핵요구 촛불시위의 맥락에서 시국비판곡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DJ DOC의 노래 〈수취인분명〉 등의 사건들을 거치며 남초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남성–약자 담론을 분석한 김수아 · 이예슬의 논문(2017)은 어떻게 청년 여성들이 문제 집단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그녀들의 현실이 왜곡되어버리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남성–약자 담론은 메갈이라는 비정상적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그 대척점에 일베가 아닌 '선량한 일반 남성' 이라는 주체를 구성한 뒤, 젊은 여성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성혐오나 성차별도 하지 않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일반 남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잘못된 분노로 치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남성–약자 담론 안에서 성차별이란 기성세대의 잘못이며, 실제 젊은 여성들이 당하는 여러 차별들의 가해자 역시 기득권자인 기성세대 남성들이지 청년 세대 남성들이 아니다.[4] '헬조선' 의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돼지' 로 고통받고 있으며, 남성은 남성이라서, 여성은 여성이라서 강요받고 있는 몫이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젠더 관계는 이미 공평하며, 따라서 성차별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여성만 힘든 것처럼, 남성은 힘들지 않은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임을 내세워 '특권' 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논리가 구성된다. 스스로를 기성세대의 남성들에 비해 약자로 보는 청년 남성–약자 담론은 이런 방식으로 같은 세대의 여성들이 겪는 젠더 억압과 성차별을 비가시화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들을 '문제 집단' 으로 구성하게 된다.

청년 남성들에게 물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집단이 '20대 여성' 이고 다음이 '50대 남성' 이라고 답했다는 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같은 담론 구성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안상수 외, 2015), 현재의 청년 세대 담론은 청년 남성만을 '청년 세대' 로 생각함으로써 청년 여성의 현실은 배제될 뿐 아니라, 나아가 청년 여성을 문제집단화하고 그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2) 청년 여성의 문제는 여성문제, 청년 남성의 문제는 세대 문제?

역설적이게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경험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된 청년 세대 구성원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었다. 20–30대 청년 세대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학 분야나 젠더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론적 접근, 경제사회적 접근에 집중되었다. 문화론적 접근의 주된 초점은 젊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비판 담론을 분석하는 데 모아졌으며,[5] 2008년과 지난 겨울의 촛불집회 이후로는 이것을 정치적 주체화의 차원에서 진전시키는 연구들이 두드러지는 추세다.[6] 경제위기의 타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20–30대 개별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돌파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4) 김수아·이예슬(2017)은 <시사인> 절독사태 국면에서 나타난 다음 댓글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중심에 대한 부분에서 황당한 건, 그건 엄연히 기성세대입니다. .... 한국사회가 그동안 여성에게 불리했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걸 유지하게 하는 것은 기득권 남성이지, 인터넷을 자주 하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점이고", "솔직히 반70 평생 살아오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이득을 봤던 적이 거의 없네요. 우리 또래 남성들이 일부 극우 성향있는 꼴통들 빼고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문화도 거의 못봤고요. 우리보다 윗세대가 저질러놓은 똥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혐종자가 되어 버린다면 좀 억울하죠"(pp.88-89)

5) 주로 젊은 여성들이 향유하는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성격을 드러내고(한우리, 2012; 모현주, 2007; 오자영, 2007), 비혼의 증가와 결혼·출산의 유예 속에서 급변하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나이듦의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다(전희경, 2013; 김한나, 2011; 노미선, 2008; 심경미, 2002).

6)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년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고, 이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연구들이다(김수진, 2013; 김수진 외, 2012; 김수아, 2012; 윤보라, 2011; 김예란, 2010; 김예란 외, 2010; 김영옥, 2009).

조금씩 축적되었다(김혜경 · 이순미, 2012; 박기남, 2011; 이수정, 2010; 배은경, 2009).

그런데 이렇게 청년 세대에 속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에 통합되기보다는 그저 '여성들' 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2000년대 이후 청년층 남성에 대해 이뤄진 경험 연구가 상당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류 청년 세대 담론에서는 청년층을 그냥 남성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20-30대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여성 연구' 로, 20-30대 남성들에 대한 연구나 혹은 젠더 관점을 결여한 몰젠더적 연구는 '세대 연구' 로 다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 세대 담론의 남성중심성은 기실, 기성 세대가 가진 젠더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청년 세대 담론이 기성세대가 가진 젠더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청년의 위기 혹은 청년의 증상으로 운위되는 현상들이 기실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 생애 달성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달성해야 할 '정상적인 생애주기' 의 표준이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전형적인 남성의 그것이라는 것이다. 표준화된 남성 생애주기가 달성하기 어려워진 만큼 여성들 역시 근대적 젠더관계 모델에 따른 생애주기 설계가 어려워졌는데도, 이것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자는 드물다. 적어도 1997년 IMF 위기 이후로는 근대적 젠더분업에 따른 성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젠더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 젊은 한국 여성들의 현실일진대(배은경, 2009), 굳이 취업 후 결혼, 부모되기라는 근대적인 남성 생애주기의 정상성 해체만을 현재의 청년 세대가 처한 어려움의 전부로 지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또한, 젊은이들이 비슷한 사회경제적 국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청년 세대' 혹은 '2030세대' 등으로 묶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어떤 연대 혹은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현재의 대중적 청년 세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7] 동일한 '청년' 으로서의 세대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이질성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령 계급이나 젠더와 같은 다른 사회적 분절선을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최근 청년 세대를 '달관 세대' 로 호명하고자 했던 한 미디어의 기획이[8] 높은 학력자본과 상층계급 가족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경험에만 기반하고 있음이 쉽사리 지적되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은[9] 이것의 한 방증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실제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성인기 생애주기 과제를 달성해 나가야 하는 불행한 세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만큼 자신들 가운데에 계급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 현상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온라인/디지털 세계에서

7) 일찍이 '세대'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부각시킨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heim)의 경우,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가 실재성으로서의 세대 (generation as actuality)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세대 위치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실재성으로서의 세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세대 단위들 (generation units)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만하임, 2013: 64-67).

8) 『조선일보』의 기획기사, "달관세대가 사는 법" (2015.2.23).

9) 조선일보의 기획기사에 답한 모진수의 글 "<조선일보>의 '달관세대', 원인과 결과 뒤바뀌었다: 한 취업준비생이 바라본 현실. 유명대학 다니면서 달관했다니"가 대표적이다(『오마이뉴스』, 2015.2.27).

활동하는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 신자유주의 시대의 위기와, ‘수저론’ 으로 대변되는 계급적 불공정에 대한 감각이 작동한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구조조정, 민영화, 성과급제, 노동유연화로 많은 이들을 해고하였고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증가시켰다. 사회 양극화는 급속히 진향되었고, 실적 위주의 인사평가와 과다한 경쟁의 일상화는 부당한 일도 참고 넘겨야 하는 과도한 서비스적 마인드를 강요하였고 공동체적 책임은 해체되었고 위험은 개인화되었다. 손희정(2015)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혐오라는 정동(affect)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안정한 정체성,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공고한 공동체적 감각의 상실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향수 또는 ‘나도 사회적 약자가 될수 있다’ 는 불안감 속에서 사회적 주류, 기득권 세력에 적극적으로 동일시하며 “상상적인 기득권 남성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이들”, 즉 “여성, 성소수자, 종북,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호남 등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신자유주의화 만으로 최근 심화된 여성혐오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1990년대에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오늘날 청년층을 구성하는 인구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사회는 고도성장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 정보사회이자 소비사회, (1997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사회에서 이들은 근대적 젠더관계가 규정하는 젠더 역할을 학습하고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기존의 척도로 측정되는 성별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배치와 문화적 재현물 속에서 젠더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청년층은 기존의 근대적 젠더역할의 수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수행하며, 젠더 질서를 재구성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악화가 남성 1인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을 붕괴시킴으로써 기존의 근대적 젠더관계를 와해시키고,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성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성과 여성들은 새로운 방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협상해 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과 주체성을 새롭게 협상해 가는 동안, 젊은 남성들은 그러한 자아 재구성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다(광범한 젠더의 비가시화 속에서). 이렇게 되면서 성평등 제도화와 자기계발 논리, 교육분야에서의 여성의 높은 진출이 고용수준, 일자리의 질, 임금 등의 거시지표상 성별 격차를 가려버림으로써 더 이상 여성이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고(정인경, 2016: 201-205),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킨 민주정부 통치 기간 중에 여성정책이나 여러 성평등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역사적 우연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를 여성계에 대한 혐오로

연결지었다(류진희, 2015: 42).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남성성 위기를 여성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으로 바꾸어 경험하고 있다. 구조화된 젠더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개념없는 '김치녀' 나 '페미니스트' 에 대한 여성혐오적 공격으로 방향 잃은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청년 대중 남성의 일반적 감성이다.

한국사회의 청년 세대에 접근할 때는 이미 변화해 버린 정상가족의 표준이나 그에 근거한 생애주기의 표준을 전제하기보다는, 포스트모던 신자유주의의 변화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과 생애를 구성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 주체들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남녀 청년들에게 근대적 핵가족은 여전히 정상 혹은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점점 더 상징적이고 규범적인 것이 되고 있다. 개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위치에 따라 그 규범성과 나름의 협상을 시도하며 삶의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젠더와 계급은 그러한 협상의 과정에 작동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세대 담론 안에 젠더의 작동을 가시화시키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3)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와 소비사회화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자라난 세대

이렇게 된 데는 한국사회가 소비사회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 채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는 대략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두드러지게 소비사회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화 및 노동자대투쟁과 때마침 뒤이은 3저 호황으로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소비와 문화적 향유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백욱인, 2008).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받은 집단이 '청년' 과 '여성' 이었다. 당시 사용된 '신세대' [10], '오렌지족' [11], '서태지 세대' [12], 'X세대' 등의 단어들은 1990년대 중후반기 소비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청년층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세대' 의 이름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준다(주창윤, 2003). 1990년대의 광고들은 당시 신세대 여성들이 가졌던 주체적 삶에 대한 열망과 자기표현의 욕구를 상품 소비와 연결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을 취했다. 여성의 소비는 개성의 표출, 당당한 자기주장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신세대 여성' , '신세대 주부' , '미시족' , '커리어우먼' 등의 용어가 새로운 여성 주체상으로 등장했으며, 고학력 여성들의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소비는 자유와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장려되었다(엄혜진, 2015: 65).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양극화되었으며, 중산층적 삶의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상인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은

10) 197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중후반기의 경제적 풍요를 통해 소비문화와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세대를 일컫는 1990년대 단어다(주은우, 2010).

11) 유행을 선도하는 부유층 소비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른 '압구정동'의 문화적 기표와 결합하여, 과시적인 과소비를 중심으로 신세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렌지족'은 '신세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여겨졌다.

12) 주창윤은 '서태지 세대'라는 말로 1990년대의 젊은 세대를 정리하면서, 이들의 소비는 저급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 개인의 멋과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한 탈권위주의적, 자유주의적 세대라고 보았다.

소비적 생활양식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았다. 삶의 많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화, 상품화되는 가운데 불어닥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부유층과 중산층, 일반인의 소비 행태에서 간극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내의 경기 회복은 주로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주은우, 2010).

소비사회의 구조가 지속되는 한편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버린 바로 이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의 삶을 극도로 옥죄는 조건이 되었다. 1990년대에 소비와 문화 향유의 총아로 각광받았던 '신세대', 즉 1970년대 생들이 30대 중 · 초반을 넘어서며 '청년'의 범위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시기에,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지금의 20-30대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양극화된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집단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적응 전략을 모색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스펙을 쌓고 경력을 관리하여 전문직으로 들어가거나, 비정규직 맞벌이를 통해 빈곤층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 ·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났고, 이것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문제시된 유례없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배은경, 2009; 엄혜진, 2015). 더 젊은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재빠르게 체화하여, 가족이나 남성을 매개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보다는 사회와 직접 접속하면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하려 하지만(민가영, 2009), 시장의 힘에 오롯이 개인으로서 맞서려 하는 저소득층 십대 소녀들의 시도가 이들을 더욱더 종속된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슬픈 현실도 관찰되고 있다(김연주, 2011).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0%가 이미 넘은 상황에서, 고학력의 젊은 성인 여성들이 펼치는 라이프 스타일 개척은 눈에 띄게 다양하다. "대학시절 여성학 과목을 수강했거나 수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고,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취업차별을 겪으며 분노하기도 하지만 과거 어떤 세대의 여성들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세대"(조주현, 2013: 33)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폭력적 차별적 현실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쨌든 삶을 개척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그런데 왜 2015년을 기점으로 이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여성혐오의 피해자로 위치지우며, 때로는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고, 자신들을 억누르는 여성혐오적 담론을 패러디하면서 되돌려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을까?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위치지우면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 개혁까지 요구하는 다양한 '페미니스트'들로 거듭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4)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의 청년 세대

현재의 청년 세대는 근대적 젠더관계의 재편을 강요받는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에 더하여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더 있는데, 바로 현재의 청년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라는 것이다. 기성 세대는 오프라인 생활세계 속에 태어나 생애의 어느 시점에 등장한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적응’ 하고 학습함으로써 온라인 세계와 사이버 공간에 진입한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현재의 청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온-오프라인 세계가 상호참조하면서 구성된 생활 세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기성세대가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태어나 온-오프라인의 세계가 공존하는 현재의 생활세계로 이주해 왔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이민자 digital immigrants’ 라면, 현재의 청년 세대는 말 그대로 현재의 디지털화된 세계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니 말 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s’ 들인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여러모로 이전 세대와 다르다(Marc Prensky, 2001). 디지털 이민자들이 책읽기를 통해 문자성(literary)을 익힌 후 디지털 세계로 들어왔다면, 디지털 네이티브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게임, 이메일, 인터넷, 텍스팅,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언어와 소통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다. 즉, 이전 세대에게는 새로운 언어(new language)인 디지털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국어(native language)와 같으며, 이는 이들의 사유와 언어, 학습의 패턴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한다. 가령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사유방식보다는 병렬적이고, 다발적이고, 빠르고, 분산적이며, 무작위적인 듯한 사유방식을 선호한다. 글자보다는 그림을 보고 싶어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며, 진지한 것보다는 게임을 선호하며, 네트워크 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이제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현실세계가 단순히 반영되었거나 혹은 현실세계와 엄격히 구별된 비물질적 세계로 이해될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현재의 20-30대들에게 있어 디지털 공간과 삶의 세계 사이를 가로지르고 혼종하는 경험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청년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더이상 현실세계에 ‘이미’ 완성된 주체가 접속하고 활동하는 현실 ‘바깥’ 이 아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각종 SNS를 비롯한 1인 미디어 (e.g. youtube, africa tv, blog)가 일상화된 세계의 원주민들에게 디지털성은 그 자체로 자아 구성의 내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들의 주체성은 디지털의 시공간적 경험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SNS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가 청년세대의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현실’ 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니터 뒤의 찌질이들’ 이 배설하는 왜곡된 감정이나 무차별적 공격성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그것과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세대인 것이다. 2000년대 중반 ‘된장녀’, ‘개똥녀’ 로 시작된 여성에 대한 공격이 ‘개념녀’ 코스프레를 통해 피할 수도 없는 ‘김치녀’ 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하고, ‘맘충’ 과 같이 여성이거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공격과 혐오의 덫이 디지털

세계에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길을 찾기 어려워진다. 2015년 이후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2016년 촛불 현장에서의 '페미존' 과 같은 일련의 실천들이 청년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이 스스로의 존재와 삶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주체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한국사회 싸이버 젠더갈등의 역사와 '여성혐오'라는 문제틀의 등장

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기대와 여성에 대한 공격의 시작

— PC 통신과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 민주적 공론장의 대체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싸이버 세상은, 1990년대 말 〈월장〉 사태, 2000년대 초 군가산점 논란 등을 거치면서 여성 유저들에 대한 엄청난 공격의 장으로 전락.

— "꼴페미" 등의 오명이 등장한 시기. '페미니스트' '이화여대' '여성부' 등이 주 공격 대상이었음. (조리퐁 금지 등, 현재 통용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러 마타도어의 원형들은 이미 이때 등장)

— 그러나 나중에는 유저의 성별이 '여성' 임이 밝혀지는 순간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현상이 심해짐. 여성 일반에 대한 공격

— 당시 싸이버 공격에 가담하는 남성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일반적 호칭은 "마초" 였음

* 2000년대 : 싸이버 세상의 남녀 격리

— 인터넷 카페, 포탈 게시판, 다양한 싸이트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은 본인이 주로 접속하고 활동하는 싸이트를 가지고 싸이버 세계에서 살아가기 시작 ('본진') '남초' 싸이트 vs '여초' 싸이트

— 여성 유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여초' 싸이트 안으로 숨어들어 가게 됨. '여초' 커뮤니티는 높은 진입장벽을 세웠고 (여성임을 입증해야 글을 읽고 게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가입 절차를 거치는 등),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라는 가정 하에서 (남성들의 공격이나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쌍코〉, 〈레몬테라스〉, 〈소울드레서〉, 〈여성시대〉, 〈82쿡닷컴〉 =〉 2008년 촛불

— 반대로 대개 개방형 커뮤니티인 이른바 '남초' 싸이트에서는 여성 유저들이 자신이 여성임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 〈오유〉 〈디시인사이드〉 등. 그러므로 이런 싸이트들에서는 여성비하나 노골적인 여성의 성적 대상화, 젠더 불평등 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음/드러날 수 없었음

* 2010년대 전반 : '나꼼수 비키니'와 <일베>, 그리고...

— 2012년 '나꼼수 비키니' 사태 – 싸이버 세계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여초' 싸이트 밖으로 끓어넘친 사건 (2008년 미국산쇠고기 사태 이후 이미 정치적 주체로서 커밍아웃한 뷰티삼국 카페 유저들은 '불판' 을 세우고 통일된 의견을 내기도 함)

— 문제적 싸이트 〈일베〉의 등장 – 디씨인사이드의 일부 갤러리 유저들이 분화되어 나와 만들어졌다는 이 싸이트는 노골적인 소수자 비하, 약자 비하의 정서를 보여주며 온갖 패륜적 표현들을 구사하는, 이른바 "우익 청년들의 놀이터"였음.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이면서 현실 사회세력으로 관심을 모았음. 국정원 등의 여론조작에 연루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 〈일베〉의 영향력은 일베 안에 갇혀 있지 않았음. 지속적으로 혐오적 정서를 담은 신조어, 이미지 등을 만들고 널리 유포. 일베의 헤비 유저건 아니건 그것을 접한 일반 사용자들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들) 그것을 "재미"와 다른 세대와의 구별짓기를 위해 별다른 비판적 의식 없이 사용하게 됨. 온라인상의 '야동' 문화와 일베 발 성적 대상화, 여성비하에 시달리면서 특히 젊은 여성 디지털 네이티브들 사이에서 엄청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

* 2015년 : 메갈리아!

— 2015년 여름, 〈메르스 갤러리〉 가 출현. '메르스' 라는 초유의 감염병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 (전형적인 남초 싸이트였던) 디시인사이드의 어느 한 구석에서 돌연 '여성들의 목소리' 가 돌출해 나온 것임.

— 前史 : 2015년 1월 페미니스트가 싫어 IS로 갔다는 '김군 사건' , 2월 무뇌아적 페미니즘은 IS 보다 더 위험하다는 한 영화평론가의 칼럼, 트위터 "나는 페미니스트다 해쉬태그 운동" , 4월 불거진 장동민과 '옹달샘' 의 팟캐스트 여성비하 발언 사건("맞다 개보년", "설치고 떠들고 생각하는 여자 싫다 ")… 등등

— "꼴페미" 이후 '페미니스트' 라는 호칭이 갖는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일상에선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친한 친구들에게만 페미니스트로 "커밍아웃" 한다는 용어법까지 등장할 정도로 젠더불평등 문제에 숨죽이고 살던 젊은 여성들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 (트위터 등의 효과. '트페미')

— 주된 전략은 '미러링' . 어원을 알 수 없으나, 남자들이 하는 짓을 거울로 비춰 그대로 '반사' 해 준다는 일상적 유행어에서 나온 용어로 짐작됨. 실제 내용은 여성들에게 이미 가해지던 조롱과 공격을 성별만 뒤집은 형태로 패러디하는 방식. 비하의 주체와 대상의 성별을 바꾸지만 그 비하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디씨적 유머코드의 변주.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소구 (+ '사이다')

— 메르스갤러리의 여성 유저들은 스스로를 "메갈리안"이라 부르면서, 독립적인

싸이트를 구축하기에 이른다(메르스 갤러리 +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이후, 메갈리아 싸이트에는 남성에 대한 조롱이나 유머글, 성차별에 대한 의견과 성토 등 여러 가지 양상의 글이 올라오게 됨. 수많은 유저들이 성폭행이나 남성으로부터의 폭력, 여성차별을 당한 경험담들을 공유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 가 형성됨.
— 그러면서 이 모든 성차별과 성폭력의 원인이 한국 남성들이 가진 '여성혐오' 정서에 있다는 논리구성이 유행처럼 퍼져 나가게 된다. 즉, "여성혐오"는 메르스갤러리, 메갈리안에 의해, 〈일베〉가 생산하고 〈 디씨〉, 〈오유〉 등 많은 남초 싸이트 들에서 널리 사용되던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성적 대상화, 언어적 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한국 사회에 대중적 언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여성상: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자"

6) '청년 여성'의 주체성과 새로운 페미니즘들의 부상

1990년대 초중반, 87년 민주화 이후 페미니즘이 부상했고, 영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여성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의 여성운동과 '성정치' 를 벌였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상당히 오랫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 페미니즘' 은 일종의 기억이나 가능성, 잠재력 같은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2015년 새로운 페미니즘 붐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최근 출간된 〈페미니스트 모먼트〉, 〈대한민국넷페미사〉는 200년대 말-2010년대 들어 다시 부상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의 페미니즘을 읽어낸다.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현재 '리부트된 페미니즘' 의 언니 격이라고 설명된 '영 페미니스트' 들이 자신의 페미니스트로서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단행본이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 페미니즘의 문화적 · 정치적 담론환경과 성격변화에 대한 연구물로 읽을 수 있다. 1980년대에 '진보적 여성운동' 을 기치로 등장한 윗 세대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1990년대의 '영 페미니스트' 들은 수평적인 조직, 맹렬한 저항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게릴라 문화운동을 펼쳤다. 그녀들은 '쩍벌남' 이란 단어를 만들고, 여성 '가족' 부를 반대했으며, 비혼 운동을 시작했다.

〈대한민국넷페미사〉는 이런 움직임이 수면 아래 잠수해 있다가, 다시 디지털 세계를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계기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 등장한 '배운 여자' 들을 읽어낸다. 당시에 '삼국카페' 로 불리는 소울드레서, 쌍코, 화장빨 카페 회원들은 촛불 집회에 앞장서고 십시일반 돈을 모금해 진보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 10대 시절 2002년 월드컵을 거치고 미군 장갑차 사건 때는 '촛불 소녀' 로 나섰던 이들이 2004년 노무현 탄핵을 거쳐 2008년 다시 '배운 여자' 라는 이름으로 광장에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로 정체화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러다가 2014년 경,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젠더 의제가 다시 공유되고 공론화되는 움직임이 등장사기 시작한다(‘트페미’). 한진중공업 투쟁, 최고은 작가의 죽음, 나꼼수 비키니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특히 한진중공업 투쟁에서 배우 김여진이 만삭의 몸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만난 순간은 SNS를 통해 소통하고 연대하며 조직된 새로운 시민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흐름이 ‘IS에 간 김군’ 사건,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김태훈의 칼럼을 거쳐 ‘메갈리아 사태’로 이어졌고, 이후 엄청나게 폭발적인 페미니즘의 에너지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메갈리아를 경유한 여성들은 현재 페미니즘 정당 창당을 모색하는 ‘페미당당’, 부산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모임 ‘부산페미네트워크’, 페미니스트 그룹 ‘불꽃페미액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을 하는 ‘디지털포르노아웃’ 등을 통해 이른바 ‘포스트 메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넷페미사〉의 정리이다.

* 2015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 ‘총대’, 그리고 ‘(유사)불판’, 각 지역에 만들어진 ‘추모 공간’
— 서울 총대의 인터뷰
“ 나는 메갈리아가 뭔지 몰랐다. 거기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자꾸 와서 메갈 아니냐고 물어서, 친구들과 함께 찾아본 정도 .. 그들은 내가 메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혐오하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요〉를 들이대면 .”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될 수 없고, 기억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

* 2016년 겨울의 탄핵 정국과 촛불시위
가. 박근혜는 ‘여성’ 대통령인가
나. DJ DOC의 〈수취인분명〉 소동 – “미스박”, “빽차 뽑았다 데리러 간다”, “찔러대서 빵빵”에 대한 감각의 세대 차 + 〈한국디바협회〉
다. “페미존” – 광장은 ‘우리’의 것. ‘우리’에는 차이를 가진 존재들이 포함된다. 주권자로서의 ‘우리’의 구성.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 조개를 줍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구해내서 함께 도망치는 사람” – “나는 2008년 ‘촛불소녀’였다”, 내가 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는데 성폭력 같은 것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다.

7) 결론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청년 여성들이 ‘집단지성’ 을 통해 ‘집합적 실천’ , ‘평등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주체화’ 의 가능성을 보여줌

=〉 다른 한편, 디지털세계의 부정적 특성도 나타나고 있음. (SNS 셀레브리티의 등장, 잇슈의 휘발성, 안정적인 조직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

=〉 온라인/디지털 세계/SNS 에서의 투쟁과 갈등은, 어떻게 그 바깥의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의 협상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참고문헌

김수아(2012),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193-217쪽.

김수아 · 이예슬(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67-108쪽.

김수진(2013), “아이디 주체(ID Subject)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1-38쪽.

김수진 · 엄혜진 · 윤보라 외(2012), “농담과 비키니, 나꼼수 사건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219-253쪽.

김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폐쇄적인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39-274쪽.

김예란(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제18권 3호, 146-191쪽.

김수진 · 김효실 · 정민우(2010),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2권, 90-110쪽.

김학준(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한나(2011), “20-30대 여성의 비혼 경험과 생애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김혜경 · 이순미(2012), “ ‘개인화’ 와 ‘위험’ :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 의 불확실성과 여성내부의 계층화”,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35-72쪽.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권 1호, 179-212쪽.

노미선(2008),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모현주(2007),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민가영(2009),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따른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5권 2호, 5-35쪽.

박권일(2014),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넷우익이라는 ‘보편 증상”,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박권일 · 김민하 · 김진호 외 지음, 서울: 자음과 모음, 15-62쪽.

박기남(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제27권 1호, 1-39쪽.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39-82쪽.
손희정(2015), "혐오의 시대-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호, 12-42쪽.
심경미(2002), "'비혼(非婚)' 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안상수 · 김인순 · 이정현 · 윤보라(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Ⅱ):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엄기호(2014),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젠더와 사회』, (사)한국여성연구소 엮음, 파주: 동녘, 363-390쪽.
엄혜진(2015),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오자영(2007), "30대 기혼 여성의 팬덤과 나이의 문화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우석훈 · 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미디어.
윤보라(2011), "온라인 외모관리 커뮤니티와 20-30대 여성들의 정치주체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윤보라(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57호, 33-56쪽.
이동연(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제37호, 135-153쪽.
이명호(2011), "남성, 남성성, 페미니스트 이론",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엮음, 파주: 문학동네, 43-65쪽.
이수정(2010),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페미니즘연구』, 제10권 1호, 335-349쪽.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 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제39권 6호, 87-118쪽.
전상진 · 정주훈(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 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권 6호, 261-285쪽.
전희경(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41-79쪽.
조주현(2013), "실천이론에서 본 페미니스트 인식론: 여성학적 지식생산의 재검토", 『여성학연구』, 제23권 2호, 7-42쪽.

홍찬숙(2013), “개인화와 ‘젠더 사회’ : 개인화 시대의 사회불평등 양상”, 『한국사회학』, 제47권 1호, 225-276쪽.

홍찬숙(2015), “개인화의 양면성과 두 가지 경로: 청년기 거주지 분리의 남-북 유럽 차이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제18권, 255-285쪽.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의 변화, 1995-2015

김영미 / 연세대 사회학과

1. 문제제기

과연 담론의 폭발이라 할 만 하다. 많은 청년세대 담론들은 청년실업, 혼밥, 고시생, 자기개발,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프리타, 만혼, 비혼, 저출산 등을 키워드로 자조적이거나 냉소적인 톤을 숨기지 않은 채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묘사하며 미디어, SNS, 온라인 커뮤니티, 웹툰, 유튜브, 1인방송 등을 통해 공유되고 전파되고 있다. 청년세대에 관한 담론은 많은 경우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한다. 현재의 청년층을 명명하는 많은 담론들,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 등 역시 청년층의 내적 이질성 보다는 기성세대와의 집단 간 격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한국 청년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김영미, 2016).

김영미 (2016)는 계층화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첫세대인 현재의 청년세대(1980-90년대생)에서 첫째,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노동과 가족의 영역 모두에서 남녀 간 비대칭성이 매우 크며, 특히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 가족배경의 상반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셋째, 청년층에서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낙관주의가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글은 김영미(2016)의 연구의 연장선에서 특히 두 번째 특징으로 묘사되었던 청년세대 내 젠더 격차 문제를 좀 더 규명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그 실체가 실증된 바는 없으나 청년세대 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혐” 담론, 혹은 젠더 적대감의 물질적 뿌리를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의 추이와 그 이면의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동의 특징을 통해 읽어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거시적 조건을 논의하고 청년층 내 기회불평등을 낳는 균열의 원천으로서의 가족, 젠더, 분절 노동시장의 때로는 독립적인 때로는 상호작용하는 효과들에 대해 논의한다. 3장과 4장에서는 2016년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족형성기회 측면에서의 불평등의 양상을 가족배경, 성별, 노동시장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기술통계들을 통해 확인한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확인했던 세대 내 불평등의 실상, 특히 젠더 비대칭성의 퍼즐을 1995년-2015년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 임금격차의 역사적 추이라는 맥락 속에 놓고 풀어본다. 마지막 장에서의 토론으로 청년세대 내 젠더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관점

오늘날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미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높은 실업율, 높은 비전형적인 주변부 일자리 취업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의 글로벌화,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등 거시경제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최근 코호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산업사회들에서 50-70년대 이른바 황금의 30년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에 입직했던 세대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시장에 입직한 세대 간에는 기회구조의 세대 간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행운의 세대(lucky generation)과 불운의 세대(less lucky generation)의 순차적 반복이 세대 간 격차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Myles, 2002).

그러나 실제 구미 각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은 공적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 복지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Chauvel, 2010; Chauvel and Schroder, 2014).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의 위험을 유연하게 용납하되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재교육을 통해 삶의 질의 하락을 막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률, 평균임금 등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 복지정책이 사회보험 가입자들을 경기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나 가족주의적 복지국가(합쳐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으며 복지정책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중장년층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고용과 연동되어 있는 복지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의 격차도 매우 커 '내부자 세대(insider generation)' 와 '외부자 세대(outsider generation)' 간의 불평등이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기존 입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없는 미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여파를 시장을 통한 임금가격 조정 기제를 통해 상당히 해소하여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적은 편이나 각 세대 내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큰 편이다. 쇼블과 슈뢰더는(Chauvel and Schroder, 2014) 유럽국가들에 대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 사민주의적,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 비해 1975년 경기후퇴기의 시작 이전과 이후 세대 간 실업율 및 생애소득의 격차가 특별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세대 간 격차는 경기후퇴기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경제가 호황이거나 성장 중일 때는 세대 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소득이전 기제들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경제불황기 혹은 구조조정기에 발생하게 되는 세대 간 기회구조의 격차는 그러나 국가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이때 국가 역할의 핵심은 기존 노동시장 재직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국가가 노동시장 재직자들을 보호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고수할 경우 재직자들과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보수주의형 세대 갈등이 심각해지게 된다. 한국은 내부자 세대와 외부자 세대 간의 세대 간 불평등이 큰 보수주의적 복지국가형과는 달리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큰 미국형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에서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특징을 보면 제조업에서 경제적 자원 및 노조의 조직력이 집중된 대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축소, 유지되어 온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조직적 내부자(organizational insiders)를 보호하는 내부노동시장의 제도적 장치들이 형해화되어 왔으며(김영미, 한준, 2008; 약간 상이한 관점으로는 정이환, 2015), 둘째 사회보험 등 국가의 복지제도도 역사가 짧아 장기적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구조조정기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코호트가 있기 어렵고 모든 코호트가 경기불황의 여파를 받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된다.

2)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원천: 가족, 젠더, 분절노동시장

한국에서 청년층의 세대 내 기회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산업자본주의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이다. 60년대에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에 한국사회는 이례적으로 높은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보여왔다. 사회이동의 급격성(사회이동의 속도가 빠름)과 과격성(사회이동의 폭이 넓음)으로 특징지워지는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높은 사회적 개방성을 보이는 한편 사회계층이 미형성 혹은 지연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러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완료된 1980년대부터 다양한 직업적 분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등적 배분 및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적 호황기(1980-90년대)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대중소비가 확산되는 시기에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10대 사춘기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은 후 경제불황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60년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에서 7-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다양화된 직업적 성취에 따른 계층 분화가 본격화된 1980-90년대에 자녀를 출산한 현재의 중장년층(1950-1960년대 생)의 자녀 세대이기도 하다. 에릭슨, 골드소프 등 세대 간 사회이동 분석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사회는 초기에 산업화라는 대규모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구조적 이동의 증가로 세대 간 사회이동이 증가하다가 산업화가 성숙해질수록 구조적 이동(structural mobility)은 감소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의 개방성(exchange mobility)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른바 '지속적 유동성(constant flux)' 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Erikson et al., 1992). 한국의 산업화 경험 속에서 보자면 1980년대-1990년대는 급속한 사회이동이 완료되고 지속적 유동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단계의 초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청년층은 그 전의 어떤 세대 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들을 갖게 된 첫 세대이며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큰 격차와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사회화의 주요시기인 유소년기과 청소년기를 보낸 첫 세대이다. 현재 청년층이 갖고 있는 가족 배경의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이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들 보다는 훨씬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겪었으리라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코호트-특정적 조건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가족형성을 둘러싼 다양한 계기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기회구조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태지우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젠더이다. 주된 활동이 공간이 성적 중심의 능력주의적 평가와 공식 문화로서의 성평등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학교이며 상대적으로 성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왔던 청소년기를 보낸 남성과 여성은 청년기에서 매우 성별화된 사회적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교육 성취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어졌으나 경제적 성취에 있어서는 남녀 간 격차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인 한국사회에서 청년 여성들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이미 남성을 앞지를 정도로 교육 성취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한국교육의 우등생이 한국의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열등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모순적 상황의 이면에는 공고한 젠더구조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공적 생산의 영역과 사적 재생산의 영역을 구분하고 성별화하는 프레이밍으로서의 젠더 구조(Ridgeway, 2011)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젠더구조는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돌봄의 사회화도 충분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제도적 조건(Chang, 2004) 속에서 큰 변화없이 온존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돌봄의 젠더 불균형은 일하는 여성들의 과부하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애과정 상 결혼, 출산, 양육 등이 집중되어 있는 청년기는 여성들의 일-가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여성들의 비자발적, 반자발적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여성의 경력단절은 성별화된 규범이 강하여 일-가족 갈등이 심한 환경에 있을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성의 경제활동의 고조기에 많은 청년 여성은 경력단절, 경제활동의 중단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청년 내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기회불평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성취에서의 성별 기회불평등은 곧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연금 등 사회보험 접근권에서의 차이로 인한 은퇴 후 노년기에서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성별화된 프레임은 청년의 가족형성의 기회불평등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남성성이 생계부양자 역할로, 여성성이 모성으로 등치될 때 이로부터 이탈된 남성과 여성은 연애 및 결혼상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일자리구조 역시 청년 내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건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구조조정의 핵심은 수량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대규모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의 분사화, 외주화로 대기업의 고용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위계적 원하청 권력관계로 묶여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였다. 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 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첫직장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생애소득과 사회적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층 내에서 노동시장 위치에 따라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이라는 조건들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층 내 기회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 내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태, 특히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불평등의 복합성은 쉽게 예측되지 않으며 귀납적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배경, 젠더, 노동시장 위치 등을 주요 변수로 청년층 내 일과 가족형성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하되 학력, 학벌, 지역 등의 보조적 변수들도 사안에 따라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에서는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3.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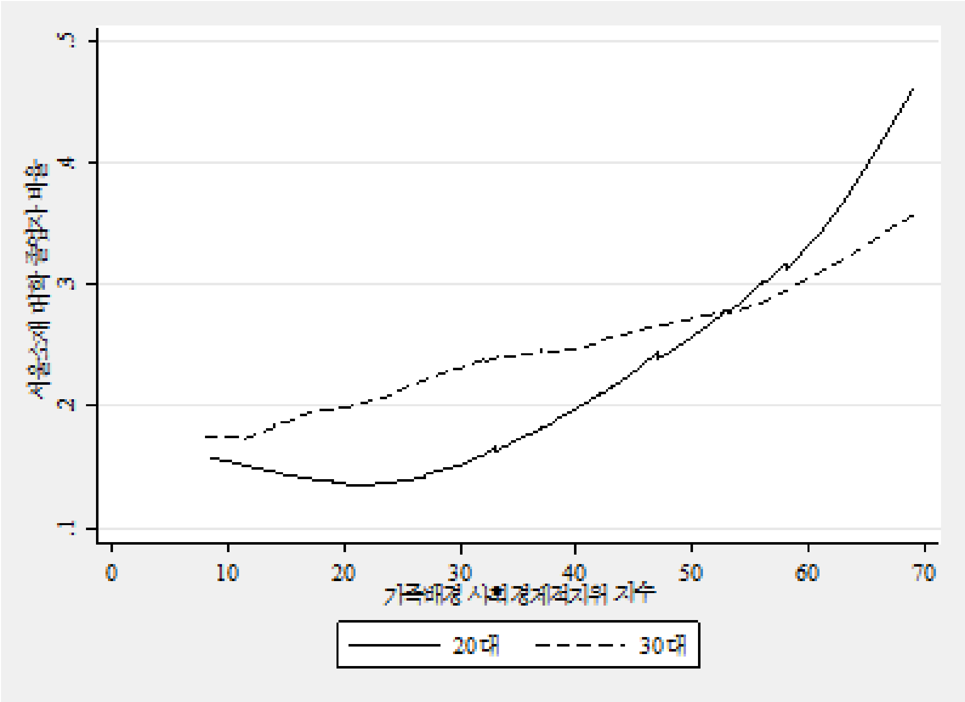
이 연구는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기회불평등조사는 2016년 전국 만17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비례할당(성/지역/연령)하여 표집 후 웹서베이(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한 자료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 및 표집된 청년들의 기술적 특징들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포괄하는 연령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유동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입직하여 독립적 생계부양을 시작하며 가족형성을 도모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로 정의하며, 이 연구에서 청년은 20세에서 39세로 정의한다(Lothaller, 2010 참고). 청년기의 상위한계를 39세로 정한 것은 최근 입직의 지연, 만혼, 만산 등 생애과정의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사례 3520명의 응답자 중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2%(1122명)이다.

현재의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이미 학력 성취 및 대학생활의 경험 등에서 상당히 계층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집단의 대학진학율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 여부 자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대학에 진학하느냐 여부 보다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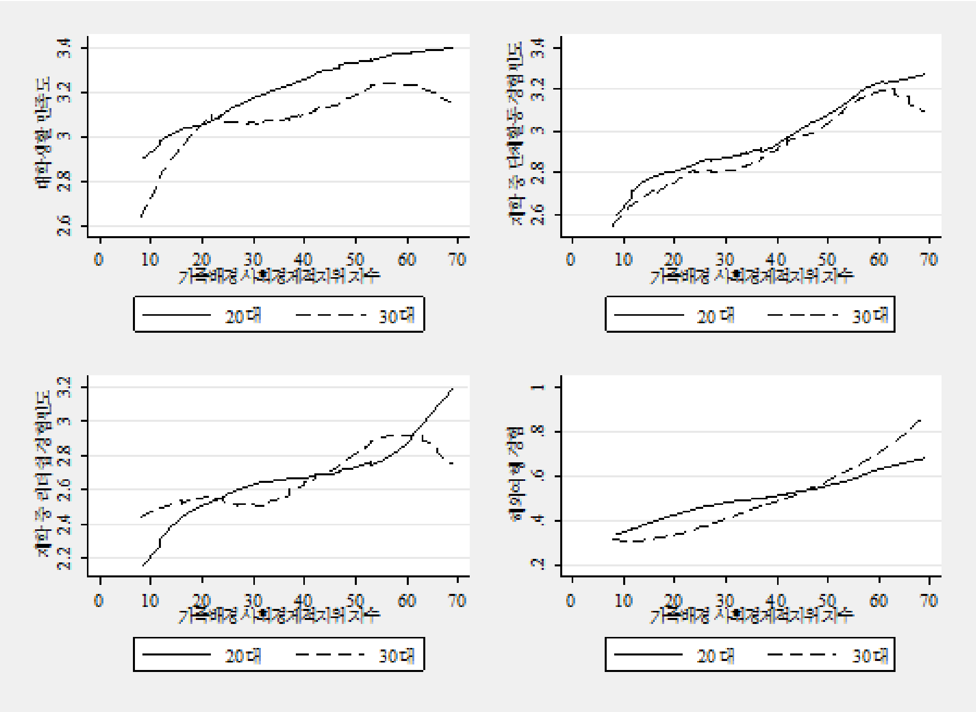
〈그림1〉은 응답자의 가족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과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curve) 평활 곡선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가 높은 가족에서 자란 응답자일수록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배경과 학벌의 연관성은 30대 보다 20대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배경은 청년들의 대학생활(2년제, 4년제 모두 포함)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낳고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년들이 더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30대보다 20대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동아리 등 단체활동의 경험 빈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청년이 단체활동을 더 활발하게

1)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보면 청년층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에 미치는 효과 보다는 학벌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대학진학률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간층, 상층이 각각 36%, 44%, 44%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위대학, 여기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비율을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의 경우 13%에 그치는 반면 중간층에서는 15%, 상층에서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 가족배경과 서울소재대학 졸업자비율



<그림2> 가족배경과 대학생활 경험의 격차

주1)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활에 만족하였는가하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단체활동빈도는 대학생활 중 교내외 동아리 등 단체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리더쉽 경험빈도는 대학생활 중 리더에 서 본 경험을 얼마나 하였는가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4) 해외경험은 20대에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없으면 0, 있으면 1, 더미변수로 측정된 것이다.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재학 중 리더의 위치에 서 본 리더쉽 경험 빈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20대에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을 경험해본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한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연구 자료에 기초해서 청년층 취업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0대 청년층 남성의 취업율은 63%이며 실업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비율은 20%,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 정도이다. 반면 청년층 여성의 취업율은 56%로 남성에 비해 7%p 낮고 구직자 비율은 21%,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3% 정도이다.

〈표1〉은 청년층 내에서 경제활동(취업)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logit analysis)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종속변수는 취업 여부이다. 모형1은 성별, 교육, 나이, 그리고 가족배경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교육, 나이는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의 대상인 가족 배경의 효과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의 질이 아닌 취업 여부만 놓고 볼 때 남성은 교육, 연령을 통제한다면 가족배경과 무관하게 대체로 취업상태에 있는 것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게서 발견된다. 여성들의 경우 출산, 육아가 집중되어 있는 청년기에 경력 단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가족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형2-모형4는 여성과 가족배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된 모형들이다. 모형2에서 추가로 투입된 성별과 기혼여부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기혼 여부가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기혼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과 기혼 여부의 상호작용을 통제했을 때 여성의 SES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모형1에서 관찰된 여성과 SES가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대부분은 SES가 높은 여성들의 기혼 확률이 낮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유추케 한다. 모형3은 기혼 효과와 유자녀 효과를 분리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유자녀가 취업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강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관찰된다. 모형3은 여성의 경우 연령, 교육 등이 동일할 때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고 유자녀인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취업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형4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 중에서는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기혼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성의 취업률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여전하나 자녀가 있는 여성들 중 SES가 높은 여성들은 SES가 낮은 여성들에 비해 다소간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성취지향적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일하는 여성이 친정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육아도움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 내 가족 배경 효과의 원인은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청년층 내 취업 결정 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여성	−0.993***	0.395	0.438	0.809*
	(0.382)	(0.428)	(0.434)	(0.478)
교육년수	0.093**	0.039	0.028	0.023
	(0.038)	(0.040)	(0.040)	(0.041)
나이	0.162***	0.196***	0.212***	0.213***
	(0.013)	(0.019)	(0.020)	(0.020)
가족배경(SES)	−0.007	−0.000	0.001	0.001
	(0.007)	(0.008)	(0.008)	(0.008)
여성* SES	0.016*	0.003	0.003	−0.006
	(0.009)	(0.010)	(0.010)	(0.011)
기혼		1.889***	1.545**	1.543**
		(0.426)	(0.654)	(0.654)
여성*기혼		−3.494***	−1.962***	−2.013***
		(0.460)	(0.747)	(0.747)
유자녀			0.405	0.404
			(0.820)	(0.821)
여성*유자녀			−2.077**	−2.986***
			(0.902)	(1.025)
여성*유자녀*SES				0.026*
				(0.014)
상수	−5.273***	−5.947***	−6.228***	−6.179***
	(0.703)	(0.792)	(0.803)	(0.802)
Pseudo−R squared	0.143	0.208	0.223	0.225
사례수	1,055	1,055	1,055	1,055

이상의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성별, 학력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의 경우에) 가족 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고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도, 불안정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분절적인 노동시장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의 질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초입에 있는, 따라서 인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경력의 격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단 내 소득 이질성이 작은 청년층 내에서도 노동시장 내 위치에 따른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지면제약 상 표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남성의 75%, 여성의 71%가 정규직으로 취업 중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 남성의 경우 16%, 여성의 경우 25%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10%p 가까이 높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91만원인데 반해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79만원으로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남성 소득의 6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22만원, 비정규직은 162만원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 소득의 73% 수준을 받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 정규직 소득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내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에 성별과 연령, 교육, 종사상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무수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잘 밝혀진 사실이다. 가족배경의 효과에 관심을 갖는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가족 배경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지를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표 2〉는 종속변수를 로그 월평균 소득으로 하는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칼럼은 청년층에서의 소득 결정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남성에 비해 약 17%가량 낮고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소득이 4%씩 오르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소득이 약 2%씩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으로 분류된 고용지위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이 약 35% 낮은 소득을, 자영업이 약 26%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효과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청년층의 경우에 가족 배경이 유의미하게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0점 차이가 날 때 소득은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의 범위가 0점에서 70점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성별, 교육, 연령, 고용지위를 모두 고려한 후에도 가족 배경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청년층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에서 분석되고 있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 대한 가족 배경의 직접적인 효과는 여러 고전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Corcoran, Jencks, and Olneck, 1976; Rumberger, 1983). 교육 혹은 테스트 점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부의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일수록 자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자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자리 탐색 기간을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Rumberger, 1983), 혹은 자녀에게 성취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는 문화적 전수가 일어나서 일 수도 있다(Corcoran et al., 1976). 그러나 이 연구에서처럼 청년층에서만 소득에 대한 가족 배경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는 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의 특성 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동질적이며 청년층에서야 비로소 가족 배경의 유의미한 분화 및 이질적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가족 배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율의 급증과 함께 청년층에서만 유일하게 가족

배경에 따른 대졸 집단 내 학벌 계층화가 진행되어 온 결과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년수만으로는 측정되지 않은 교육 효과의 차이가 가족 배경의 직접적 효과로 포착되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청년층 내에서 소득 혹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기회의 측면에서 가족 배경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청년층의 세대 내 불평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가족 배경의 직/간접적 효과의 원인은 추후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월평균소득 결정요인, 세대별.

	청년층(2-30대)	중장년층(4-50대)	노년층(60대 이상)
여성	-0.176***	-0.456***	-0.419***
	(0.036)	(0.036)	(0.080)
교육년수	0.041***	0.048***	0.090***
	(0.008)	(0.007)	(0.015)
나이	0.028***	-0.001	-0.041***
	(0.005)	(0.003)	(0.012)
기혼	0.104**	0.175***	-0.188**
	(0.040)	(0.062)	(0.083)
비정규직	-0.358***	-0.536***	-0.435***
	(0.045)	(0.046)	(0.085)
자영업	-0.261*	-0.066	-0.017
	(0.137)	(0.050)	(0.099)
SES	0.002**	-0.000	0.003
	(0.001)	(0.001)	(0.003)
상수	13.087***	14.290***	16.300***
	(0.175)	(0.200)	(0.781)
R squared	0.340	0.338	0.365
사례수	641	931	249

4. 청년층의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담론은 청년층 일반이 기성세대들과 비교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세대 간 기회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세대 간 혼인율, 출산율의 차이는 가족 형성 기회의 제약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청년층 내에서 '삼포' 현상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의 경험, 태도(혹은 선호) 등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상당한 내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족 배경과 학력, 노동시장 위치, 성별은 가족 형성 기회의 차이를 낳는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별은 청년집단

내 인구학적 행태의 차이를 낳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가족 배경, 노동시장 지위 등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동학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면의 제약 상 표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성별, 학력별로 연애 경험 및 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데이트 무경험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결혼, 출산 등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자들 중 한번도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5%, 여성의 경우 10%이다. 앞으로 결혼을 할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미혼자들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4%, 여성의 경우는 약간 더 높은 16% 정도이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0명이라고 답한 경우는 미혼 청년 남성들은 12%, 미혼 청년 여성들은 18%로 청년 여성들이 결혼 및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 중요한 것은 학력, 취업상태, 가족배경과 성별의 교호작용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3〉은 미혼 청년들의 데이트 경험, 결혼 기대 및 자녀 기대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칼럼은 데이트 경험 유무(1=데이트 경험 있음, 0=데이트 경험 없음)를 종속 변수로 분석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 학력, 취업상태, 그리고 가족배경 변수의 효과를 모두 성별 상호작용 효과와 함께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자들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미혼자들에 비해 데이트경험 확률이 두배 이상 높다. 나아가 가족배경이 높을수록 데이트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여성은 거의 모든 변수들이 데이트 확률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칼럼은 본인이 앞으로 결혼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1=결혼할 것으로 예상, 0=결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를 종속변수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2].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본인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육, 취업, 가족배경 변수들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결혼 기대가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로 결혼 기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취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취업이 결혼 기대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배경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일수록 결혼 기대가 높은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남성은 저학력, 미취업에 가족 배경이 취약할수록 결혼 기대가 낮은 반면 여성은 고학력, 취업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 기대가 낮은 것이다.

세 번째 칼럼은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1=출산할 것으로 예상,

2) 이 변수는 “나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진술에 1.매우 동의한다에서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한 것이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세 범주는 1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0으로 재분류하였다.

0=출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다[3]. 출산 기대에 있어서는 결혼 기대와는 달리 성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남녀 모두 자녀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취업, 가족 배경은 성별과 뚜렷하게 상반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취업은 남성의 자녀 기대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성의 자녀 기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부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3) 이 변수는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것이다. 1명 이상으로 답한 사람을 1, 0명으로 답한 사람을 0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극적으로 상반된 상호작용 효과는 사실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양육자라는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집단, 즉 남성의 경우 1인 남성부양자의 역할에서, 여성의 경우 전업양육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거나 거부하는 집단들이 친밀한 관계의 대상자를 찾거나 결혼, 출산에 대한 기대를 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 배경이 미혼 남녀의 친밀성의 기회에 상반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미혼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미온적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학력과 취업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나타나는 가족배경의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날 청년층의 계층화된 사회화 과정에서 상층 가족들은 하층 가족들에 비해 탈전통적이며 성취지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전수하였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상층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성별화된 양육방식을 탈피하여 아들, 딸 모두에게 성취지향적 동기부여를 해왔을 수 있다. 문제는 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성취지향적 태도와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성과 일치하지만 딸의 경우에는 여전히 양육자 역할로 제한되어 있는 여성성과 불일치하여 결혼, 자녀출산을 같이 할 친밀한 동반자를 찾거나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3> 청년층 내 연애, 결혼, 자녀 경험/기대 결정요인

	데이트경험	결혼기대	자녀기대
여성	0.771	4.136***	0.725
	(1.801)	(1.373)	(1.417)
연령	0.156***	0.086***	0.097***
	(0.024)	(0.019)	(0.019)
교육년수	0.134	0.125*	−0.030
	(0.089)	(0.065)	(0.070)
여성*교육년수	0.035	−0.192**	−0.003
	(0.117)	(0.091)	(0.092)
취업	1.135***	0.447	0.755**
	(0.349)	(0.309)	(0.333)

여성*취업	−0.181	−0.665*	−0.581
	(0.478)	(0.386)	(0.399)
SES	0.019**	0.019**	0.018*
	(0.009)	(0.009)	(0.010)
여성*SES	−0.021	−0.028**	−0.026**
	(0.014)	(0.013)	(0.013)
상수	−5.797***	−3.467***	−1.286
	(1.438)	(1.068)	(1.149)
사례수	1,055	1,055	1,055
R squared	0.192	0.0587	0.0805

5.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 추이, 1995-2015

청년세대의 특성을 포착한 여러 신조어들 중 가장 반향이 컸던 단어는 아마도 "삼포세대"일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삼포"는 무자비하게 증가한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생애과정에서 친밀성과 섹슈얼리티가 삶을 규정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사랑, 애정, 열정, 헌신, 신뢰, 인정과 같은 인간 상호작용의 긍정적 정동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호소를 담고 있다. 서글픈 만큼 반향이 컸다. 그러나 "삼포"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결혼지연, 비혼, 출산지연 등의 인구행동적 대응을 표현한 것이라면, "삼포세대"라는 단어는 현실을 잘못 읽고 있다. 삼포 현상은 모든 청년들에게서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기 보다는 계급과 젠더의 균열선을 따라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앞선 장은 청년 세대 내에서도 삼포가 저학력, 저소득, 낮은 가족배경의 남성들에게, 고학력, 고소득, 높은 가족배경의 여성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젠더비대칭성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인구학적 변동이 밀접하게 연동된 과정이라는 증거는 2000년대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계급적 과정이 지배하는 그림을 보여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남녀 모두 안정적인 핵가족관계를 누릴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남녀 모두 만혼, 비혼, 이혼, 혼외자출산 가능성이 급증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McLanahan, 2000). 저학력남성들이 결혼 뿐만 아니라 결혼 밖 친밀성 관계조차 만들어가지 못하고 고학력여성들이 결혼을 보이코트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맥락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1980년대 이후 남녀임금격차가 줄어온 과정을 분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김영미(2009)는 특히 1997 금융위기 이후 남녀임금격차 축소 과정은 여성의 성취의 결과라기 보다는 남성 내 양극화가 급진전된 결과임을 보여주면서,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지배적 고용질서가 확산되는 과정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훨씬 빠르게 진행된 이른바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변동"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이러한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변화는 과거 내부노동시장하에서 연공급 관행에 의해 외부노동시장에서 상응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상대적 이득을 누릴 수 있었던 비숙련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조직의 보호로부터 빠르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남성 저숙련 근로자들이 유사한 조건의 여성 근로자들보다 내부노동시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리라 가정한다면, 비숙련 남성근로자들이 이러한 고용체제의 변화에 상대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김영미, 2009: 211)."

그 결과 남녀임금격차는 소득 하층,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당시 논문에서 관찰은 2004년에서 끝났다. 관찰을 10년 더 연장했을 때에도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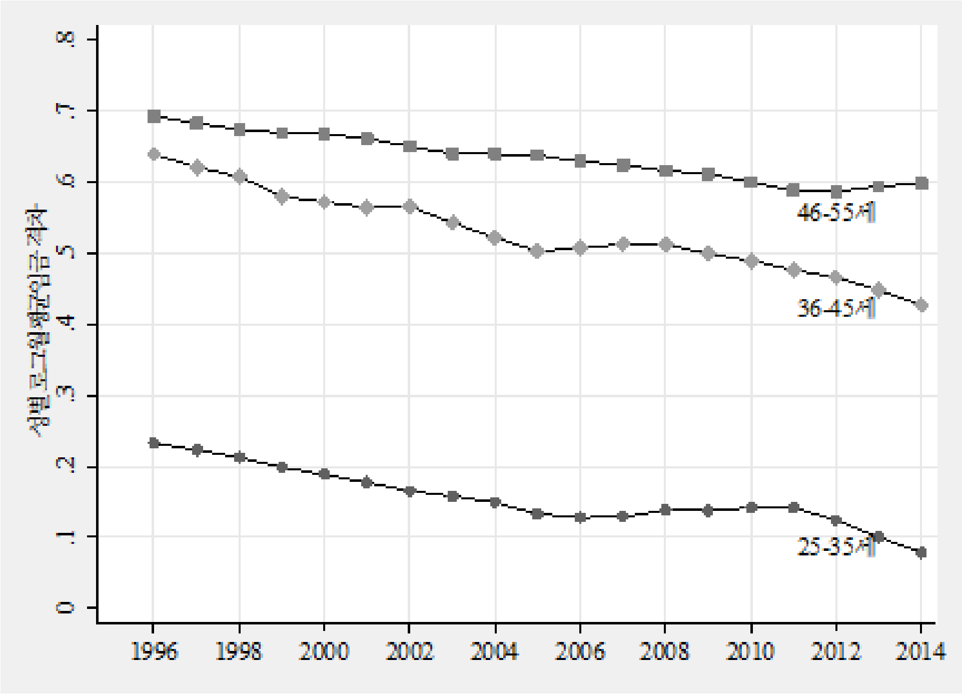
〈그림3〉은 청년(25세-35세), 중년(36-45세), 장년(46세-55세) 연령집단별 성별임금격차의 추이 (1996년-2014년)를 보여준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로그월평균임금-여성 로그월평균임금이며 대략 여성이 남성에 비해 (1-격차)*100% 만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1996년 이후 세 집단에서 모두 성별임금격차가 매우 완만하게 감소되는 추이를 볼 수 있다. 물론 이 그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2014년 기준 25세-35세에는 0.1 정도인 성별 임금격차가 36-45세에는 4배 가량 증가한 0.4로, 46-55세에는 무려 6배 가량 증가한 0.6으로 커진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설명을 요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는 청년집단으로 관심을 집중하면 상황은 좀 나아 보인다. 1996년 당시 청년 노동시장 내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는 0.22에 달했으나 2014년 청년들 사이에서 임금격차는 0.1 정도로 줄어들었으니 이 그림만으로 보자면 적어도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다른 세대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거나 곧 사라지게 되리라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청년세대 내 계층 문제를 고려하자마자 사라진다.

청년층을 고학력집단(4년제대졸 이상)과 저학력집단(고졸 이하, 2년제대졸자는 제외)으로 구분해 보면 청년층에서 고졸집단에서의 성별임금격차가 1996년 0.48에서 2014년 -0.02로 가장 극적인 축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졸집단에서는 지난 20년간 큰 변화없이 0.1과 0.2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다. 단순 회귀분석으로 추산해보면, 고졸집단에서는 남녀임금격차가 매년 0.024 포인트씩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졸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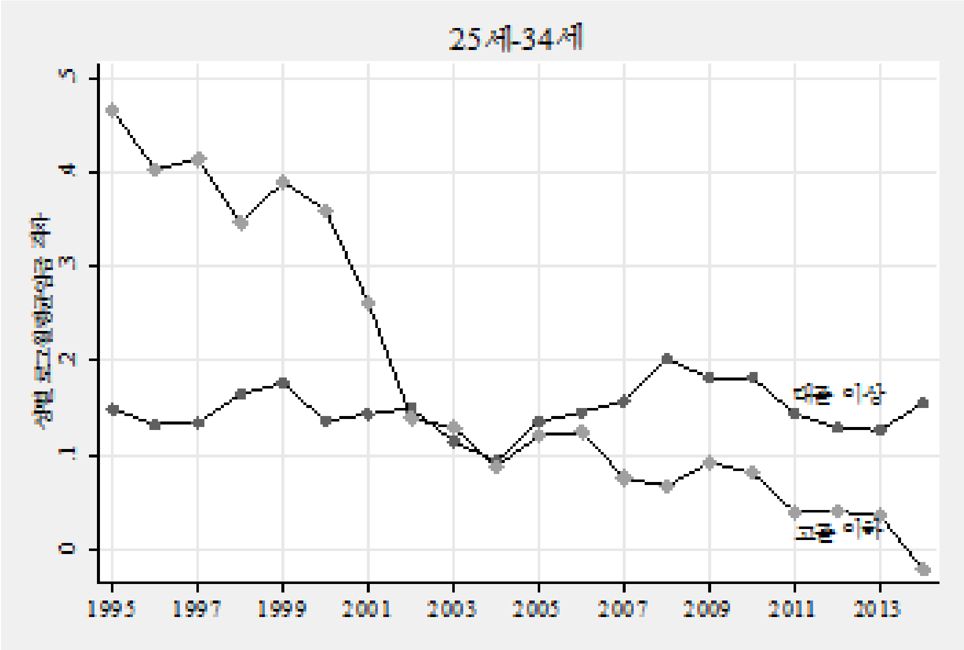
<그림3> 연령집단별 성별임금격차의 추이, 1996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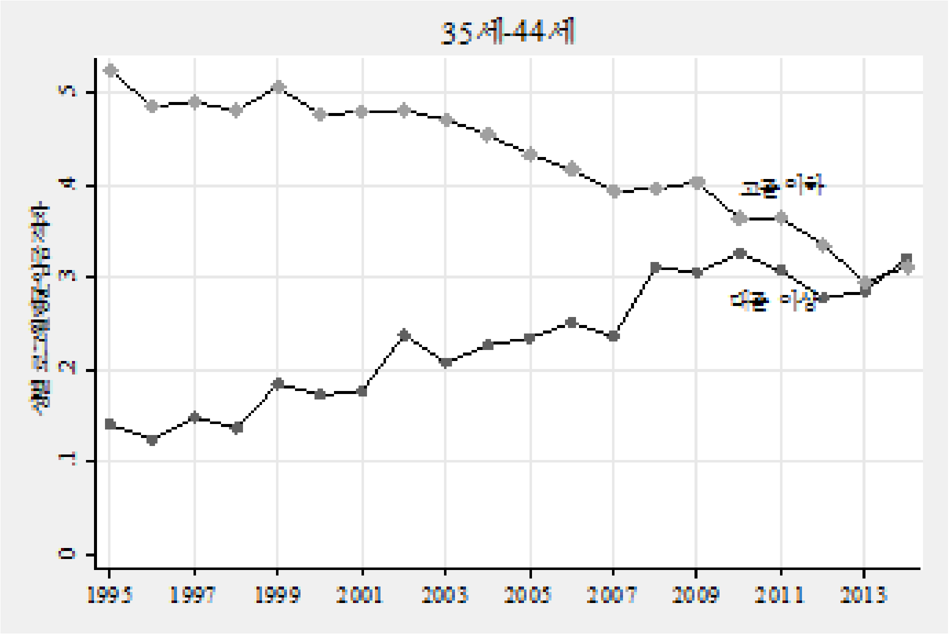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2014.
모집단: 5인 이상 사업체 근무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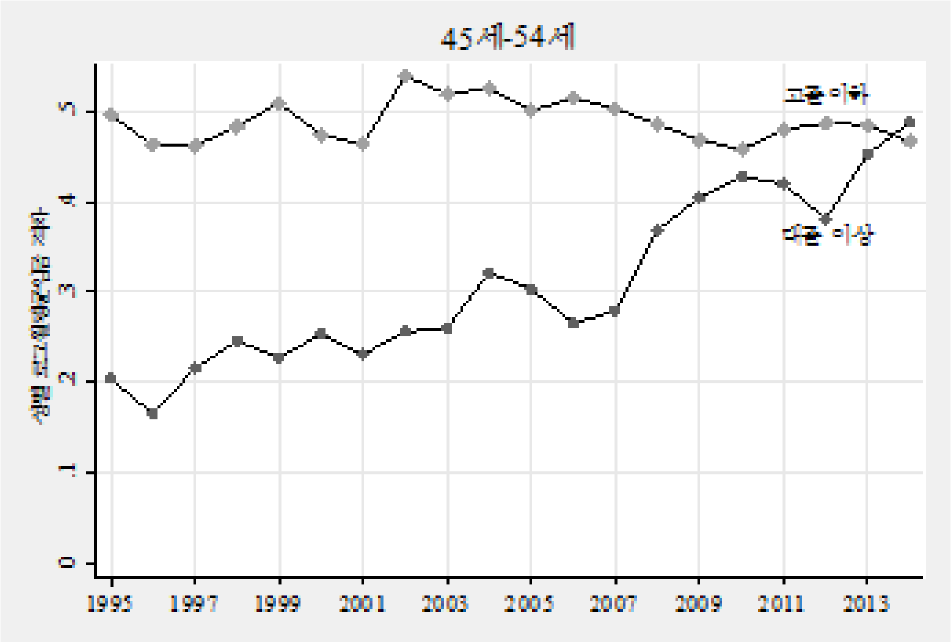


이 추이는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가설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첫째, 중년층(36세-45세) 저학력집단에서 남녀임금격차의 축소가 훨씬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장년층(46세-55세) 저학력집단에서는 남녀임금격차가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변화로

<그림4> 연령집단별, 학력별 성별임금격차의 추이, 1996년-2014년







말미암아 노동계급 남성들의 물질적 입지가 파괴되는 과정은 신규 입직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 왔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 상층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젠더에 기반한 배제와 차별, 경제적 기회 박탈은 청년층 내에서조차도 여전히 공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층 고학력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임금 차별은 최근 한 연구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있다. 김창환(2017)은 GOMS 자료를 이용해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지 1년 미만인 남녀근로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22% 정도 임금이 낮은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해보면 남녀임금격차는 0이라고 한다. 22%의 임금격차의 2/3는 군복무와 연령의 차이라고 하니 한국사회는 청년남성들을 무급으로 국방에 동원하는 대가를 여성들에게 물리는 방식으로 징병제를 운영해온 셈이다. 징병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등은 여전히 여성에게 적대적인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를 유지시키며 개인의 역량이 아닌 성별에 기초한 차별적 평가, 보상이 일어나게 하는 문화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생생한 사례들은 민우회, 2016)

6. 결론을 대신한 단상(斷想)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어났던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변동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이 저학력 청년남성과 고학력 청년여성이라고 한다면 물론 지나치게 거친 비평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이 노동 영역 뿐만 아니라 가족/친밀성 영역에서 기존 세대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는 집단인 것은 맞는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집단의 공통의 이해에 주목해서 두 집단의 연대의 가능성을 그린 소설이 있다는 점이다. 능력주의가 사회불평등을 고착시킨 미래사회를 묘사한 “The Rise of the Meritocracy”라는 소설에서 사회학자이기도 한 저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부조리에 맞서 고학력의 엘리트여성과 노동계급남성들이 연대해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계급과 젠더질서가 온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직 시장의 가장 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만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분절만을 강화시킨 한국의 시장주의적 노동개혁의 부조리를 꿰뚫어 본다면 한번 상상해볼 만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층 사이에서 팽배해 있는 “여성혐오”라니!

부록 : 연구자료와 방법, 청년층의 내부구성

이 연구는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기회불평등조사사는 2016년 전국 만17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비례할당(성/지역/연령)하여 표집 후 웹서베이(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한 자료이다. 표집틀로 이용된 한국리서치의 MS(Master Sample Panel)은 전국적으로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분포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33만명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활용된 바 있다(통계청,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2009-2015).

청년층에 대한 정의 및 사례수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다시 정리하면 청년은 20세에서 39세이며, 전체 사례 3520명의 응답자 중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2%(1122명)이다. 모집단의 성/지역/연령 분포를 반영한 가중치가 제공되어 있으며 모든 분석 결과에 적용되었다.

청년기 기회 불평등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가족 배경이다. 청년들 중 상당 수는 이미 노동시장 입직을 마친 상태이며 본인의 노동시장 위치에 따른 계층 분류가 가능하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성취 및 가족형성, 사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계층은 본인의 가족 배경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홀링스헤드(Hollingshead, 1975)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ocio-Economic Status Index, 이하 SES)를 측정하였다[4]. 이 변수는 아버지가 생계부양자, 어머니가 가정주부였던 가구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와 교육수준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의 가중합, 맞벌이가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직업 점수와 교육 점수의 가중합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변수는 본인의 성취에 기반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성장기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 속에서 사회화되었으며 기회의 제약을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4) 홀링스헤드 SES지수는 부모의 교육점수과 직업점수의 가중합이며 가중치는 기존 회귀분석 계수를 바탕으로 홀링스헤드가 제시한 것이다. 먼저 대분류된 직업에 위계적 점수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표S1> 청년층(20세-39세)의 내부 구성

변수	전체 평균	남성 평균	여성 평균
여성	0.48		
고졸이하	0.15	0.14	0.15
전문대졸	0.35	0.36	0.33
대졸	0.40	0.38	0.42
대졸이상	0.10	0.11	0.09
취업자	0.60	0.63	0.56
취업자 중 정규직	0.73	0.75	0.71

비정규직	0.20	0.16	0.25
자영업	0.07	0.09	0.04
구직자	0.21	0.21	0.21
비경제활동	0.19	0.16	0.23
소득	242.96	269.56	211.03
기혼	0.38	0.33	0.43
가족 배경(SES Index)	37.92	37.88	37.96
하층	0.20	0.21	0.20
중간층	0.35	0.31	0.37
상층	0.45	0.48	0.43

〈표S1〉은 청년층의 내적 구성을 학력, 경제활동, 소득, 지역, 혼인상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전체의 48%가 여성으로 남성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지금의 2-30대는 성감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남녀 성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커졌던 1980년대-9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로, 이러한 청년층의 남초 현상은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인구학적 성비 불균형은 청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연애,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가족 형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학력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50%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히 고학력화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율은 60%이며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청년은 21%, 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은 19% 정도이다. 고용율에서의 남녀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남성은 63%가 취업 상태인데 반해 여성은 56%에 그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은 73%, 비정규직은 20% 정도이며 7%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취업자 내부 구성의 남녀 차이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일 정도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16%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청년층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3만원 정도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약 270만원 정도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11만원 정도로 남녀 간 격차가 있으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약 78%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의 여성 임금비율이 약 63%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에서의 젠더 격차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중 기혼자는 38%이다. 세부 연령집단으로 보면 20대(20-29세)에서의 기혼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며 성별 격차도 매우 커 20대 남성의 기혼율은 2%, 여성은 7% 정도이다. 30대(30-39세)의 기혼비율은 67% 정도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1976년에서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39세까지도 혼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격차 역시 큰 편으로 30대 여성의 경우 기혼비율은 74%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12%p가 낮은 62%에 그치고 있다.

홀링스헤드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는 청년층 전체 평균이 37.92 (표준편차 15.07)이며 남녀 간의 격차는 거의 없다.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평균 33.63(표준편차 13.48), 4-50대 중장년층은 33.88(표준편차 14.31)이며 10대 청소년층은 42.06(표준편차 14.76)으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SES 평균은 증가하고 표준편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SES 지수를 연속변수로 쓰기도 하고 하층, 중간층, 상층,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때 세 집단 범주화의 기준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세대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는 SES 절대값의 효과를 강조한 경우이며 후자는 각 세대 내 상대적 위치의 효과를 강조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비교를 위해서 전자의 분류방식을 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SES 값을 삼등분하여 세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따라서 SES 평균이 증가한 청년층에서는 하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문헌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 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사회과학논집』

김영미, 2015,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의 복합성: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의 차이",『경제와 사회』

김영미, 2009, "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 변화, 1982년-2004년",『경제와 사회』

김영미 · 한준, 2008,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한국사회학, 42(7), pp.111-145.

김창환, 2017, ""Gendered Labor Market Return to College Majors in South Korea", 제5회 한국불평등연구 심포지움 자료집. http://inequality.kr/2017-2/

김태기 · 남재량, 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노동경제논집』23(2): 81-106

정이환, 201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 2007". 한국사회학, 47(5), pp.209-240.

최율 ·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사회학, 49(5), pp.1-44

Beck, U.,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Vol. 13). Sage.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and Kurz, K. eds., 2006.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Chang, M. L. (2004). "Growing pains: cross-national variation in sex segregation in sixtee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1), 114-137.

Chauvel, Louis, and Martin Schroder. "Generational inequalities and welfare regimes." Social forces (2014): sot156.

Chauvel, Louis. "Comparing welfare regime changes: living standards and the unequal life chances of different birth cohort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23-36.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0.

Corcoran, M., Jencks, C., & Olneck, M. (1976).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earning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6(2), 430-435.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2.

Hollingshead, A. B. 1975. "Four 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Kim, Young-Mi, 2017, "Rethinking Double Jeopardy", Sociological Perspectives.

Lothaller, H., 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109-128). Springer Berlin Heidelberg.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pp.607-627.

Myles, J., 2002,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Elderly?",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G.Esping-Anderse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idgeway, Cecilia L. Framed by gender: How gender inequality persists in the modern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Rumberger, R. W. 1983.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 earnings, and wealth". Social Forces, 61(3), 755-773.

Tremmel, J., 2009.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젠더, 폭력과 차별, 혐오의 메커니즘 : 젠더폭력대응을 위한 법정책을 중심으로[1)]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본 원고는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제10호(2016년 하반기)에 실렸던 장다혜,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이 드러내는 '여성안심'대책의 빈 공간"과 2017년 10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발표된 '한국 성매매/디지털 성폭력 범의 현황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여성폭력'과 '여성혐오'가 동일한 의미로 시민사회에 통용된 계기는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명한 2-30대 여성들이 이를 "여성혐오범죄"로 명명하고 '강남역 10분 출구'라는 현실 공간에서 추모와 저항의 움직임이 실질화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 전체에 반향을 가져왔다. 현재에는 '여성혐오'라는 용어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성별불평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여성 폭력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이 법제화에 집중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각각 폭력유형을 의미하는 용어로 분산되어 사용되어 왔다. 1994년 제정된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한국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법정책이 각각의 유형에 집중되게 하는 주요한 축이 되었다. 한국사회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의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 및 성희롱"이라는 각각 범죄유형을 열거했으며, 이러한 태도는 대체입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유지되고 있다.[2] 이러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정책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한국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주요 범죄로 구성하면서 '여성폭력' 보다는 '국민안전' 이라는 개념이 우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이후 등장한 여성들의 목소리, 다시 말해 '여성혐오범죄' 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기존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법정책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진단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분리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등장한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다. 당시 집단적으로 등장한 여성들의 움직임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의 동일시와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였다.[3]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바탕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갖게 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의 공유를 통해 이들이 연대한 맥락에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와 여성에 대한 공격을 가능케 하는 '여성혐오' 의 실존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의 메커니즘으로서 '여성혐오' 라는 공통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국정 과제에서는 '젠더폭력' 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에서는 젠더폭력 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 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과 구체적으로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젠더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젠더폭력 개념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젠더라는 개념이 오직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에 국한된 것인지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질서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역시 모호하며, 성평등과 젠더폭력과의 관계 역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과 '젠더폭력' 의 개념을 통해 성평등과 여성폭력, 젠더폭력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성평등 개념에 비추어 기존의 여성폭력에 관련된 법과 범죄예방정책의 한계와 나아갈 바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 SNS에서 #강남역살인남, #살아남았다라는 해시태그와 '호신용품', '여성혐오', '여자라서'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의 상위를 차지하였다. "여자라서 죽였다" '강남역 살인남' 사건에 경악, 오마이뉴스(16.5.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0554 (검색일: 2016. 8. 30) 피해대상을 선택한 살인범죄자의 동기가 "여성이어서"라는 사실은 더욱 피해자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나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성에 대한 인식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의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확인된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의 큰 추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즉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은 국제인권법상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발전되었다. 1980년대 인권폭력에 대한 관심으로 촉발된 논의가 1990년대 들어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논의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문화적인 편견과 국제적인 인신매매로 비롯된 성별에 기반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착취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인권 컨퍼런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핵심주제로 선정해달라는 청원에 123개 국가에서 30만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법행정에서의 젠더 편견을 제거하고 특정 전통적 내지 문화적 관습의 위해한 효과로 인한 여성권리침해를 근절할 것"[4)]을 천명하였다.[5)] 이러한 흐름은 1993년 12월 12일 제18차 UN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의 채택으로 이어졌고, 이 선언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상의 여성차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CEDAW를 비준한 회원국들에게는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규정된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제1조)"로 정의하고, 젠더 폭력행위를 한 자와의 관계 및 젠더폭력 발생 공간에 따라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가족내 폭력은 아내 구타, 여자아동에 대한 성학대,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아내 강간, 여성성기절단과 같은 여성에게 위해한 전통적인 관습과 관련된 폭력을 의미하며, 일반사회에서의 폭력은 직장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학대, 성희롱,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에 의한 폭력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6)] 그러므로 젠더폭력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지배적인 문화에 깊이 박혀있는 태도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감별 낙태나 신부납치, 명예살인 등 그 사회에서는 전통이나 문화로 인정되나 여성에게 위해적인 관습이나 풍습까지 모두 포함된다.[7)] 여성에 대한 폭력 논의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젠더 폭력(GBV)이라는 개념이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는 폭력의 피해자가

4) sec. II, B, par.38, UN Doc A/Conf.157/24[Oct. 1993]

5) Sally Engle Merry(2006), Human Rights & Gender Violence: Translating international law into local justice, UCP press, pp. 22-3.

6) 김엘림(2000), 여성인권의 보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21세기 법과 민주주의-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5607&mid=sympo 참고.

7) UN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R.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젠더 폭력의 개념이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지배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자 동시에 그러한 폭력으로 인해 성별 불평등이 고착화되거나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젠더폭력 개념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이라는 성별(gender) 위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채택된 개념이다. 여기에서의 성별 위계는 남성과 여성을 우열로 위계짓는 성별질서에 따라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까지 포함한다. 젠더폭력은 성별불평등의 작동으로 나타나며, 남성의 권력과 특권의 남용의 결과이다. 폭력의 주된 가해자가 남성이며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국제법상으로 여성 폭력은 곧 젠더 폭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남성들의 피해가 젠더 폭력을 위한 대응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구조에서 일부 남성과 남성아동들은 남성다움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강간 등 성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젠더의 사회구조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여성폭력을 지배적인 문화로 만드는 주된 요소이다.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내 여성(여성성)의 종속적인 지위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폭력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은 그 사회 공동체의 규범과 사회구조, 그리고 젠더 역할이 어떻게 여성을 취약한 폭력의 대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어야 한다.[8] 그러므로 젠더 폭력을 방지하는 정책의 결과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도 하지만, 성평등 정책이 곧 젠더 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된다.

젠더 이외 다른 사회 위계와의 상호교차성으로 인해 폭력경험도의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성기절단이나 조혼, 강제결혼 등 소수인종 내에서의 전통적 성별 역할과 문화적 관습으로 인한 폭력이나, 성소수자 여성이나 노인 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아동 등에 대한 폭력 피해는 더 큰 트라우마와 해결을 위한 사법접근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속성 이외에도 신체적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권력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은 젠더폭력의 피해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맥락이 된다. 그러므로 젠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권력관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3. 기존 여성폭력방지정책에서 나타나는 성별불평등

가.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의 핵심으로서 범죄환경개선

2016년 6월 1일 중앙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이라는

Coomaraswamy)의 2002년도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 특별보고서에서 이러한 젠더에 기초한 여성폭력의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1/49: Cultural practices in the family that are violent towards women, 31 January 2002, E/CN.4/2002/83,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3d6ce3cc0.html [accessed 22 March 2017]

8) Equally safe strategy, Scottish Government, p. 13.

제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여성범죄안전정책은 경찰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취진하여 비상벨 설치나 시설, 환경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성대상 범죄취약요인을 집중 신고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한 후,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골목길,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등 총 5,493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604억의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경우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이러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대책의 핵심은 "범죄예방환경사업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공건물 내 남녀공용화장실을 위험성이 드러난 범죄취약환경으로 설정하고, 남녀공용화장실 이외에도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의 환경개선은 잠재적 범죄자들인 남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감시의 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환경범죄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최근 한국사회 범죄예방정책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지리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범죄대상의 접근성을 낮추고 범죄자의 체포 가능성을 높인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CCTV나 순찰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설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외부침입자가 접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구성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법무부나 경찰청, 지방자치정부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으며, 도시 내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인식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9)]

범죄예방환경의 구축을 통해 여성대상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일명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안전대책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이후 신안군과 목포경찰청은 여성범죄예방진단팀을 가동하여 범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학교관사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마을별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주민들에 의한 취약지 순찰 등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였다.[10)] 이러한 범죄예방전략의 방향은 2012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왔던 낮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동행하는 '여성안심지킴이'나 '여성안심귀갓길' 활동이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안심택배', CCTV나 도난방지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여성안심주택' 등에서도 나타난다.

9) 초기 건축설계 및 조경설계 등 물리적 환경의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에 집중하던 셉티드는 최근 2세대 셉티드(Second generation CPTED)라 하여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민간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 강화와 빈곤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해결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0) "신안군, 경찰, 안전한 섬마을 만들기 안간힘", 전남일보(2016.6.24.)

이와 같은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성이 일관되게 검증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1] 그렇지만 적어도 CCTV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여성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12] 일반인들이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CCTV나 순찰 등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듯이,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각종 "여성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다. 최근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의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한 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유사한 정책이 확대 적용되는 방식으로 반복될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그 두려움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체화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다.

11) Leclerc, Benoit, Yi-Ning Chiu, Jesse Cale, and Alana Cook.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the Lens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Toward the Accumulation of Evidence-Based Knowledge and Crime Preventio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February 4, 2016. doi:10.1007/s10610-015-9300-z 참조.

12) 정진성, 장윤식, 방범용 CCTV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 341-368면.

나. 범죄예방의 핵심으로서 '구분과 분리의 강화'

여성대상범죄의 예방 및 안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다 '안전한 공간' 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여성범죄예방정책으로 등장한 각종 "여성안심" 프로젝트는 늦은 밤 귀갓길, 으슥한 골목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3자인 동행자 내지 감시인력(CCTV와 같은 기계를 포함)을 배치하거나 낯선 남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여성안심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늦은 밤 혼자 걷는 귀갓길, 어두운 공간이 있는 골목길,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 등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진단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방법용 CCTV나 비상벨이 설치되고 범죄를 감시할 수 있는 순찰과 동행서비스가 실시되며 택배기사 등 낯선 사람의 접근은 차단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부산도시철도에서 실시하는 지하철 "여성배려칸"의 운영 역시 분리와 차단을 통한 안전한 공간 구성 정책이다.

'안전한 공간' 의 구성은 공간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안전하지 않은 공간, 다시 말해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확인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이로부터 분리하고, 안전한 공간과 안전하지 않은 공간을 분리한다.

이러한 범죄예방정책에는 두 가지 큰 모순이 있다. 첫째, '안전한 공간' 의 구분과 분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외의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부는 범죄예방환경의 구축을 주요한 범죄예방정책의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범죄와 두려움의 문제에 안전한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증가하였다.[13)] 둘째, '안전한 공간' 의 구축으로 범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 예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후적인 정책일 뿐이다. 범죄취약공간이라는 진단은 기존에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 혹은 유사지역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내려진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하지 않은 공간의 목록은 사후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은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추가되었으며, 신안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섬마을 교사의 관사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분리와 차단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려는 범죄예방정책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가 발생한 물리적 공간과 그 유사 공간에 대한 물리적 분리와 차단에 집중하여 이 공간을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분리되어 안전하다는 설정은 오히려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또 다른 범죄의 발생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범죄취약영역의 확대는 사후적인 예방조치로서의 범죄예방책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킬 뿐이다. 결국 "여성안심" 프로젝트는 여성이 가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뿐 아니라 강화하기까지 한다.

13) Carina Listerbor, "Understanding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Fear and Space", Liz Bondi et Al, Lanham, Subjectivities, Knowledges, and Feminist Geographies:The Subjects and Ethics of Social Research, Rowman & Littlefield, 2002, p. 34.

다. 공사이분법에 기초한 범죄예방: 두려움의 성별 지리학

"여성안심"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범죄예방정책에 의해 오히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지, 강화된다는 점도 문제적이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의 재생산을 통해 공적 공간의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페미니즘은 시민의 범주에서, 그래서 합리성과 이성의 영역인 공적 공간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한 남성에 의해 대표되는 가족의 사적 영역에 여성을 위치시켜온 전통적 자유주의 철학과 실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왔다. 공사이분법에 기초하여 여성의 영역을 제한시켜온 법과 제도와의 전투는 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자와 주변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비록 공식적인 제도에서의 여성배제의 문제가 가시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공사이분법에 기초한 성별사회구조는 여러 가지 숨겨진 변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범죄와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공사이분법의 변주 중 하나이다.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과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각종 "여성안심" 프로젝트가 전제하고 있는 범죄는 낯선 남자인 외부인에 의한 범죄이며,

범죄환경은 공공의 공간과 혼자 있는/사는 여성들이다. 도시의 밤거리, 공공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 지하철, 주차장 등의 공공 공간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진단되며, 혼자 있는/사는 여성들은 비록 집에 있더라도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은 위험한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들과 낯선 남자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3자(지킴이 혹은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범죄예방정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나 혼자 있는/사는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심과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다.

현재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각종 대책은 바로 두려움의 성별화된 지리학을 강화한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공간의 성별화된 구성과 구조화된 성별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여성 두려움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women' s fear)' 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젠더와 두려움의 지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성들이 가진 범죄의 두려움이 결국 여성의 삶 모든 단계에서 이동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데에 주목한다.[14]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 대해 취약성과 두려움을 인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공사영역에서의 성별화를 내면화한다는 점에서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15] 이 때 성별 분업과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며 가족 내에서 한 남성에 의해 다른 남성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암시를 만들어낸다.[16] 공적 공간에 대한 두려움의 지리학에 기반한 여성대상 범죄안전대책은 여성에게 공공장소나 혼자 있는/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함으로써 사적 공간과 남성의 보호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에 기초할 뿐 아니라 이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이 가진 범죄 두려움의 지리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의 상황과 거리가 있다. 여성이 가지는 범죄의 두려움은 공공장소에서 혹은 낯선 남자에 의한 외부인의 공격에 대한 이미지로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여성들이 직면하는 폭력은 집에서 내지 아는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진 범죄 두려움의 공간은 어둡고 음침하고 혼자 있는 장소로 이미지화되며,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모두 이러한 공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책은 여성들이 보다 더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 아는 사람에 의한 혹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위험한 공적 공간과 대비하여 남성에 의해 보호되는 사적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들을 비가시화하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18]

결국 공간의 분리와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범죄에 대한 정책들은

14) Painter Kate, "Different worlds: the spatial, temporal and social dimensions of female victimization", Evans, Fife, and Herbert(eds), Crime policing and place: essays in environmental criminology, Routledge, 1992 참조.

15) Valentine, Gill.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Area 21, no. 4, 1989, pp. 385-90 참조.

16) Valentine, Gill. "Images of Danger: Women's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ale Violence." Area 24, no. 1, 1992, p. 27.

17)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낯선 사람에게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31.0%, 강간미수 30.4%, 강간은 9.3%로 낮았다. 또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의 발생율은 34.4%로 나타난다.

18) Warrington, Molly. "'I Must Get Out': The Geographies of Domestic Violen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 no. 3, 2001, pp. 365-82 참조.

여성들이 실제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성별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다. 안전한 사회가 아닌 안전한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범죄와 그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갖는 비극은 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의 성별 지리학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는 데에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은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19)]을 다루기 위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도구도, 그리고 두려움의 내용도 모두 낯선 사람에 의해 혼자 있을 때 공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이나 장소에 한정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인격화하는 그래서 쉽사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여성혐오의 실천은 여성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한다.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중한 형태의 성폭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적 괴롭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양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다.[20)] 질적 연구 역시 여성들이 남성성이 지배적인 공적 공간, 다시 말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 남성과 같이 있지 않는 여성에게 추근거리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나 운동하는 여성을 조롱하기 등과 같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행위방식이 공적 공간에서 지배적일 때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다.[21)]

19) 2010년부터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일관되게 성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지선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김은경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최수영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참조.

20) 김지선,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8호, 2004년, 221-267쪽 참조.

21) VALENTINE, GILL. "Women's Fear and the Design of Public Space." Built Environment (1978-) 16, no. 4 (1990): 300-302.

4. 성매매와 성폭력 관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가. 성매매와 성폭력의 모호한 경계로서 아동성매수

2017년 현재 한국 법체계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에 관한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성매매에 대한 대표적인 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49호, 2014.1.28., 타법개정, 시행 2014.7.29.)」(이하 성매매처벌법)인데, 처벌법상 가장 기본적인 행위유형인 '성매매' 의 법적 정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하는 것(제2조제1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성매수자와 성구매자 간의 상호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상호합의된 성매매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성매매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에 대한 대표적인 처벌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 2016.12.20., 일부개정, 시행 2017.6.21.」(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본 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정의에는「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나 강도강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뿐만 아니라「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의 관한 죄 중 음행매개(제242조), 음화반포(제244조) 및 공연음란(제245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강압적인 성적 행위와 관련되어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진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게 된다.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법상 성적 행위의 상대방인 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데, 이는 전체 법체계에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의 부재 또는 미약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형법상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간음, 유사간음, 추행)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형법 제305조), 2013년 개정 전까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였다(형법제242조).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무능력자로 보고 보호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아동복지법제17조제2호) 이에 대해 처벌규정(동법제71조제1항제1의2호)을 두고 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성폭력과 성매매의 분리된 경계는 해당 법률 규정이나 실제 해석 및 적용의 과정에서는 모호하며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함이 가진 문제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청법상 성폭력과 성매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 ·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 그리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등 관리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형법상 성폭력범죄(강간, 유사강간,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청법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성폭력범죄 등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수 또는 음란물제작 목적 매매 및 인신매매,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내지 이를 위해 유인 · 권유한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행위 및 알선행위 등 성매매가 포함된다(제2조제2호). 여기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폭력이 아닌 성범죄의 예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이하 (아동청소년)성매수)[22]이다. 아동청소년성매수 규정은 행위주체를 성을 사는 사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아청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 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며 법에 의해 수사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증인진술시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 이 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아청법에 규정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아청법의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과의 구분은 비록 19세 미만의 자이지만 성판매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거나 이익을 얻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이라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구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처벌법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아청법의 태도는 본 법에서 사회의 책임에 대해 "모든 국민은 아동 ·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선도 · 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문제는 아청법상 성폭력과 성매매의 구분, 그리고 대상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의 구분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IQ 67-70인 13세인 지적 장애인을 채팅앱을 통해 만난 7인의 남성이 숙박시설로 데려가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1)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였고, 2) 숙박 등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하고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을 적용하였고, 보호자가 제기한 가해자들 대상 민사소송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23] 성적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 내지 이익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청법상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의 자발성, 이익수취 등 여부 등 행동과 태도가 판단대상이 되며, 결국 아청법상 성폭력 관련 재판은

22)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아청법 제2조제4호).

23) 매일경제뉴스, "성폭행 당한 지적장애 13세 소녀, 숙박 제공받아 '자발적 성매매'로 인정", 2016.5.13.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5744&year=2016(검색일: 2017.8.19.)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만한 정조를 가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

나.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의 작동으로서 여성혐오

아청법상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구분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규범의 작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한 자와 성매매 피해자를 분리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누리는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반면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매매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구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된 선도보호조치보다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약하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윤락행위등방지법과 마찬가지이다.

성매매처벌법과 구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의 개념에 대해 유사한 법적 정의를 취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구윤락행위등방지법[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처벌법은 구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그 목적과 개념에서 선량한 풍속 내지 선도 등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적 개념인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규정을 사용하여 각 법률의 핵심개념인 성매매와 윤락행위의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생활을 하는 여성' 이라는 개념은 2013년 형법 개정전 음행매개죄(제242조)[25]의 구성요건인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개념이다. 제정형법의

24) 법률 제6801호, 2002.12.18., 타법개정, 시행 2003.6.19.)

25)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행매개죄는 식민지 시기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되었던 일본형법 제182조 음행권유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데,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권유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음행권유죄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알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대한 알선행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6] 제정형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의용형법의 음행권유죄는 음행매개죄로 변경되었으며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이외에 미성년인 부녀를 행위객체에 포함하게 되었다.[27] 형법이론상으로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매춘부 기타 불특정한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로 주로 설명되며, 주된 예시로 성판매여성이 제시된다.[28] 다시 말해, 음행매개죄에서의 음행의 상습 여부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음행의 상습이라는 개념에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 성매매 또는 윤락행위의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성매매의 정의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할 때에 그 행위주체는 성판매여성이 된다. 성매매처벌법은 그 법의 주된 적용대상을 성판매여성(요보호자)으로 두는 구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핵심개념인 성매매 개념 정의 자체를 성판매여성을 주체로 둠으로써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주체로 성판매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윤락행위등방지법에는 성판매여성을 요보호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구윤락행위등방지법제2조제2호)로 정의함으로써 성을 파는 계약이나 합의 여부가 아닌 '상습', '성행'이라는 기질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윤락행위 상습 또는 성행, 혹은 음행의 상습 등의 개념구성은 이들을 개선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 및 지료,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등 선도보호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인식틀을 제공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한 자, 즉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처분의 대상은 모두 성판매자이며[29] 보호처분의 내용 역시 주로 성판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이나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아청법상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행과 상습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본 법체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불처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교정과 교화의 대상으로 만든다. 아청법 규정으로 인해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26) 박정미(2012).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제94권, p. 269 이하 참조.

27) 실제 음행매개죄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형법개정 논의마다 명황성의 원칙에 반하고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죄에 대한 폐지논의가 다수의견이었다, 2013년 형법개정을 통해 현행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었다. 박정미는 이에 대해 공창제도를 전제로 한 음행권유죄가 1948년 성매매 매개행위가 불법화된 한국의 법체계 하에서 음행의 상습 있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매개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위의글, p. 275 이하 참조.

28) 비록 주된 예시가 성판매여성이긴 하지만 이들은 불특정한 남성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이를 약속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성판매여성 뿐 아니라 불특정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도 포함된다.

29) 성구매자의 경우 존스쿨을 통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주로 적용되거나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30)]

30) 현재 아청법상 성판매 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다. 소년법 8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된 소년원의 송치처분은 1개월에서 2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이며, 선도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처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무상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10호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아청법상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이외에도 절도나 강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인 경우에 한정될 뿐이나,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판매를 한 아동청소년이 처벌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등을 통해 사법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일보, "성매매 연루 청소년, 처벌 같은 보호처분에 운다", 2016.4.12.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327.html(검색일: 2017.9.2.)

여성을 보호받을만한 여성과 아닌 여성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여성혐오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성녀와 창녀의 구분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혐오는 가부장제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문화적 태도이며,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들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구성 속에서 여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타자화되고 대상화되는 방식으로 여성혐오의 실천을 설명한다. 가부장적 남성동성사회에서의 권력은 타자화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복과 획득이며, 남성동성사회의 편입은 여성이 아님(타자가 아닌 주체)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우에노 치즈코는 이러한 남성동성사회에서 남성집단의 유대와 집단 내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이 여성멸시, 특히 창녀에 대한 멸시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31)]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여성을 두 종류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성녀와 창녀, 어머니와 매춘부, 결혼상대와 놀이상대 등으로 이분화하며, 쾌락용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호받을 만한 여성이 아니다.

'보호받을 정조' 라는 판례상 개념은 앞서 살펴본 형법상 음행매개나 혼인빙자간음죄에서 규정되었던 "음행의 상습없는"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최근 개정을 통헤 현행 형법에서는 사라진 법규정은 여전히 성매매와 성폭력의 모호한 구분 속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5.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성평등과 차별금지

앞서 살펴본 대로, 젠더폭력 개념은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시키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러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부정책으로서 젠더 폭력에 대한 방지정책은 여성폭력을 위한 대응으로서 사회구조적인 성별위계에 대한 평등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지해야 한다. 기존의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와 범죄예방정책에서 드러난 성별불평등성과 여성혐오는 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등한 안전(Equally Safe)"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폭력이 성별불평등한 사회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나 분리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정책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합의되어야 할 네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스코틀랜드 사회는 평등과 상호존중을 받아들이며, 모든 형태의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거부한다. ② 여성들과 소녀들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다. ③ 여성폭력에 대한

개입은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폭력을 예방하며, 여성들과 소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대화한다. ④ 남성들은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며, 여성폭력 가해자들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받게 된다.[32] 스코틀랜드의 여성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의 핵심이 '평등' 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안전, 존중, 평등을 경험하기 위한 관련 대책은 젠더 역할이나 관계, 개인과 공동체에서의 평등실현과 차별금지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역시 보호를 위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의 권리이다.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책 역시 비이성적이고 변칙적인 행위자의 문제가 아닌 성별불평등한 사회의 행위자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 이들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제출된 젠더폭력방지정책은 성평등 실현과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대응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실현을 염두에 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신종 젠더폭력으로 분류되는 몇몇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에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기존의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성별불평등과 여성혐오의 작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젠더폭력대응을 위한 법정책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지 않는다면,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폭력방지대책의 실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1)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참조.

32) the 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Equally Safe: Scotland's Strategy for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e Scottish Government, 2014

페미니즘의 공간, 부대끼는 몸들의 정치학과 존재론[1)]
: 유토피아와 비장소(non place) 사이에서

권명아 /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1) 이 강연은 학술 심포지엄이 아니라 대중강연 형식으로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대중 강연을 하는 방식이라고 전해 받았습니다. 강연과 심포지엄 둘 사이를 결합한 형식이라고 하여, 원고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1, 2장에서는 새로 진행 중인 연구의 1차 자료와 문제의식을, 3장에서는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강연을 진행하려 합니다.

1. 공론장과 군중심리라는 이분법: 페미니즘과 시민성의 공간

페미니즘의 정치적 주체화와 공론장, 조직화, 힘 매개에 대한 비판 담론의 양상

<자료 1> 소셜 미디어는 마녀사냥의 온상

온라인 마녀사냥의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 확산성 때문입니다.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실어 나르면서 허위 사실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군중심리를 자극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상 마녀사냥 글을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댓글과 리트윗을 달지만, 이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비판적 정보 수용으로 죄 없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누군가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만 남고 다수의 가해자는 사라지는 온라인 마녀사냥. 더이상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2)]

2) [인권을 담다] 죄 없는 피해자 속출..온라인 마녀사냥 '심각' | 작성자 별별이야기, 국가인원위원회 포털, 2017년 10월 18일자.

<자료 2> "소셜 미디어 기반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대중의 우발성과 지식인의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작년 봄 강남역 10번 출구를 뜨겁게 달군 추모의 물결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물결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아무도 그것을 지휘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순수한 마음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힘은 그렇게 컸다. 하지만 단지 거기까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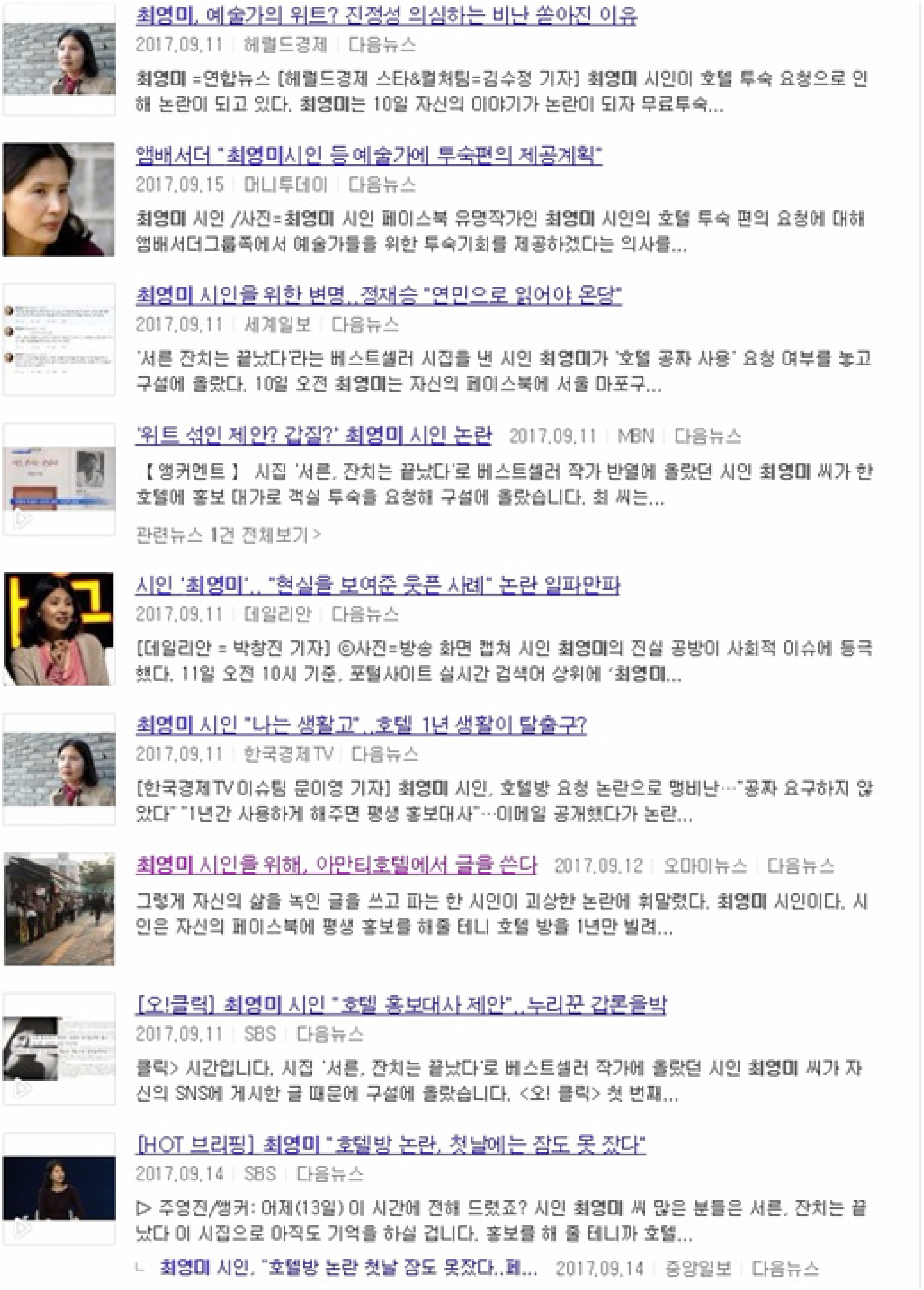
〈뉴요커〉 기자인 네이선 헬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운동들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반면, 쉽게 스러지는 특징이 있다. 2004년 이라크전 반대 운동이 그랬고, 월가 점령 운동이 그랬으며, 2014년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Black Lives Matter')가 그랬다. 이 운동들은 마치 참여자의 자기 효능감 증진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엄청난 주목과 지지를 받은 뒤에 아무 성과 없이 사그라졌다. 새로운 운동 모델이라고 찬양받는 특징, 즉 수평적이고 느슨한 연결에 의지하며 지도부가 없다는 점이 바로 한계였다. 성공한 사회운동들은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해 전략을 짜고 지배 권력과 협상할 수 있는 지도부를 가지고 있다. 목표와 지도부가 없는 운동은 협상의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분열하고 쇠퇴한다.

강남역 추모 시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시위의 가시적 성과는 여론의 압박을 통해 판사로 하여금 범인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뿐이다('부당한 중형'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범인이 정신질환자였음을 고려하면 말이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을 대하는 지식인들의 반응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숙고하기보다는 대중의 견해를 무조건 추인하는 쪽을 택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에 사회운동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관망하는 위치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끌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운동에 감히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저 모처럼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부채질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강남역 살인을 둘러싼 작년 한 해의 놀라운 열기, 그리고 올해의 대조적인 냉담함에서 똑같이 어떤 위기의 징후를 읽는다. 그 위기는 지식인의 위기이기도 하고 여성운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참정권 획득이나 호주제 폐지 같은)가 있었다.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가?[3)]

3) 김현경, 「조직되지 않은 운동의 한계」, 한겨레, 2017년 8월 30일.

<자료 3> 최영미, 도로시 파커의 호텔방을 꿈꾸다가



최영미, 예술가의 위트? 진정성 의심하는 비난 쏟아진 이유
2017.09.11 | 헤럴드경제 | 다음뉴스
최영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영미 시인이 호텔 투숙 요청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영미는 10일 자신의 이야기가 논란이 되자 무료투숙...

앰배서더 "최영미시인 등 예술가에 투숙편의 제공계획"
2017.09.15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최영미 시인 /사진=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유명작가인 최영미 시인의 호텔 투숙 편의 요청에 대해 앰배서더그룹쪽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투숙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최영미 시인을 위한 변명..정재승 "연민으로 읽어야 온당"
2017.09.11 | 세계일보 | 다음뉴스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베스트셀러 시집을 낸 시인 최영미가 '호텔 공짜 사용' 요청 여부를 놓고 구설에 올랐다. 10일 오전 최영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마포구...

'위트 섞인 제안? 갑질?' 최영미 시인 논란 2017.09.11 | MBN | 다음뉴스
【앵커멘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던 시인 최영미 씨가 한 호텔에 홍보 대가로 객실 투숙을 요청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관련뉴스 1건 전체보기 >

시인 '최영미'.. "현실을 보여준 웃픈 사례" 논란 일파만파
2017.09.11 | 데일리안 | 다음뉴스
[데일리안 = 박창진 기자] ⓒ사진=방송 화면 캡처 시인 최영미의 진실 공방이 사회적 이슈에 등극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최영미...

최영미 시인 "나는 생활고"..호텔 1년 생활이 탈출구?
2017.09.11 | 한국경제TV | 다음뉴스
[한국경제TV 이슈팀 문이영 기자] 최영미 시인, 호텔방 요청 논란으로 뭇비난…"공짜 요구하지 않았다" "1년간 사용하게 해주면 평생 홍보대사"…이메일 공개했다가 논란...

최영미 시인을 위해, 아만티호텔에서 글을 쓴다 2017.09.12 | 오마이뉴스 | 다음뉴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녹인 글을 쓰고 파는 한 시인이 괴상한 논란에 휘말렸다. 최영미 시인이다.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홍보를 해줄 테니 호텔 방을 1년만 빌려...

[오!클릭] 최영미 시인 "호텔 홍보대사 제안"..누리꾼 갑론을박
2017.09.11 | SBS | 다음뉴스
클릭> 시간입니다.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랐던 시인 최영미 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HOT 브리핑] 최영미 "호텔방 논란, 첫날에는 잠도 못 잤다"
2017.09.14 | SBS | 다음뉴스
▷ 주영진/앵커: 어제(13일) 이 시간에 전해 드렸죠? 시인 최영미 씨 많은 분들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시집으로 아직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홍보를 해 줄 테니까 호텔...
ㄴ 최영미 시인, "호텔방 논란 첫날 잠도 못잤다..페... 2017.09.14 | 중앙일보 | 다음뉴스

<자료4> 파편화된 온라인 기반 운동도 '노동운동'은 다르다: 모범적 사례일까 담론화의 문제일까?

▶힘 없고 외로워? 우린 익명의 동료들과 온라인서 뭉친다
〉IT · 판매 · 콜센터 직종 등 새로운 노조 만들기 실험

■ 직장 갑질, 온라인 성토대회
[커버스토리 – 도와줘 '직장갑질119'] 고립된 노동 "노조가 필요해"
"온라인상에서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댓글 달고 할 거야. 그런데 알잖아. 거기서 끝!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한 후 거기서 끝이라고."

김지석씨(38 · 가명)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다시 한 번 재촉을 이어갔다.

"IT는 그래도 돼. 지난해 촛불 때 유명했던 '박근핵닷컴' 알지? 그게 개발자가 퇴근 후에 만든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됐어.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숨 걸고 나서서 노조 만들고 해고되고 손해배상청구 당하고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냐. IT 노동자가 가진 힘은 IT니까 그걸 활용해서 재미있게 만들면 업계의 갑질 관행, 노동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100% 들어올 것이라고 봐."

'직장갑질119' 를 준비 중인 박 노무사는 지난 11일 학교 선배인 IT 노동자 김씨를 만나 'IT 노동자 온라인 모임 사이트' 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직장갑질119' 는 '직장을 바꿔! 누구나 노조가 필요해!' 라는 모토를 내건 '온라인 직종별 권리모임' 으로 오는 11월1일 출범 예정이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건강연대, 사무금융노조, 알바노조 등 비정규직 운동단체들이 뭉쳤다. 여기에 노동상담과 부당한 갑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담당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민주노총법률원의 변호사와 노무사 100여명이 합류했다.

그러나 새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는 박 노무사의 제안에 김씨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김씨는 IT 업계 분위기가 온라인에서는 와글와글해도 막상 댓글 이상의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여기는 대부분 각자 고립돼 일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같이해도 밥 한번 같이 먹기 힘들다고. 또 다들 죄다 학교 선후배로 얽혀서 평판이 중요한데 노조 같은 거 했다가 찍힐까 봐 겁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박 노무사는 개의치 않고 제안을 이어갔다. "뭐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사이트에 IT 노동자들의 무용담과 하소연을 가감없이 쓰는 거야. 그게 언론을 만나면 기사가 되는 거고 정당을 만나면 정책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베이스는 경험이야. 자신의 얘기를 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박 노무사는 지난해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에서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앱’ 에 ‘구로의 등대에서 일하는 당신의 노동 조건을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올렸던 때를 떠올렸다. ‘구로의 등대’ 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넷마블 빌딩이 잦은 야근과 밤샘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0일 동안 100명만 참여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반응은 그보다 훨씬 폭발적이었다. 이틀 만에 500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블라인드앱에서는 누군가 문제 되는 상황을 올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언론과 노동부 및 정의당에 신고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박 노무사는 그때 직장 내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온라인 권리 모임’ 의 가능성을 봤다. “넷마블 사태가 노동자 개인의 권리구제 행동으로까지는 나갔는데, 집단적으로 뭉치는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현실에 대해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결집하는, 전에 없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는 느낌은 갖게 된 거죠.”

■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는 경험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는 느낌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콜센터 노동자 유지영씨(34 · 가명)가 그렇다. 유씨는 ‘직장갑질119’ 의 출범을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유씨는 콜센터에서는 노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몇 개월 단위로 동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노조는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고립된 노동은 어느 틈에 부당한 갑질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평가점수가 낮으면 자리 위쪽에 ‘나는 하위자입니다’ 라는 걸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신입 직원이 입사 첫날 그걸 보더니 사색이 되면서 자신도 나중에 저걸 붙이고 있어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업무지시가 이해 안 가는 것투성이였다. “모니터링 평가점수가 낮으면 교육에 끌려가 만점자 콜을 들으며 ‘반!갑습니다’ 란 억양 연습만 30분을 해요. 어떤 콜센터는 출근한 순서대로 화장실을 가는 기상천외한 규율도 있어요.” 직장 내 막무가내 갑질을 토로할 곳을 찾았지만 창구는 없었다. “ ‘노조’ 밖에 답이 없나 해서 120다산콜센터가 노조 만든 과정을 알아봤어요. 사무금융노조라는 산별노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다 조합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비밀 조합원’ 이에요. 동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콜센터에 유씨와 같은 또 다른 ‘비밀 조합원’ 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씨는 확인할 수 없다. 조합원이라는 게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해서다. 마음 맞는 동료들에게 조합원이라는 걸 공개하고 직장 내 부당한 갑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작당’ 을 하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크다. 자칫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 일을 영원히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던 유씨가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를 절감하게 된 건 올해 초다. 유씨는 올해 초 원청에서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자 사무금융노조에 이를 신고했다. 유씨의 신고로 ‘콜센터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파장이 일자 회사는 다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원상복귀시켰다. 점심시간이 원상복귀된 것을 경험하면서 콜센터 노동자 사이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감내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퍼졌다. 유씨는 “전에는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들 감내했는데 ‘점심시간 단축 건’ 이후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도 누가 좀 찔러줬으면 좋겠네’라고 우스개처럼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노조에 가입했어도 같은 콜센터 조합원 ‘동지’를 만날 수 없지만 ‘직장갑질119’가 생기면 온라인에서 익명의 동료들과 함께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직장 내 실질적인 변화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 직장갑질119, ‘노조 밖 노조’와 연결

‘실질적인 변화’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다. 클레이 서키의 책 〈많아지면 달라진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면서 시민들이 가진 시간이 사회 변화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인용한 케냐의 ‘우샤히디’는 참여가 공적 가치를 만들어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8년 케냐 정부가 종족 간 폭력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금지하자 정치운동가 오리 오콜로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를 알렸고 뒤이어 시민들이 목격담을 공유했다. 여기에 프로그래머가 합류해 폭력이 발생한 지역을 지도로 실시간 표시했다. 그로 인해 케냐의 폭력 사태는 빠르게 진정될 수 있었다. ‘많아지면’ 사회 전체가 ‘달라지는’ 온라인 시대에 ‘직장갑질119’의 관건은 노동자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깊이 참여하게 하느냐일 것이다.

‘직장갑질119’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 집행위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노조 밖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나서기 위해서다. 박 위원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노조나 외부의 탄압으로 힘을 받지 못한 노조에 ‘직장갑질119’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2일 그가 만난 사람은 김선영 판매연대노조 위원장이었다. 판매연대노조는 자동차대리점 비정규직 판매영업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전국에 약 1만명의 비정규직 판매영업 노동자들이 있지만 현재 조합원은 250명에 불과하다. 그도 그럴 것이 판매연대노조가 출범하자마자 회사는 해고와 대리점 폐업 등으로 노조를 흔들어댔다. 심지어 판매연대노조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조’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가입을 희망했지만 이마저도 금속노조에 소속된 정규직 판매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1년5개월째 가입 승인을 못 받고 있다. 김선영 위원장은 “금속노조 찾아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게 벌써 2년6개월째”라며 “노조 가입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라고 탄식했다.

박 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판매연대노조 온라인 모임’ 에 몇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했는지 물었다. “2300명 정도 가입돼 있어요.” 김 위원장의 대답에 박 위원이 “많이 모으셨네”라며 반색했다. 온라인 모임 가입은 2300명이 했는데, 정작 조합원은 250명에 불과한 이유는 뭘까. 이 숫자의 간극은 노조를 통해 자신의 권리 찾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노조를 신뢰하지 못해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만약 노조가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들은 빠르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박 위원은 지금의 온라인 모임에 ‘직장갑질119’ 를 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노조의 힘이 더 세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박 위원이 “온라인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어떤 소장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등의 내용이 공유되는 편”이라고 답했다. 직장 내 갑질을 토로하는 판이 깔아졌다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박 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직장갑질119’ 의 변호사 · 노무사와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반색을 하며 흔쾌히 동의했다. 박 위원은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지켜보고만 있던 노동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노조와 가까워지고 노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만 쓰다 끝? 많아지면 달라지고 움직이니 되더라
[커버스토리 – 도와줘 ‘직장갑질119’] 고립된 노동 “노조가 필요해”

■ ‘일터’ 를 학습하는 중

‘직장 내 갑질’ 을 뿌리 뽑으려면 다양한 직종의 ‘갑질’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 집행위원은 매일 ‘네이트판’ 과 ‘알바천국’ 을 오가며 ‘직장인들의 애환’ 을 찾아 읽는다. 포털사이트 질문코너에 들어가 노동상담 질문으로 어떤 게 들어오는지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댓글은 어떤 식으로 달리는지 들여다본다.

‘직장갑질119’ 를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획도 준비 중이다. 지난 18일 오 위원은 윤지영 변호사, 박점규 위원, 이정호 노무사와 함께 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채용사이트 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직장갑질’ 근절 캠페인을 했던 업체인 만큼 공동기획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공동기획이 성사된다면 아르바이트 청년들이나 자신의 권리를 상담할 창구를 미처 생각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쉽게 ‘직장갑질119’ 를 소개하고 ‘직장 내 갑질’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갑질 사례’ 를 듣고 접근방법을 고민하기도 한다. 당장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알바들에게 ‘노조하세요’ 라는 말은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비정규 노동운동을 해왔지만, 깃발 없이 사람들을 어떤 매개로 모을 수 있을지는 좀 생소한 고민이다.

지난 16일 오 위원이 만나러 간 사람은 커피숍 아르바이트 노동자 윤사라씨(26 · 가명)였다. 커피숍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지 묻자, 윤씨는 "요가수업"이라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노조 조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봤어요. 커피숍 알바는 감정노동이 심하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육체적 · 정신적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가수업을 하면 많이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 그랬다. 노동자가 몸과 감정을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일터에서의 고민들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었다. 윤씨는 커피숍 알바 노동자들의 다수가 20대 청년인 만큼 '청년주택'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보망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어떻게 하면 '직장갑질119' 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갑질' 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일터' 를 학습하고 있다.

■ 광장 민주주의에서 일터 민주주의로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촛불 이후를 민주주의의 무대가 광장에서 '일터' 로 확산해 갈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박혜영 노무사는 "언론에서는 늘 크게 싸우는 것만 보도되는데 일상에서 늘 간과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지켜져야 할 것은 누가 감시하고 있는가다. 일터에서 기초적인 권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학생들이 취업 전 노동교육을 받을 때 커피는 어떤 순서로 놔야 하는지 등 의전을 직장생활의 도리로 배운다. 우리가 직장 내 권력과 갑질을 깨뜨리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노조 가입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민주주의가 좋은 생활을 가져다주려면 자기 일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1년, '광장의 민주주의' 는 아직 '일터의 민주주의' 로 나아가지 못했다. 광장에 함께 모여 '시민의 권리' 를 주장했듯, 일터에서도 함께 모여 '노동자의 권리' 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갑질119' 는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많아지면 달라지는' 온라인에서 '직장갑질119' 는 노동현장에서 고립된 노동자들을 한데 모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4)]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4) ▶힘 없고 외로워? 우린 익명의 동료들과 온라인서 뭉친다, >IT·판매·콜센터 직종 등 새로운 노조 만들기 실험, 경향신문, 2017년 10월 20일.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10201916005&code=940702#csidx23ab0921935cc7b82662a0c666d3618

<자료 5> 미풍양속의 '운동장':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대관 심의를 통과해 체육관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 허가까지 받았으나,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고 "시설 안전관리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대관 당일 체육관 공사"를 핑계로 대관을 취소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성명] 성소수자는 '공' 도 차지 말라고? 동대문구는 '여성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 취소 철회하고 성소수자에게 체육시설 사용권리 보장하라! 참조) 이에 분노하며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궐기대회로 대체 진행되었다. 출처: http://lgbtpride.tistory.com/1509 [너 나 우리 '랑'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권명아, <봉쇄의 역사와 활보할 권리> 한겨레, 2017년 8월 31일
〈택시운전사〉는 봉쇄에 대한 영화이다. 〈택시운전사〉는 관객들을 광주 '안' 으로 이끌어가지만, 결코 바깥에서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을 넘어서기 어렵게 만든다. 〈택시운전사〉는 오히려 관객을 광주 '바깥' 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영화로 보인다. 〈택시운전사〉는 극장에서의 동일화를 통해 관객이 바깥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환상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물론 〈택시운전사〉에는 동일화를 차단하기 위한 복잡한 영화적 장치나 사유의 난해함을 유발하는 서사적 복잡함이 없어 보인다. 이런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바로 광주 봉쇄, 즉 봉쇄된 광주 그 자체이다.

학살은 봉쇄로 가능했고, 학살 이후에도 지속된 봉쇄는 학살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학살당한 '폭도' 들은 봉쇄된 채 파묻혔고 '선량한 시민' 들은 물질적 봉쇄로 인해 정보를 차단당했고, 왜곡된 정보를 믿었고, 그 믿음이 사실이 되었다. 학살, 정보 왜곡, 왜곡된 정보의 사실화가 광주에 대한 상징적 봉쇄의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광주는 '국가 기념' 을 통해 복권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징적 봉쇄에 갇혀 있다. 첩첩산중 오솔길까지 봉쇄당한 광주를 감상하는 내내 관객은 물질적 봉쇄가 바로 학살 그 자체의 토대였다는 것, 그리고 학살 이후 지속한 상징적 봉쇄가 그 학살을 정당화해온 물질적 기반이었다는 것을 말없이 실감한다. 이러한 말 없는 실감이 관객에게 설명할 길 없는 부채감을 유발한다.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만들고(손가락질하기),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딱지붙이기), '선량한 시민' 과 분리하고(게토화), 사회에서 분리하고(수용소화), 절멸하기(최종적 해결)"는 파시즘의 학살 단계이자 원리이다. 혐오 발화나 차별 선동으로 번역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비판과 규제는 바로 이러한 파시즘의 학살 원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이다. 한국에서는 혐오 발화가 혐오 문제나 언어 표현으로 환원되어 이러한 학살의 원리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근대사는 봉쇄의 역사다. 광주 봉쇄가 '폭도'를 척결하는 군사작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은, 단지 베트남전의 경험 때문은 아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군사작전을 이유로 야간통행금지가 일상화된 사회였다. 야간통행금지는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에 정교하게 구축된 봉쇄 작전을 미군이 계승한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행위, 고정된 직장에 등록하지 않고 자의로 노동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나, 학생들이 시내나 교외로 나가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전시 동원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시내도 교외도 나가서는 안 되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 남학생은 군사 훈련을, 여학생은 붕대 감기나 후원 물품 만들기를 위해 '벤치'를 지켜야 했다. 사람들의 일상 공간은 운동장, 일터, 시내, 교외, 거주지를 막론하고 전시 작전의 명분으로 통제되고 분류되고 배치되었다.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1980년대에도 군사정부하에 번성한 성 착취 산업과 인신매매에 대한 공포로 특정 남성 집단을 제외한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다. 수류탄 던지기가 축구로 바뀌었을 뿐인 학교 운동장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여학생들은 여전히 전시 체제를 살고 있다. 공간의 성격을 막론하고 봉쇄된 삶은 이렇게 전쟁 중인 삶이 된다. 봉쇄를 해제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시 동원 체제에서 해방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활보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여전히 반파시즘 투쟁이고 페미니즘이 차별 반대의 반파시즘 투쟁인 이유이기도 하다.[5)]

5)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9157.html#csidx6df3e45b59b9bcc8ec96f2a5f57b995

<자료 6> 페미니즘과 세대론적 인정 투쟁: 페미니즘 이론은 어디서 오는가?
이론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세대론적 인정 투쟁의 프레임으로 매번 전도시키는 것은 문제다.

여러 직종의 20~40대 여성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모인 자리. 하지만 몇몇이 침을 튀기는 동안 저들의 눈빛은 "그래서요?"라고 되묻는 듯했다. 어쩔거나, 이 싸한 분위기. 예전에 밭 매던 호미로 아이 탯줄 끊고 마저 밭을 맸다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시큰둥함. 딱 그것이었다. 그 찜찜함이 느낌이 아닌 '실화'라는 것은 며칠 뒤 40대끼리 다시 모인 자리에서 확인됐다. "불편했대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나 뭐라나." "우리야 물어보니 옛날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그러네요. 예전 상사들에 비하면 우린 정말 괜찮은 편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저 묻는 말에 대답만, 그것도 단답형으로."

맞장구는 쳤지만 절감했다. 멘토고 뭐고 간에 그냥 우린 '꼰대'였던 거다. 조언이나 연륜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착각했을 뿐, 그저 내면화된 꼰대 근성이었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 회사뿐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는 다르지 않으냐"며 확인받고 싶어했고 딸아이는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되물었다. 난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밀레니얼 세대면 난 '영포티(young forty)' 다"라고 응수했다.[6)]

6) 박경은 기자, 「그래봤자, 꼰대」, 경향신문, 2017년 10월 16일자.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10162040025&code=990100#csidxf9d50237a864feca2b2617c72d18d4b

2.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비장소: 나혜석의 파리, 최영미의 호텔, 트페미와 페페미의 공간들

'트페미', '페페미'

최근 새롭게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페미니즘 집단은 초기에는 세대론적으로 정체화되어서 영페미, 영영페미로 불렸다. 세대론적 분류과 정체성 부여는 내부적으로도 비판되기도 했다. 영페미나 영영페미라는 규정이 스스로를 '선배' 나 '언니' 로 정체화하는 집단이 아직 세력화되지 않은 집단을 세대론적으로 규정하고 '미숙한 존재' 로 치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영페미나 영영페미는 주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즘 집단(트페미)와 겹쳐지기도 했다. 일련의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SNS 기반 페미니즘도 트페미와 페페미(페이스북 페미니즘)으로 분화되기도 했다.

2014년을 전후로 대두한 페미니즘의 새로운 정치 세력화는 처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메갈리아, 여성 시대가 대표적이다. 메갈리아에서 분리된 워마드도 포함될 수 있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내분과 외부 공격에 의해 분리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은 SNS로 이동했다. 새로운 페미니즘 세력으로 부상했던 여성시대 커뮤니티는 현재는 주로 뷰티 정보 커뮤니티로 변화되었다. 메갈리아는 커뮤니티 기능을 상실했다.

이보다 먼저 SNS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페미니즘 커뮤티니 역시 다양한 이유로 사라졌다. 해외 페미니즘 칼럼이나 논문 번역을 중심으로 했던 〈페미디아〉, 페미니즘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해석하면서 짧은 순간 6만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은 상호 갈등과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이유로 운영진이 바뀌거나 매체 성격을 변화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2014년 전후로 엄청난 힘으로 부상하고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세력화에 성공했던 인터넷 기반 페미니즘 커뮤니티들은 세력을 잃었다. 대신 소규모의 커뮤니티나 익명의 페이지, 익명 트위터들이 페미니즘 정치 세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여성신문, 일다와 같은 페미니즘 미디어와 여성단체연합 여성 민우회 등의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지닌 페미니즘 정치 세력의 기반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분야의 사회운동 단체와 비교해보아도 그 기반은 미약한 편이다.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현재 페미니즘은 담론화나 현실 개입에 있어서 인터넷 공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과 현실 공간의 비물질성과 물질성의 복합적 연결은 현재 페미니즘 정치, 세력, 힘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연구소라는 제도적

물질성의 힘을 지닌 페미니즘 세력에게 인터넷은 입소문 효과viral effect와 같은 비물질적 휘발성이 세력화에 유효한 효과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공격이나 조리돌림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것은 제도적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영페미/영영페미' 로 간주되는 집단이다. 최근 심각해진 '페미니즘 내부' 의 공격 역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영/영페미들이 주요 타겟이 되거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즉 제도적 기반이나 이미 세력 기반을 가진 기성 페미니즘 집단에게 인터넷은 정치 세력화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물질적 기반이 없는 세력에게 인터넷 공간은 취약한 세력 기반을 확인하거나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인터넷 공간에서 현실 공간의 몸과 실체를 지우는 경향성이 있다면, 지식인이나 기성세대에게는 인터넷 공간은 현실의 물질적 몸(제도, 세력, 담론 권력 등)의 연장이 된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인- 기성세대 사이에는 비대칭적 신체성이 생기고, 거기서 근원적인 힘 관계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계정이 소실되면, 몸도 흔적도,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불안한 반복은 이런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함축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 공간에서 이러한 물질적/비물질적 공간의 역학과 관련하여 소거되거나 삭제되는 몸들의 신체성을 어떻게 돋을 새김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신체성의 기반이 강한 지식인-기성세대는 이른바 후배 세대의 페미니즘 힘들과 몸들이 휘발되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물질적, 현실적, 구체적 기반을 만들거나-보완물이 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를 갖고 있다.

반면 이른바 트페미나 페페미들의 경우 인터넷 공간이 휘발되기 쉬운 취약한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은 현실에서의 반페미니즘적 공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인격/몸과 오프라인 인격/몸을 구별하거나, 온라인 인격/몸을 다중화, 가면화하는 데 익숙한 세대가 자신의 온라인 자원을 활용하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즉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페미니즘의 전략은 단지 피해자성의 산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온라인 집중성에는 분명 이런 인터넷의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사이의 삶을 분리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존재론이 작용/발생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페미니즘 관련한 뜨거운 논란과 상호 비방의 한 핵심이 터프 논란이 보여주듯이 '생물학적이고 생득적인 성적 차이'의 견고함이나 생물학적 생식기의 차이의 견고함과 같은 유기체적 신체의 물질적, 구체성 혹은 생득성의 견고함에 사로잡혀 있는데, 실상 운동은 매우 비물질적이고 가상적인 신체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징후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견고한 유기체적 신체의 생득적인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강조 역시 실은 매우 온라인적인

인격/몸, 버추얼의 한 양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페미니즘을 사유하는 일은 새로운 신체의 유물론, 즉 부대끼는 몸들의 정치학과 존재론을 탐구하는 일이다. 페미니즘은 이미 존재하거나 생득적인 견고한 정체성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은 이름을 불러보는 정치인 것이다.

두 번째로 페미니즘이 도래하지 않은 이름을 불러보는 정치라고 할 때 페미니즘 공간은 유토피아적인 것일까? 오늘날 한국 페미니즘의 주요 기반이 되는 비 물질적 공간, virtual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분리와 분열은 근대 초기 나혜석에게 나타났던 파리와 경성의 분열과는 어떻게 다를까? 전혜린의 슈바빙과 나혜석의 파리는 단지 '서구문물에 대한 동경' 과 현실 사이에서 분열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의 탈정치화된 유토피아일까? 근대 초기 이해 이곳의 페미니즘은 왜 항상 저곳의 삶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되고 재동기화되는 것일까? 나혜석과 전혜린과 최승자와 배수아를 비롯한 한국의 페미니즘은 번역의 공간 속에서 매번 다시 태어나곤 했다. 이는 근대가 번역의 과정이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까? 오히려 번역의 공간은 페미니즘에서 이곳도 저곳도 아닌, 번역하는 행위 속에서만 구축될 수 있었던 페미니즘 정치의 독특한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장소는 때로 낭만적 유토피아로 때로는 글로벌 소비자본에 포섭된 '비장소non-place'로 현현한다. 근대 초기 해방적 여성을 '서구에 대한 동경' 에 빠진 허영녀라 규정했다면, 백년이 지난 도래한 '된장녀' 의 '서식지' 가 스타벅스라는 전형적 비장소인 것은 우연은 아니다. 이른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전형적 분리가 보여주듯이 몸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특정한 몸둘 바들이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미 젠더적으로 규정된 공간들이 아닌 다른 공간이 부재한 상태에서 페미니즘의 해방의 정치는 언제나 유토피아와 비장소 사이에서 분열되거나 맴돌곤 했다. 이제는 그 장소들에 이름을 부여할 때이다. 본 발표자가 페미니즘이 도래하지 않은 이름을 부르는 정치이자, 도래하지 않은 몸들, 그리고 몸들의 거처인 몸둘 바의 새로운 정치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3.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주체의 동일성의 정치학: 정동의 '과잉됨'과 반차별 주체의 생산의 역사화[7)]

최근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의 대두가 인터넷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세대 문제이다. 또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세대 간의 인정투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의 차별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여성 집단 주체의 등장에서 차이와 반복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대두한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를 이성과 성찰이 결여된 '근본주의적 폭도' , '패륜

7) 3장은 이미 발표 개제된 논문의 일부임을 밝혀둡니다. 권명아,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여자 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여성문학연구』, 2016년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이성, 성찰,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상징되는 ‘공론장’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반여성주의적 담론의 부상은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의 부상과 반페미니즘 공격이 세대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역사적 반복 혹은 역사적 구조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이른바 공론장 주체를 자임하는 이들의 매체 ‘절독 운동’이다. 이른바 ‘메갈 사태’로 표명되는 일련의 사태에서 집단적인 여성 주체성은 ‘메갈’이라는 특정 정체성 표지로 환원된다. 이때 ‘메갈’이라는 규정은 매우 흥미롭게도 인종차별주의에서 작동하는 인종화(racialization)의 메커니즘을 반복한다. “인종화란 ‘인종’이라는 사고의 역사적 발현과 그 이후의 적용 및 재생산 과정”을 뜻한다. “차별화된 사회적 집합성을 구조화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두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낸 범주화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인종화 과정은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담론적, 문화적 과정이기도 하다. 인종 구분과 유사한 의미와 가치를 환기함으로써 인종화의 과정은 소수 집단을 인종에 결부시켜 표시하고 낙인찍는 것이다.”[8)]

8) 김현미는 마일즈의 인종화 개념을 빌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개념이 인종화 되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김현미, 「인종주의의 확산과 ‘국가없음’」, 『2014년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9쪽.

즉 여기서 살펴볼 지점은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실태와 정체’가 아니라, 여성 집단 주체의 힘의 봉기를 ‘메갈’이라는 특수하게 정체화된 집단으로 환원하는 인종화의 메커니즘이다. 특히 ‘메갈’이라는 정체성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포함하는 배제)이 이러한 인종화 과정과 동시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메갈리아나 여타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른바 공론장의 담론 구조나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편입을 거부한 채 항상 그 외부나 수면 아래에 잠복(잠수)해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잠수’를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이른바 공론장이라는 담론 공간 ‘위로’ 부상하자마자 이들의 ‘위협적 힘’이자, ‘야만적 근본주의’, 반문명적 패륜 집단으로 공론장에 적대적인 의미로 규정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성의 집단적 힘의 부상을 인종화 과정을 통해 공론장에서 배제한 것은 한국의 근대사를 통해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근대사에서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이 작동한 방식이 전형적이다. 풍기문란 집단에 대한 규정은 근대적 시민 주체(선량한 시민)와 반문명적이어서 계몽과 ‘처벌’이 필요한 풍기문란 집단이라는 정체성 정치를 통해 만들어졌다. 근대적 시민 주체의 개념과 이상, 제도와 가치는 ‘풍기문란 집단’이라는 반 근대적, 반문명적인 정체성 집단을 생산함으로써 구축되고 재생산된다. 즉 풍기문란 집단은 야만, 금수(짐승), 떼거리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반문명 집단을 규정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타자로서 인종화된다. 근대적 주체와 ‘문명화된’ 공론장은 이렇게 ‘야만적 떼거리’를 계몽하고 문명화시키는 장이기도 했다. 물론 풍기문란 집단으로 구별되는 속성은 여성뿐 아니라, 하위 집단 남성, 떠돌이 노동자 등으로 무한히 증폭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근대 공론장(지식, 문학, 표상 체제를 아우르는)에 이러한 인종화 된 타자를 진입하는 것은 ‘홍수’, ‘문란’, ‘퇴폐’, ‘망국’, ‘폭도’와 같은 과잉의 표상을 통해서였다. 이 과잉이야말로 정동의 힘에 대한 근대적 표상의 전형적 방식이다. 즉 과잉된 힘의 분출에 대한 표상 체계는 역설적으로 그 사회에서 항상 ‘잠수’(잠재성!) 상태에 있어야만 했던, 공론장 주체라는 표상과 대표성에서 배제되었던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이 솟아오르는 사건적 순간으로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정동적 힘의 분출’을 과잉과 문란, 공론장의 타락으로 일방적으로 환원하는 논의를 페미니즘 내에서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인종주의적 혐오발화로 가득 찬 논의를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페미니즘에 친화적이고 이른바 계급, 노동 중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먼저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단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역할을 해온 이선옥의 논의에서도 이런 공론장과 근본주의적 야만이라는 대립은 ‘메갈’이라는 집단을 비판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과 여성혐오 배격 운동이 이어진 최근 2년 동안 적어도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사건은 논쟁 대신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논의는 실종되고, 공론장은 사라졌다. 혐오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혐오의 언어가 확산되고, 낙인과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횡행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목소리는 혐오와 반혐오라는 단일 전선에서 설 곳을 찾지 못한 채 중립충, 공정충, 진보피시충과 같은 혐오의 언어로 공격당했다. 갈등은 단일하지 않은데 전선은 단일하게 강요됐다. 이번 사태도 여러 결의 갈등과 전선이 존재하는데 ‘티셔츠 하나 입었다고 해고당하는 여성혐오 세상’ 같은 자극적인 주장이 앞선다.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이런 갈등을 반복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진영과 진영이 대립하고 불편부당함이 아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혐오의 표현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배격하되 불편부당함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극단적인 모습을 부각해 증오를 강화하는 방식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억압에 침묵하기보다 계속 발언하고,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설득하면서 합의해야 한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사라진 공론장을 회복해서 혐오의 개념, 혐오의 범위, 혐오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동료시민으로서 역할을 논의하면 된다. 내치거나 멸시하지 않고,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성차별이라는 구조적인 경향성은 인정하되 개별 사안마다 가진 맥락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9] 이선옥의 글에는 여러 논점이 내포되어 있고, 중요 논점은 이른바 넥슨 사태가 여성혐오 문제가 아니라는 점, 메갈리아의 여러

9) 이선옥, 「메갈리안 해고 논란? 이건 여성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적 정의와 진보의 가치…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오늘』, 2016년 7월 25일.

그룹을 구별해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점이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진보 진영’ 과 여기 동일화하는 ‘공론장 독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략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 진보 진영의 정체성과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은 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된다. 더 나아가 이선옥은 “여성혐오 배격 운동”이 진보 진영에 대해 ‘억압’ 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다. 그래서 이 글은 억압에 대항하며, 억압 주체인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바로 “공론장을 회복”하는 일이다. 공론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렇게 표현된다. “억압에 침묵하기보다 계속 발언하고,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설득하면서 합의해야 한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이 담론 구조는 너무나 흥미롭다. 여성주의는 진보 진영에 대해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억압에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의 근거이다. 그리고 사라진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억압에 침묵하기보다 계속 발언하고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이선옥의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공론장, 대화, 의사소통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 진영과 여성 문제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여성혐오 반대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한다.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은 ‘내부의 극단주의’ 라는 표현이다. 이 글의 부제는 “선택적 정의와 진보의 가치…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이다. 즉 여성혐오 반대 운동이 극단주의이며, 이에 동조하는 진보 진영 내부 그룹 역시 ‘내부의 극단주의’ 로 간주한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요청과 당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인 공론장의 회복이란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오인하게 하는 극단주의자를 고립시키고 이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는 일을 뜻한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 은 이 문제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흥미로운 건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은 ‘통진당’ 사태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정체성이 ‘오인될 가능성’ 이란 다름 아닌 통진당 사태를 뜻한다.

통진당에 문제가 생기면 노동당에 항의전화가 온다. 민주노동당에서 서로 갈라진지 몇 년이 지났고, 노동당과 민주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른다면 통진당과 노동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이질적인데, 대중에게는 모두 같은 진영일 뿐이다. 대중이 무지해서 그런다고 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중의

무지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 자체에 있고 이는 진영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진보진영의 대응은 유감이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각각 문화예술위원회, 청년녹색당, 여성위원회 차원의 논평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논평과는 달리 내부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정의당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에 당원들이 이례적으로 격렬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10)]

10) 이선옥, 앞글.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을 통진당 사태로 결부시킬 만큼 진보진영이 느끼는 정체성 위협은 막강한 것이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단호함은 이런 막대한 위협감에서 비롯된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자를 배격하고, 특히나 내부의 극단주의자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이런 논지는 이른바 미디어 ‘절독 운동’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논리와 담론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사태는 모두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주체성을 표명하고 정체성을 ‘인증’하는 절차이자 과정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달리 진보 진영은 타자성에 열려있고, 변혁적 운동에 연대하며 현실 변화와 경향성을 (모순의 객관성과 총체성!)을 파악한다는 ‘통념’과 달리 이 사태에서 진보 진영의 정체성은 ‘동일성 인증’(‘시사인, 너희가 이럴 수가’ ‘조중동과 다른 게 뭐냐’)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한다. 즉 한국의 진보 진영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와 시사인, 시사저널 등 특정 매체의 독자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매체들 역시 이런 독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즉 한국의 진보 진영의 정체성은 미디어와 독자 주체 사이의 상호 동일성, 등질적인 상호 참조와 교섭 작용으로 구성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여 왔다. “시사인 너희가 이럴 수가!”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역사에 대한 이른바 진보적임을 자임하는 ‘독서 주체’의 배신감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적 공론장이란 근대 인쇄 매체의 발전에 따라 신문, 잡지, 단행본을 읽으면서 상호 성찰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구축한 독자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페미니즘 연구와 서발턴 연구,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연구가 다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근대 공론장에 소수자의 자리는 없었고, 오히려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배제하면서 공론장의 ‘시민권’과 독서 주체는 생산되고 헤게모니적 지배를 계속해왔다는 점이다. 정동 이론은 이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가브리엘 타르드의 군중(la foule)과 공중(le public)에 대한 논의는 정동 이론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네트워크 기반 주체가 근대적 공중과 어떤 차이와 가능성을 지니는지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원천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중은 “인쇄물 특히 신문을 읽는 행위로부터 성립한 새로운 사회집단”이며 데카르트나 르봉과 같은 19세기 학자들은 이런 공중을 자율적 개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가치를 두는 근대 주체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반면 군중은 '군중심리' 에 대한 르봉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근대 도시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동조나 충동적 행동을 하는",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탈 행동을 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가브리엘 타르드는 르봉의 입장과 달리 군중보다 공중이 자신의 판단과 정신의 자유에 의해 판단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군중과 비교해서 더욱 등질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타르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군중 속에 휩쓸려 자기를 잃은 개인보다, 신문 독자 쪽이 더 많은 정신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타르드, 1901) 이 대목은 당시 군중과 공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즉, '군중' 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지만, '공중' 은 무엇보다도 '독서' 하는 주체이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타르드에 따르면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공중' 은 '군중' 과 비교해서 더욱 등질적일 수 있다.

물론 독자는 기사를 읽고 내용을 숙고한다. 평소의 수동적 태도를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에 합치되는 다른 신문 쪽으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한편, 기자들 역시 이런 변덕스러운 독자의 동향을 감지하고 독자를 끌어오고자 한다. 타르드는 이 관계를 '상호적합에 근거하는 상호선택' 혹은 '이중의 상호적응' 과 '이중의 상호선택' 이라고 규정한다. 이 상호적응과 선택의 결과, 독자들은 '자기의 편견이나 감정에 비위를 잘 맞추는 신문' 을 택하게 되고, 한편 신문 쪽은 '다루기 쉽고 가변적인 독자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낸다.[11]

11) 이토 마모루, 김미정 옮김, 『정동의 힘』, 아프콤 총서2, 갈무리, 2015년 76~77쪽.

신문을 읽는 독서 주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당대의 지배적 인식에 대해 타르드는 오히려 신문과 독자 간의 상호 적응과 상호 선택에 의한 등질화 과정을 주목한다. 이런 해석에 비춰보자면 앞서 논의한 '절독 운동' 의 경우는 공론장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의 반복이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상호적응과 상호선택에 의해 등질적 관계를 구성해 온 신문과 독자 사이의 상호 등질성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위기감이 '절독'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절독 운동은 이른바 지금까지의 공론장이 바로 이러한 상호 등질성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공론장은 부재하지도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여자떼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은 공론장을 구성하는 미디어와 독서 주체 사이의 상호 등질적 상호 선택과 상호 적응에서 배제됐고 배제되고 있다.

특히 문화 영역에서 여성들이 문화의 보호자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2] 여성은 '관객', '소비자', '독자' 로서의 수동적인 지위만을 부여받는다. 문화 생산물에 대한 여성혐오 비판의 중요 동력 중 하나는 여성과 문화 생산장

12) 천정환. 앞글.

사이의 관계가 앞서 살펴본 독자 주체와 공론장 사이의 관계와는 너무나 다른 종속적 지위라는 점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문화 생산에 대해 수동적인 지위를 벗어나 능동적인 상호 교섭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은 매번, 기껏해야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환원되고 매도된다.

이선옥은 넥슨 사태에 대해 여성 혐오 문제가 아니라며 이렇게 게임 유저들의 강변을 대변하기도 한다. “게임 유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다. 남성이 하면 혐오이고, 여성이 하면 왜 혐오가 아닌지, 여성의 불매는 왜 정당한 사회운동이고, 남성의 불매는 왜 여성혐오자들의 준동인지.”[13]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대 공론장이 형성된 역사를 통해 볼 때 남성의 불매는 공론장 주체의 지배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시도라면 여성의 불매는 바로 그러한 지배적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 상호 교섭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이런 ‘불매’ 의 성격을 전혀 해석하지 못한 채, 헤게모니 지배를 관철하려는 지배적 다수자의 억압적 통제와 이를 벗어나려는 소수자의 상호 교섭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투쟁을 ‘동일한 소비자 운동’ 으로 환원하려는 시도야말로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다.

13) 이선옥, 앞글.

물론 이러한 비판은 공론장이 해체되어야 한다거나 불필요하고 ‘공중’ 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낭만적 결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토 마모루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정동 이론이 타르드의 공중과 군중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 원천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의 연구 의제를 도입한다. 먼저 근대성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작업이다. 이는 공중에 비해 군중을 충동적이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집단으로 치부했던 근대적 사유 체계는 실은 근대적 주체 이론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애매한 경계’ 를 부정적으로 포섭하면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군중행동이나 군중 심리로 불린 사회 현상은 근대적인 사회 변동 과정에서 “근대적 가족이나 기업에 아직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은, 즉 ‘사적 영역’ 과 ‘공적 영역’ 의 질서에 분명하게 편입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사적이면서 공적인 도시 공간의 애매한 경계에서 경험한 것을 지시한다는 점이다.”[14] 이는 근대성의 해석에서 누락된 ‘포섭되지 않은 제 3의 영역이 가지는 독자성에 대해 재해석해야 할 연구 과제를 남겨놓는다. 이는 앞서 논한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연구와도 연결된다.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은 주로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주체(젠틀맨)와 노동자 주체성이 이분화 되어 구성되는 시기에 양자 어디로도 포섭되지 않았던 집단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풍기문란 집단 연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4) 이토 마모루, 앞의 책, 130쪽.

두 번째로는 이처럼 근대 군중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공사의 영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리와 공간을 가지는 영역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촉발했고 ‘공통적인 것common'(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도 그 한 예라고 이토 마모루는 논의한다. 공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즘과 젠더, 퀴어 연구를 중요한 역사적 원천으로 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논의한 바이다. 또한,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동 연구와 근대성 다시 읽기, 그리고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인 것과 에토스 그리고 결속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 의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 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 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의 재구성에서 정동 연구와 페미니즘의 결합은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할 거의 유일한 역사적 이론적, 실천적 원천이라고 할 것이다.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크 제2차 심포지움

지금, 한국의 여성 청년

1부 소개	12:40 - 13:00	등록
	13:00 - 13:10	개회사 및 성평등네트워크 소개
		— 정영숙 (부산대 여교수회장)
	13:10 - 13:20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소개
2부 발표	13:20 - 14:00	발표 1: 나는 착한 여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
		— 윤슬기 (공공정책학부 학생)
		발표 2: 남성인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이유
		— 심교우 (사학과 학생)
	14:00 - 14:30	발표 3: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과 "청년세대" 담론
		—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14:30 - 14:50	휴식
	14:50 - 15:20	발표 4: 청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의 변화, 1995-2015
		—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15:20 - 15:50	발표 5: 젠더, 폭력과 차별, 혐오의 메커니즘
		—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15:50 - 16:20	발표 6: 페미니즘의 공간, 부대끼는 몸들의 정치학과 존재론
		—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16:20 - 16:40	휴식
3부 종합토론	16:40 - 18:00	공미혜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김경연 (부산대 국문학과)
		청중